

ACHIEVE^{ment}

Amway Success Business Partner

Special Edition 2015 Vol. 15



언제든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할지,
아니면 잠시 멈춰야 할지.
그런 순간이 오면 내 생각과 판단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조언을 기대하게 됩니다.
경청이 필요한 순간,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귀를 활짝 열면 작은 조언들도 크게 들립니다.

미래의 리더에게 드리는 편지

Dear .

※ 소중한 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 (ACHIEVE) 메거진을 전해주세요.

마윈이 만일 ABO였다면...?

그가 알리바바 그룹을 이끄는 데 전념하는 대신 암웨이 ABO가 되었다면 당신에게 이런 글을 남길지도 모른다.
아래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은 실제 그의 어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우리는 열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금 지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 마음속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불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열정은 가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열정을 가져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만이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다시 도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열정입니다.
꾸준히 나아가는 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기는 쉬우나 변함없이 유지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거나 변화시키고 싶은 것을 명확히 한 후 끈기 있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실패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실패가 거듭해서 찾아올 때에는 주저앉아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으니까요.

실패를 거듭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관건은 눈앞에 닥친 곤경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한 꿈입니다.
나의 미래를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웅은 실패 속에서 태어나고, 용병은 퇴군 중에 만들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갖고 꾸준히 밀고 나가십시오.
당신에게 꿈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지니고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는 당신의 이상을 현실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Contents



암웨이 스마트뷰어 안내
(Amway Smart Viewer)

암웨이 스마트뷰어는 QR코드 및 증강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증강현실이란, 인식코드가 삽입된 이미지를 휴대용 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로 비추면 이를 인식해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암웨이 스마트뷰어 앱으로 암웨이에서 제공하는 각종 매체(광고, 제품안내서, 매거진 등)의 더욱 풍성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암웨이 스마트뷰어 사용방법 안내

- 1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PC에서 앱스토어나 Play스토어 접속
- 2 검색창에 '암웨이 스마트뷰어' 입력
- 3 설치 버튼 클릭
- 4 설치 완료 확인 후 바탕화면에 생성된 스마트뷰어 아이콘 클릭
- 5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되면 스캔하고자 하는 사진 전체가 화면상에 반듯하게 잘 보이도록 맞춤
(대상이 상하좌우로 심하게 기울어지거나 화면이 크게 흔들릴 경우 증강현실 구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음)

INTRO

01	<i>He Says</i>	마윈이 ABO들에게 전하는 편지
03	<i>Leader's View</i>	기업가 정신

RECOGNITION

06	<i>New Diamond</i>	7, 8, 9월부 뉴 다이아몬드 인터뷰
110	<i>New Achievements</i>	7, 8, 9월부 뉴 핀

MOTIVATION

184	<i>If</i>	알리바바의 마윈, 우리에게 조언하다
-----	-----------	---------------------

BIZ GUIDE

190	<i>Common Sense</i>	손짓, 자세, 표정 등을 통해 파악하는 상대방의 심리
194	<i>Business Manner</i>	명사들은 파티에서 어떤 건배사를 제안할까?
196	<i>Amway Bulletin Board</i>	암웨이의 어제와 오늘
198	<i>Amway News</i>	암웨이의 다양한 소식
199	<i>Rules of Conduct</i>	ABO 후원 시 유의 사항

COVER story

결정이 필요할 때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모자를 때
다른 이들의 조언을 기대하게 됩니다.
경청이 필요한 순간이면 작은
소리에라도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활짝 열면 작은 조언들도
크게 들립니다.

©Shutterstock



ACHIEVE December 2015 Vol.15

등록 번호 강남, 바 00116 발행처 한국암웨이(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7층 발행인 박세준 편집 책임 김현동
편집인 박혜영, 이민선, 김이나 제작 TNS MEDIA 02-548-0722 디자인 디자인나무 02-3143-6720
포토그래퍼 우정훈, 귀도, 민희기, 임재철 사진 Alamy, Corbis, EuroCreon, Shutterstock, Getty Images 인쇄 미래엔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제이 밴 앤델과 리치 디보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도록 이끌어 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돕는다는 사명과 함께 1959년 암웨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스스로 사업가가 되는 기회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원하는 속도로 이뤄나가도록 지원했습니다.

5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 100곳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이와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개인 창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지만, 암웨이의 기업 사명은 지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38개국 4만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 연구인 암웨이 글로벌 기업 정신 리포트(Amway Global Entrepreneurship Report)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실제로 암웨이의 조사 결과 응답자 75%가 개인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암웨이는 개인 사업가들이 이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돕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암웨이 비즈니스 오퍼들을 지원하는 국제조직을 설립했습니다.

바로 이 같은 기업 정신이 모든 암웨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스스로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열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만들며, 당신이 암웨이 비즈니스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도록, 더 나아가 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도록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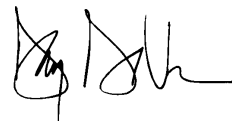
당신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암웨이 회장 _ 스티브 밴 앤델



암웨이 사장 _ 덕 디보스



The background is a light, monochromatic blue. It features a stylized, semi-transparent illustration of an airplane's fuselage. The fuselage is shown from a side-on perspective, with a row of five oval-shaped windows visible. The lighting is soft and diffused, creating a clean and modern aesthetic.

Congratulations

Success Through Passion

2015 New Diamond Above Leaders

	<i>Founders Triple Diamond</i>	06
	<i>Triple Diamond</i>	08
	<i>Founders Double Diamond</i>	14
	<i>Double Diamond</i>	16
	<i>Founders Executive Diamond</i>	24
	<i>Executive Diamond</i>	34
	<i>Founders Diamond</i>	52
	<i>Diamond</i>	74

멋지게 노력한 하루가 모여 만든 성공의 오늘



암웨이는 파운더스를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파트너님들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안으로 진입했다는 의미기에 이번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는 저희에게 더 큰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2004년 암웨이 사업을 시작한 후 지난 11년간은 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업 초창기 일과를 마치고 새벽 1~2시가 되어 아파트에 도착하면 몇몇 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죠. 우리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산 오늘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치열하게 노력한 시간이 모여 우리가 꿈꾸던 미래와 성공적인 오늘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웨이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웨이 사업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 가치대로 진심을 다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사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는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년 정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성장이 필요한데 행동하지 않아 성장이 멈추는 것,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느껴야 할 가장 큰 위기가자 두려움입니다. 그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을 꾸준히 하는 한결같음입니다. 저희 역시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가 가장 좋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살아 있음을 느낄 만큼 압웨이 사업을 위해 움직이는 그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목표가 생겼다면, 그리고 그 목표를 해내겠다는 각오를 했다면 그만큼 오늘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압웨이의 기업 이념인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이념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꿈만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만큼 나의 욕심과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늘 창업자인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창립 이유와 사업 초창기 그룹을 이끌던

리더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하지만 창업자와 많은 성공 리더의 마음을 다시 제대로 품는다면 그 시행착오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성공의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모두 평등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큰 것이지요.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큰 자신감으로 능력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는 그릇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으세요. 자신을 믿고 기도하며 노력해나간다면 정말 멋진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 믿음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일시금 보너스로 부산 지역에 사랑의 본부 '빛과 소금' 재단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미 목표는 정해졌고 분명히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저희 자신을 믿기에 더 열심히 다음 목적지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Key Questions

<p>나에게 압웨이란?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한 수단이자 끊임없는 도전</p>	<p>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최상으로 해내고, 최고가 되자.</p>	<p>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직, 진실, 사랑 욕심내지 마라.</p>
---	--	--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
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
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전엔 믿지 말고, 확신이 서면 흔들리지 마라

저는 화교입니다. 아버지는 1940년에 산둥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했고, 해방되던 해 10월에 서울 플라자호텔 근처에 중식당을 열었습니다. 제가 서른의 어린 나이로 가업을 물려받은 1989년에 직원이 350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식당은 계속 번성했습니다. 저는 파주에 만두 공장까지 여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35세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4년을 버텼지만 50억 원이 넘는 빚만 남긴 채 말입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지니 눈물이 수돗물처럼 흐르더군요. 그때 종합병원에서 아픈 환자들을 보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무런 그 사람들에게 돈이 100억이 있다 한들, 현재의 건강한 내

치지가 나은 것 아닌가 하며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 마침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친구가 제게 암웨이를 소개한 겁니다. 미팅에 참석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괜찮더군요. 하지만 정말 괜찮은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회사를 믿을 수 있어야 네트워크가 안정되고 사업이 번창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회사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 사업이 그랬듯, 숫자는 언젠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숫자를 믿어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창업자의 마인드에서 회사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제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기업의 문화가 어떠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창업자의 마인드, 제품, 제도, 기업 문화. 저는 이 네 가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먼저 창업 정신입니다. 저는 창업자의 마인드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암웨이 본사를 찾았습니다. 제 마음을 울린 창업자의 마인드는 “암웨이 사업자가 한 명이라도 남는 곳에선 철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금껏 사업자가 남아 있는 나라에서 적자를 본다고 암웨이가 철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내 사업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흔들리진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스스로 바뀌면 세상도 따라온다

회사를 믿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제품의 품질입니다. 저는 생활화, 다원화, 보급화, 환경보호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제품의 시장성을 평가합니다. 생필품이어야 하고, 품목이 다양해야 하고, 일반인이 사고팔 수 있는 가격대여야 합니다. 직접 써봤는데 가격과 품질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유 없이 반품도 해봤는데 받아들이더군요.

셋째, 기업(企業)의 한자를 떠올려보세요. 기업의 기(企)에는 ‘사람(人)을 멈춘다(止)’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재를 떠나지 않게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저는 암웨이의 보상 체계를 6개월간 자세히 공부한 후 이런 제도라면 믿을 만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문화를 알아봐야 합니다. 암웨이의 기업 문화는 네 가지 가치, 즉 자유, 가족, 희망, 보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이 생기니 암웨이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저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사업에서 ‘제품을 어떻게 파는가’는 작은 고민입니다. 큰일을 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사상이 중요합니다. 전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상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감동을 주지 못한 게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절차탁마(切磋琢磨)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의 저는 아들에게 무척 엄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을 슬쩍 봤는데, 단축번호 19번에 제가 있더군요. 저를 1번으로 바꾸려다가 관렸습니다. 상대가 끼워주지 않는데 억지로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암웨이 일을 하며 부드러운 아버지로 바뀌자 서먹하던 아들과의 관계도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전화를 살펴보니 제가 단축번호 1번이 되었더군요. 빛도 청산했습니다. 어떠한 꿈도 간절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전에 스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운명을 바꾸는 사업이다.	천만 번의 노력보다 정확한 선택이 중요하다.	암웨이를 (제대로) 사업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엠펙스��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받으시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김민기 | 권수미

Triple Diamond  2015년 9월 1일부

Different Plan, Different Future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정확히 1년간 대기업에서 직장인으로 살았지만 회사는 너무 좁았습니다. 저는 저만의 색깔이 있었지만, 회사에선 수많은 직원 중의 하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인생의 경험치를 늘리기 위해선 회사를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권수미 리더 역시 20대에 패러글라이딩, 스킨스쿠버, 철인3종경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겼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신문사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암웨이에서 만난 저희들은 2007년 4월 1일 처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43일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서로 대화를 나누며 깜짝 놀랐습니다. 각자 원하는 바가 분명했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물예단도, 주례도, 신혼여행도 없었던 결혼식, 게다가 축의금은 모두 Amway One by One에 기부... 평범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기

보다는 그 시간을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암웨이를 시작하기 전에 유학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2~3년 유학하려고 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대신 암웨이 사업을 '인생학교'로 받아들이고 '젊을 때 더 많이 깨지고 배우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2000년도에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하셔서 어께너머로만 알고 있었던 암웨이 사업이었지만 창업자들의 책을 읽고, 일본에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들의 스토리를 듣고 20대에도 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어려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암웨이를 소개하다가 많은 친구들에게 거절당했는데, 돌아보면 그 거절조차 감사합니다. 걸림돌도 넘어선 후에는 그게 기회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도 10년 전의 경험을 발판으로 계속 도약하고 있습니다.

Innovative Lifestyle Platform

제 주변에는 젊고, 혁신적이고, 놀랍도록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득해졌습니다. 저와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분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다는 겁니다. 멋진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은 저에겐 가슴 벅찬 일입니다. 함께

매주 야구도 하고, 철인3종경기도 참가하고, 다양한 미팅들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웨이를 시작하는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이 사업에서 본인의 역할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역할은 마치 음반을 제작하는 것처럼, 파트너들 한 분 한 분이 개성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라이프 프로듀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꿈은 암웨이를 통해 비즈니스 이상의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2009년 다이아몬드를 성취한 후, 저희들은 일본, 싱가포르,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중국, 홍콩, 대만, 러시아 등 많은 나라에 초대되어 현지 리더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암웨이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은 너무나 열정적이었고, 삶에서 원하는 바가 명확했습니다. 외국을 다니면서 이 사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와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암웨이 사업이 국경을 넘어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것이 저를 가슴 뛰게 합니다. 닫힌 사고는 우리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를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파트너분들과 더욱더 재미난 세상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기회는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놀이터다.	Change the Platform, Shake the World!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엠펙스토어나 Play 스토어
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
를 다운받으시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호연 | 김혜련

Triple Diamond  2015년 9월 1일부

인생을 동화처럼, 꿈을 현실로

1997년, 저희는 결혼 3년 차 신혼부부였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인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고, 박사과정에 있던 저는 교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삶에서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암웨이를 처음 접하고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인세 형태의 소득이 생기면 유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어찌면 도돌이표 같은 삶이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바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남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저는 매일 아침 식사를 정찬처럼 차렸습니다.

아침마다 고기를 굽고 생선 살을 발라주었죠. 그렇게 2주가 지나자 남편은 회사 미국 지사의 동료들에게 연락해 암웨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40여 년이 된 초우량 기업이기때문입니다. 남편은 곧 풀타임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암웨이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 후 미국으로 출장을 떠난 남편은 하루 휴가를 내 암웨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암웨이를 통해 성공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자 더 망설일 게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바로 사업에 전력 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박사 논문을 쓰고, 집안일을 하고, 아기를 키우면서 압웨이 사업까지 해내기엔 벅했습니다. 제가 포기할까 고민하자 이번엔 남편이 나섰습니다. 칠판을 꺼내 5년 후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칠판 한쪽에는 압웨이를 하지 않았을 때, 다른 한쪽에는 압웨이를 했을 때의 미래를 적었습니다. 압웨이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도 현재의 모습과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성실함과 정성을 들이고 감동을 전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간절한 에너지들은 그 어떤 많은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집중력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에 진심어린 관심을 가지고 소통에 집중했으며, 우리각자의 시간 관리를 통하여 시스템미팅과 배움에 집중하여 2년8개월만에 다이아몬드핀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동화 속 주인공에서 동화의 씨앗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동화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사에 매달리면서 불안해졌습니다. 제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다림질하는 집안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면서 인생을 보낸다면 우리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신훈 초 제가 두려웠던 건 꿈꾸기를 포기하는 삶이었습니다. 압웨이는 계속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꿈을 현실로

이뤄줍니다. 저희가 압웨이를 시작했을 때 남편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1만 원, 2만 원 벌려고 참 고생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과 상황이 반대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구를 지키겠다는 꿈도 생겨납니다. 동화 속을 살아가는 듯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같은 삶은 저희부부가 잘났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성공을 믿어주시고 성공의 시스템을 지켜오신 스폰서님들 그리고 각자의 소중한 꿈을 함께 공유하고 하늘이 감동하는 팀워크를 만들어 주신 파트너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F.diamond를 성취하고 나서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은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모든 시간을 회사에 바쳐야 했으니까요. 퇴사 후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꿈과 희망, 여유가 생길수록 저희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밖에서 김치찌개를 먹어도 맛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하물며 이런 삶을 어떻게 나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려서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하나씩 실현하면서, 이제는 동화 속 세상으로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동화 같은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많은 분에게 갚아나가는 삶. 이제 그게 저희의 꿈입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압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압웨이는 동화다.	지속적인 성장	끝없는 배움 배움의 멈춤

리더로 거듭나고 싶은 리더



2001년 3월, 이선미 리더는 저보다 2개월 먼저 암웨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에게 아이들이 곧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당시의 저희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장인어른계선 34년간 몸담았던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셨는데, 퇴직 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저희의 노후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했던 이선미 리더는 저 몰래 암웨이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저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날 처음 시작된 부부 싸움은 2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모르던 때였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암웨이를 반대하기 위해 저는 암웨이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때의 일기장을 보니 40세가 되면 소설 500권을 싸 들고 에베레스트, 개마고원, 북극, 알프스에 오르겠다는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껏 책을 읽겠다는 것이었죠. 소설가도 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문학 작가들의 생각과 집필 공간에서 한 달씩 머물러보고도 싶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 달씩만 알아봐도 10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제 꿈은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런데 39세, 제 삶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싶던 제가 가진 것은 자유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20년, 30년간 강단에서 열심히 살아온 선배님들의 삶을 봤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현실과 어린 시절의 꿈이 겹쳐지면서, 평생 자유로워지기 힘들겠다는 암울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고민해보니 학교보다는 암웨이가 제게 자유를 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2001년 5월, 반대하기 위해 암웨이를 알아보던 저는 암웨이의 세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했습니다.

암웨이에 자유가 있다

유학 비용을 마련해야 하던 시기에는 한꺼번에 네 가지 일을 하기도 했기에 강단과 암웨이 사업 두 가지만 병행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명예를, 암웨이에서 부를 성취하길 꿈꿨습니다. 그런데 F.Diamond가 된 5년 차 즈음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파트너 한 명이 그만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꿈을 빼앗은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암웨이의 크기가 달리 느껴졌습니다. 암웨이의 수입은 자산 개념이어서 일반 연봉과 다릅니다. 일반 회사의 연봉 1억은

거기서 끝이지만 암웨이에서의 수입 1억은 자산 30억에 비견할 만합니다. 규모의 차이까지 더하니,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 오롯이 암웨이에만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파트너의 발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작한 암웨이지만 점점 타인의 이익을 먼저 살피게 된 겁니다. 내면 역시 사장의 마인드에서 진짜 리더의 마음가짐으로 바뀌어나갔습니다. 암웨이에서의 시간은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파트너들의 성장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들이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할 때, 이기적이거나 성급하던 단점을 벗고 팀워크를 보여줄 때, 암웨이를 거부하던 이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는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어린 시절 꿈꾸던 것처럼 지금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암웨이를 소개한 모든 이가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해야 합니다. 세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파트너들에게도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런 책임을 다할 때 저는 진정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또 제가 꿈꾸는 자유와 암웨이의 삶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원하는 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책을 보고, 아이와 함께, 파트너들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식의 자유는 계속 조금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더 많은 파트너들과 만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의 능력자이고 싶습니다.



3 Key Questions

<p>나에게 암웨이란?</p> <p>암웨이는 삶이다.</p>	<p>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p> <p>늘 추구하고 시도하자! (삶은 곧 도전이니까...)</p>	<p>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p> <p>초기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라. 본질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마라.</p>
-----------------------------------	---	--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안의 변화를 리드하라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를 달성한 후 지난 1년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를 통해 파트너들이 더 큰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파트너들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것뿐이라는 걸 다시 느꼈죠. 지난 1년이 그 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편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 파트너들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왔으니까 방법을 잘 알잖아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담하면서 파트너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우리가 왔다면 당신도 올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파트너들과 상담할 땐 공감과 포용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랬는데 당신은 왜 그러지 않느냐”는 식의 질책이 아니라 당신이 겪은 그 어려움을 우리도 겪었다는 걸 알려주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게 팀워크이자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웨이는 삶이잖아요. 파트너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리더가 안고 갈 수 있어야 파트너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돌부리에 걸린 파트너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이 결국 파트너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함께 경험할 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부대끼는 것은 저희의 몫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고통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치인 거죠.

생각이 멈추면 꿈도 멈춘다

암웨이 사업은 평생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매번 도전과 성취 앞에서 만족과 동시에 더 목마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페이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요. 물론 때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하루 놀아버리면 내일도 놀고 싶고, 그러면 계속 놀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 사업은 목표가 없으면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성장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목표라는 건 내가 손만 뻗는다고 손에 닿는 게 아니잖아요. 발꿈치를 들든지 벽돌을 놓든지 하는 내 도전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변화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역시 그런 변화 앞에서 스스로와 가장 많이 부딪혔어요. 터블 다이아몬드를 앞두고 도전해야 한다는 마음과 지금의 편한 상황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줄다리기했죠. 그 마음의 줄다리기

위에서 나를 다시 도전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 '우리는 이미 터블다이아몬드가 됐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저희 생각과 마음에 이미지를 먼저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었죠.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해 책도 많이 보고 성공한 분들의 강의도 많이 듣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생각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생각이 크지 않으면 꿈도 커지지 않고, 꿈이 커지지 않으면 포기가 쉬워지죠.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원점이 되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속에서 살아남고 결과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역시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파트너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50대가 되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살고 싶어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인터뷰 때 정현정 리더가 노인이 되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싶다는 꿈을 말했다면, 올해는 제 꿈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한 달 동안 러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게 꿈이에요. 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희망이자 책임감이다. 그리고 팀워크다.	향기 있는 사람이 되자. 죽기 살기로 하자.	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시기와 비방을 하지 마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Double Diamond  2015년 9월 1일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길을 내는 사람들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20여 년 전, 남편은 여러 이유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이던 시절이니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었죠. 주변사람들은 그래도 믿을 것은 주식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1996년 8월 중순경 남편은 친구에게서 암웨이 마케팅 설명을 듣고 와서는 저에게 사업을 함께 해보자 제안했고 저희는 바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암웨이에서 돈이 아닌 또 다른 희망을 봤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운 좋게 돈을 벌면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모습은 또 다른 끔찍한 미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웨이네트워크라는 자산 개념은 달랐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입이 생기면서도 그 수입의 원천이 '네트워크'라는 자산 가치로 남아 지속 가능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빚을 갚고 나서도 그동안의 노력이 축적되어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첫달 암웨이 수입은 9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억 원 빚진 상태였지만 그 9만 원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수입의 성격이 다르다 생각했고 새로운 출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암웨이에 대한 확신으로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힘든 순간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2011년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할 때쯤 마침내 빛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1996년 암웨이 사업을 시작하던 당시의 목표, 빛을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보겠다는 꿈은 1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하고 나니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고급 승용차나 호화 여행 같은 것으론 채워지지 않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진 것입니다.

보람은 나눔 속에 자란다

2002년,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기념으로 저희는 아동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8월에 태어났습니다. 2009년 8월 이후부터 저희는 매년 후원 아동을 2명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15명 아이의 영친(영적인 부모 자녀 관계)이 되었지요. 처음 인연을 맺은 아이는 네 살 꼬마에서 열일곱 살 아가씨로 성장했습니다. 장기적으로 100명의 아이를 후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쁜 일이 또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 가운데서도 아동 후원에 동참하는 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걷다 보면 그 발자국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이 모여 길이 되고요. 저희는 바른 길을 내고 싶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퍼뜨리길

원합니다. 2019년까지 모교에 제 이름을 딴 장학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저희 강아지의 이름을 따서 장애인 안내견 지원 사업도 벌이고 싶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수입으로 이런 희망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창업자 생각을 자주 합니다. 경제적 고민만 가득하던 어제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세상이 온통 고마운 사람 천지입니다. 그룹 멘토님도, 스폰서님도 모두 고맙습니다.

저희들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지요. 아니, 둘 다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서로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좋은 데 이유 같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암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부부 사이의 팀워크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25주년을 맞아 16일간 동유럽을 여행했습니다. 친구들은 돌이켜 무슨 재미냐고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한다는 사람도 많은데, 어려운 숙제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나눴겠습니까? 언제나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목표에 대해서도, 인생의 파트너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기회다.	No Pain, No Gain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라. Never Never Give Up.

마음을 모아 미래를 쓰는 사람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도,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암웨이를 전달받았을 때에는 지금의 모습은 상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직장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평범한 삶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20~30년 동안 젊음과 정열을 직장에 몸바쳤던 선배님들이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직장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마땅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암웨이를 전달받았을 때에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기회로 보지 못했었습니다. 직장인의 현실과 너무나 빠르게 변화해가는 시대 흐름을 알게 되면서 암웨이를 통하여 막연하게 자유를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97년 언론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웨이를 부정하고,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꿈과 희망을 버리고 떠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의 선택과 판단은 올바른 것이고 반드시 되는 사업임을 믿었기에, 위기를 기회라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된 결과 그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잘되고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는 간절한 꿈과 목표가 있었고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미팅 속에서 배우고, 느끼고, 변화하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꿈을 꾸면서, 소중하고 간절한 그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함께 해내는 멋진 사업입니다. 나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라 함께하는 비즈니스기 때문에 항상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하였으며, UP LINE을 존중하고, 순복하였으며, 함께하는 사업파트너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신기한 비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 스스로입니다. 우리를 정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회사를 믿고, 제품을 믿고, 스폰서를 믿고, 자신을 믿고 꾸준히 진행하신다면 멋진 자유인이 될거라 믿습니다. 암웨이는 남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WIN-WIN 비즈니스입니다. 개인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정말 암웨이 사업의 본질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한 부자, 나눔의 부자가 되는

게 소망이었기에 경제적인 자유의 기회를 진실되게 전달하고, 한 분 한 분 파트너 리더님들이 경제적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과 감사함을 느꼈고, 더욱더 올바른 환경 제공과 리더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Double Diamond라는 멋진 핀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파트너 리더님들이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해서 형제 둘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아이들,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자립심과 목표 의식이 뚜렷해서 정말 멋지게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고맙고 자랑스럽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20대 젊은 파트너들을 보면서 가족이 평생 할 수 있는 멋진 사업이기에 머지않아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할 날을 기대하며 행복해합니다. 이 멋진 기회를 알려주시고 사랑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 스폰서님께 감사드리고, 멋진 팀워크로 함께하는 파트너리더님들이 계심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책임감으로 사랑하는 파트너 리더님들의 성공을 위해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믿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팀워크로 더욱더 멋진 성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마음이 되어 함께 걸어하겠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NEVER GIVE UP!!	공감, 소통, 배려 불평, 불만, 핑계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Double Diamond  2015년 9월 1일부

시련 속에서 깨달은 사람의 가치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2001년에 처음 암웨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남자 친구이던 김정훈 리더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혼 6개월을 앞둔 상태에서도 가족 모두 반대했습니다. 김정훈 리더 자신조차 그 반대를 진심으로 이해할 정도였죠. 그때 둘째 언니가 저희에게 암웨이를 소개했습니다. 처가에 편이 없던 김정훈 리더는 좋고 싫고를 따질 여유도 없이, 예비 처가와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암웨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자매의 우애가 남달랐던 저 역시 언니에게 상처 주기 싫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시작한 암웨이였음에도 사업은 급성장했습니다.

2004년, 핀은 높지 않았지만 파트너 수는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하는 건 아닐까 싶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서였을까요? 몇 개월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연거푸 터지더니 그 많던 파트너들이 허무한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업에 대한 확신도 흔들렸던 게 사실이었고, 주변의 부정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미팅만은 철저하게 고수했습니다. 암웨이를 떠나다 밥벌이는 했겠죠. 하지만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과 희망의 자리가 텅 비어버린 껍데기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삶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실패했지만 암웨이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암웨이에는 성취도 있지만 눈물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장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암웨이에서 겪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그건 암웨이의 문화에 희망과 기회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던 2005년에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려니 처음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요령도 생겼습니다. 어쩌면 삶에 대한 통찰도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

파트너를 떠올리며 앞으로, 또 앞으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였습니다. 파트너들을 보는데 갑자기 미안해졌습니다. 저희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길을 헤매고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스폰서를 만났다면 뭔가를 성취해서 박수받고 있을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저희가 다이아몬드 편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미안함, 간절함, 책임감, 자존심 그리고 오기까지 온갖 감정의 홍수 속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유일한 장애물은 육체의 피로뿐이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웠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니 마침내

다이아몬드 편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암웨이를 시작하고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힘을 쏟은 만큼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 성취를 이룬 리더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이아몬드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뛰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 더 매달리니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감이 잡히더군요. 그 감을 놓칠까 봐 아쉽고 두려워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다이아몬드 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노력합니다. 파트너들에게 느낀 미안함, 그들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얼마 전, 김정훈 리더는 에베레스트의 칼라파타르 트레킹에 도전했습니다. 산악 훈련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5,550m 고지에 올랐으니 무모하기 이를 데 없었죠. 남편은 신체 고통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당시를 표현합니다. 구토가 올라오고, 머리는 깨질 것 같고, 기력은 고갈 상태였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고, 가이드도 내려가라고 권했지만 그의 배낭 속에는 파트너들이 적어준 그들의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떠올리며 결국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저희는 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꺾테기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저희 내면은 진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게 파트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3 Key Questions

<p>나에게 암웨이란? 암웨이는 삶이다.</p>	<p>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의지 백이면 방법 백</p>	<p>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시스템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 것</p>
--------------------------------	---	---

서로를 닮아가며 완전해지는 삶



저희 부부는 30대 초반에 암웨이를 만났습니다. 3년 만에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했고, 다음 해에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초집중하며 정말 빠르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번 핀업까지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과거 저희 남편은 ROTC 장교로 복무한 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 건설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대기업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그 시스템은 개인이나 가정의 성공이 아니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작동합니다. 수직적인 기업 문화는 '명령'과 '복종'의 구조를 따라 형성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암웨이와 확연히 구분됩니다. 암웨이 시스템은 개인과 가정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정한 '비즈니스'의 성장은 '인간관계' 형성과 성장을 담보로 합니다. 어쩌면 저희는 시작과 함께 '비즈니스'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빠른 성장은 가능했지만 상대적으로 '인간관계'의 소중함은 간과했기 때문에 긴 정체를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업 초기 너무나 빠른 사업적인 성공으로 이룬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방향을 잃고 정체되었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볼 수 있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정체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차이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압웨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알게 되면서 우리 부부가 먼저 소통하게 되었고, 저희가 먼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남편과 제 성향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지향적이던 남편은 점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감성적이던 저는 점차 합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파트너와의 진심 어린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소통이 되면서 압웨이 시스템의 진짜 의미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왜 사업보다 사람이 먼저인지 깨달은 후 사업 성장의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성장은 사업 성공을 통한 가족의 회복,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통한 나눔의 실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성장이 정체되었던 원인을 비로소 찾을 수 있었습니다. Truly Really Friendship을 바탕으로 한 성장은 시스템에 의해 더욱 속도가 나고 내실 있는 성장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통로, 압웨이


세상에는 자신의 삶에 진정한 목표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소모하듯이 살면서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압웨이를 통해 내가 먼저 성장하고, 내 가정이 바로 서고 나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 압웨이 사업이며, 압웨이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사업 초기 누구나 그렇듯이 사업을 경제적인 목표에만 집중한다면 지속적인 도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목표를 이룬 뒤부터는 반드시 더 큰 성장을 위한 더 큰 가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편에 도전하면서 파트너들에게 더 큰 가치와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난 것입니다. 파트너와 강한 믿음이 회복되면서 스폰서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를 기다려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시간은 정체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작은 그릇을 키워가는 과정이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사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웨이에서 계속 성장해야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더 큰 성공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며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토대 위에 바로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심을 담아 상대를 대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리더가 사랑과 진실, 배려로 충만하고 성실함으로 도전하며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사용해주실 것입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압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압웨이는 종합 선물 세트다.	성실과 사랑의 조화	인내 지적질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
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
를 다운받으시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Founders Executive Diamond  2015년 9월 1일부

꿈이 자라는 온실, 암웨이



좀더 나은 미래를 생각했었던 작은 꿈으로부터 암웨이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해도 앞날이 불안하고 겁먹하기만 했었던 시기, 조금만 삶의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았던 20대후반의 시기에 암웨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암웨이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해줍니다. 암웨이의 인세 형태 수입과 여행의 보상은 삶의 여유를 기대하던 제 바람에 답이 되었고, 결혼 이후에도 자아실현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모든 게 여기 있었습니다. 남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에 실패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김진구 리더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사업의 기회로 암웨이 사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월급의 절반 정도를 안정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암웨이를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꿈꿨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암웨이사업의 보상과 가치에 매료되었고 지금까지 큰 열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삶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조금만 안정되면 좋겠다는 저희의 작은꿈으로 시작된 암웨이사업이 이제는 라이프스타일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큰 성취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렇듯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기회가 되어주는 암웨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상상 이상의 보물섬

저희에게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여러 굴곡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경을 넘어서면 너무나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조금 지치면 지쳤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정말 힘들어지고 지치게 됩니다. 확신의 크기가 결과를 만듭니다. 암웨이사업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결코 힘들거나 지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좋은상황도 나쁜상황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상황에서 내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어려워질 수도 너무도 쉬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즐겁고 신나게, 쉽고 희망차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굳게 믿으면 반듯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암웨이를 보물섬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험난한 파도를 넘어 그곳에 도착하면 보물을 만나게 됩니다. 암웨이 모물섬, 그곳에 놓인 보물은 언제나 우리가 꿈꾸던 것 이상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거나 월급의 절반 정도만 소득이 늘기를 바라던 그 옛날의 저희는 여행을 즐기는 삶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저희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생각 역시 변화했습니다. 작은 꿈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는 저희와 다른 남을 보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불편한 일들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남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니 서로에게 부드러워지고, 소통할 수 있는 여유 또한 생겨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꿈과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던 파트너가 당장 본인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을 떠날 때는 많이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소중한 꿈들이 암웨이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암웨이속에서 그 꿈들을 이뤄나갈 것임을... 진실된 인간관계가 유지된다면 반듯이 그리될 것임을 알기에 그분들과도 소통하면서 이해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부부는 이속에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암웨이의 보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하시는 사랑하는 파트너분들께서도 저희부부가 받고있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뤄낼 수 있게 함께 힘차게 달릴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누리며 모든 분들이 더 많이 행복할 때를 상상 해봅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파트너들과 여행의 보상을 나눌 것이고 경제적 안정을 토대로한 멋진 삶을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끝이 창대한 곳, 암웨이에서 다 함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듯이 나눌 것입니다. 스폰서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보물섬이다.	겸손하고 배려하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는 마음을 가져라. 정도를 벗어나지 마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
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
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Founders Executive Diamond  2015년 9월 1일부

삶의 진짜 목적을 찾은 행복한 가정

저는 2007년에 암웨이를 만났습니다. 그전까지는 '성공적인 삶'을 향해 잘 나아가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많은 노력 끝에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고, 저 역시 매일 3시간도 못 자며 열심히 공부해 유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닥(포스트 닥터 코스, 박사 이후 과정)을 위해 미국에 다녀오는 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입주자였는데, 제 주차 부주의 때문에 차를 빼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니다. 황급히 내려가 이웃을 만나 사과하고 다시 주차를 했습니다. 제 차에는 모교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이웃은 제 학교 선배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제가 육아 문제로 옮겨갔고, 그분은 도움이 될 만한 강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듯 아주 우연히 암웨이를 알았고, 스폰서님을 만났습니다. 강의 주제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공부만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오히려 이런 주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못했습니다. 경제학 박사의 강의 CD도 집에 가져왔는데, 남편이 저보다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암웨이와의 만남은 우리 삶의 위치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성공적인 삶'이란 행복한 가정에 있습니다. 회사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더군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둘째를 보고 울면서 고민했습니다. 만약 가족이 평생 아프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성공적인 삶, 그 결승점 가까이 왔다는 생각은 모두 환상이었습니다.

우선순위에 충실한 삶

남편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회사 상사들을 보면서 5년,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해보니 불안한 겁니다. 퇴사 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고,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지 답을 내릴 수도 없으니까요. 저희는 6개월간 도서관 자료를 뒤지며 암웨이의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잠도 못 자면서 해온 공부를 포기할 만한 가치가 여기 있는가? 그렇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2008년 1월, 저희는 암웨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확신과 각오로 시작한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절이 두려워 연애할 때 남편에게조차 부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암웨이를 시작한 후 평생 받아본 거절보다 더 많은

거절을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하지만 거절이야말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알려주는 척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핀을 달성하는 데 누구는 3년이, 누구는 10년이 걸립니다. 이때 기간은 다를지 몰라도 둘이 경험한 거절의 양은 같을 겁니다.

전 집에서 힘들게 에너지를 소모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언제나 충전소처럼 제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딸들도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저희와 달리 다른 이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학부모 모임에 왔습니다. 딸은 귀엣말로 제게 방금 온 척하라고 부탁하더군요. 남들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난해에는 <꽃보다 할배>에 푹 빠진 어머니 생신 선물로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사람도 숨 쉬기 힘든 산에 거뜬히 올라가 아이처럼 좋아했고, 남편은 그런 장모님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모습에 감사와 행복을 함께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암웨이는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주고, 성공한 삶의 진짜 모습을 만끽하게 합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희망이다.	창업과 기업 이념, 내가 원하는 삶, 가족, 희망을 지켜라.	절대 긍정하라. 포기하지 마라(포기도 습관이 된다).

함께여서, 함께여야 행복한 사람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는 눈을 밝아 길을 만든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지만, 이 곳을 앞서서 밟고 가다 보면 길을 만들게 되고, 그것은 곧 앞선 승자의 역사가 된다는 의미일겁니다. 제겐 암웨이가 이와 같습니다. 다른 것이라면 암웨이의 길은 고통스럽기보다는 즐겁고 기대되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2000년 즈음, 고등학교 동창에게 암웨이를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대부분 그렇듯 저 역시도 그것이 기회인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의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 외주 개발업체와 협업하게 됐는데, 능력도 뛰어나고 연봉도 높은 외주업체 직원들이 부업으로 암웨이 사업 중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을 보니 무언가 있구나.” 이번엔 오히려 제가 처음 암웨이를 소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암웨이를 소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암웨이를 소개받고 곧장 3개월간 10년치 신문의 경제기사를 독파했습니다. 또 여동생이 미국에서 보내준 암웨이 관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암웨이 사업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사업’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일과 육아로, 또 암웨이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 탓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아내 이은재 리더 역시 암웨이와는 상관없는 한 경제전문가의 강의에서 오히려 암웨이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은재 리더는 저와 함께 암웨이

사업이라는 즐거운 눈길을 밟으며 길을 탄탄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속에서 움직이니 회사 동료들도 암웨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의기투합해서 노력했습니다. 무리하기보다 매년 과정을 탄탄히 다져나가는 걸 목표로 세웠고, 계획대로 3년이 지나서는 에메랄드, 6년 만에 다이아몬드 핀이 되었습니다. 암웨이는 사업인 동시에 즐거움이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하니 소소한 이벤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저희는 의기투합해서 즉흥적으로 일출을 보러 동해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백사장에서 저희는 정장 차림으로 해돋이를 보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모두 함께 일을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파트너에게 신의 선물이 되길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달성했을 때 즈음 저희는 처음에 꾸었던 모든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년을, 그 동안 겸업으로 했던 모든 수고를 보상이라도 받는 듯, 하고 싶지만 미루었던 모든 일을 하며 놀았습니다. 암웨이 수입은 쉬는 동안에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파트너들도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었고, 암웨이에 감사하며 시간적·경제적으로 여유로운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소비자로 있던 새로운 두·세 명의 친구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꿈에 고민했습니다. 새롭게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한 후 저희도 그들의 목표를 위해 결단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뛰니 경제적 여유로 안주하고 있던 초기 파트너들도 다시금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뛰니 3조의 다이아몬드도 탄생했고, 새로운 꿈을 꾸던 파트너들도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들을 위해서 달리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어 더욱 행복합니다. 저희에게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핀 성취는 그래서 매우 뜻 깊습니다. 15년 전 함께 암웨이 사업을 시작한 3조 가운데 마지막 한 조가 이번에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목표만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성취로 얻을 수 있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파트너의 성취에서 나옵니다. 저희는 파트너에게 '신이 주신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론 저희가 쌓아온 노하우를 더 많은 파트너들과 나누면서, 더 큰 나눔 속에서 큰 행복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를 뒤따르는 파트너들이 저희가 앞선 길을 함께 걸으며 보다 즐겁게 동행하기 바랍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위기탈출 넘버원이다.	매사에 감사하라.	먼저 인간이 되어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암웨이에서 완전한 자유와 멘토를 만나다

12년 전, 대전에서 꽤 큰 중국어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중국어학원 원장님께서 저희 학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경쟁 업체 대표의 방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분께서 제게 암웨이를 소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학원을 폐업하신다니 저희에게 기자재와 교재는 물론 학생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암웨이 사업에 관심이 가진 않았지만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제품만 사용하면서 거리를 두는, 평행선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암웨이 미팅에 참석하면

할수록 선입견과는 다른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제품을 강매하기는커녕 마음껏 반품할 수 있었고, 보너스는 연금처럼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학원 운영에 문제까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웨이 사업을 잘하느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급한 사람이 잘한다고요. 암웨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암웨이 사업도 해볼까 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건 당연하겠죠. 12년 전 제 사정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중국어 붐을 타고 학원을 무리하게 키웠는데,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대전에만 1,000명을 넘어서면서 시장 환경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열되었던 중국어의 인기도 한 꺼풀 꺾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빚을 얻어야 했고, 급기야 일가족 전체의 경제 사정을 위태롭게 할 처지에까지 몰렸습니다. 제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암웨이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 좋게 좋은 그룹에서 탄실한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에서 성공을 향한 길은 등산로와 같아서 지름길이 없습니다. 더욱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하는 게 좀 더 빨리 정상에 오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전 제 30대 인생을 온전히 투자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행착오 없는 인생

기술도, 자본도 없는 사람도 암웨이에선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은 안 됩니다. 시스템을 통해야만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암웨이 사업은 큰 산을 보고 나무를 심는 일과 비슷합니다. 빠른 성과를 내겠다고 산의 진입로에 나무를 심어버리면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길이 막혀 모든 산에 나무를 심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데 암웨이의 시스템은 시행착오를 피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선 스폰서와 파트너의 인간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스폰서는 파트너에게 배려와 희생, 의리를 베풀고, 파트너는 스폰서에게 감사와 존경, 사랑을

보내야 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으면 놀라운 결과가 펼쳐집니다. 암웨이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암웨이를 통해 얻은 건 자유와 멘토입니다. 12년 전, 5층 건물을 지어 2개 층에서 중국어학원을 운영했습니다. 파견 교육 사업도 크게 했습니다. 남들 보기엔 대형 학원 원장이고, 큰 사업가였을 겁니다. 하지만 건물은 범인 경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고, 부모님 집은 은행 담보로 잡혔습니다. 아내의 월급도 압류 당할 지경이었습니다. 이자 갚을 돈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스스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저는 친구 부자입니다. 새벽 2시에 “당신이 참 그립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모일까요? 전 200명 이상이 제게 외출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암웨이에선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 모일 수 있습니다. 후회는 항상 뒤에 옵니다. 인생에 리허설이 있다면, 인생을 미리 살아볼 수 있다면 후회는 없을 겁니다. 암웨이에선 저보다 먼저 인생을 경험해본 멘토가 가득합니다. 그분들은 “첫째 건강, 둘째가 가정, 셋째가 암웨이이며, 순서를 지키라”는 지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분들과 파트너와 함께, 팀워크로 삶을 보낸다면 저희 삶에 후회는 없으리란 확신이 생깁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생명이야.	최선을 다하자.	사랑(나눔) 시기, 질투

인연, 습관, 노력으로 쌓아 올린 3대의 행복

세 가지 축복이 제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덕에 긍정적이면서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면서 근검절약하는 생활 습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암웨이 제품과 스폰서님을 만난 순간도 삶에 기회와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14년 전 저는 전신 아토피와 온몸의 습진, 각종 알레르기를 비롯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유산이라는 아픔까지 겪었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암웨이는 건강을 챙기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줬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세 가지 축복 가운데 배우자와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긍정의 에너지를 잃지 않는, 모든 인생의 변화에 가까이 도전하면서 한마디 불평불만도 하지 않던 위기 극복의 능력자. 저는 그런 배우자와 늘 함께합니다.

제 삶을 쌓아 올린 둘째 요소는 '성공 습관 10가지'입니다. 이 성공 습관 10가지가 있기에 저희는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축적해온 노력의 결실입니다. 성공을 겉으로만 훑어보면 반짝이는 하나의 덩어리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반짝이는 모든 부분은 땀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치지 못하는



자신의 단점에만 매달려 안절부절못하다가 자신감을 잃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을 위한 습관들은 사람들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에 부자 습관을 하나씩 갖들게 하죠.

셋째 요소는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인 암웨이 사업 파트너와의 팀워크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팀워크가 형성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성취해내고, '내 탓이오'를 중얼거리며 서로를 배려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길 반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입에서 놓지 않고, 저 스스로 먼저 변화하고 행동하고 보여주면 팀워크는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를 벗어나 오늘로, 오늘을 쌓아 내일로

예전에도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빛 없는 세상에서 잠깐이라도 살아보고 싶을 정도로 부채 독촉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난과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 단칸방에 살 때도 성공 시스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잘살고 싶었으니까요. 가난을 물려받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죄악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꿈꾸는 다락방>, <보물지도> 등의 책을 읽으면서 제 안의 꿈이 허물어져버리지 않고 단단해지라고 계속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진짜 꿈을 가슴에 품으려고 저만의 보물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업과 제품을 전하려다가 친구, 지인, 친척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했기에 아프고 슬펐습니다. 어떻게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성공 습관 10가지를 정말 이를 악물고 실천했습니다. 마음은 너무 힘든데, 억지로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들이 정말 삶에 스며들면서 진짜 웃을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별했던 인연들도 성공의 향기를 맡자 다시 저를 찾더군요. 또 아이들이 돈 때문에 꿈조차 꾸지 못한다면 부모는 자녀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자책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꿈을 향해 열심히 뛰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자랐습니다. 걸림돌을 넘어 디딤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도감과 은근한 자부심이 듭니다. 자녀로, 부모로, 형제로, 친구로, 이제 저희는 인생의 다양한 역할에서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70대 후반의 시어머니, 저희 부부 그리고 20대 자녀까지 3대가 함께 암웨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저희는 또 꿈을 이루려고 씩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습니다. 걸을 수 있을 때, 눈이 보일 때, 기억력이 더 또렷할 때 씩니다. 그래야 걷고 싶을 때 억지로 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습관, 사랑하는 스폰서님의 순복 그리고 파트너님들과의 팀워크로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자면 꿈을 꾸고 뛰면 꿈이 이루어진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일이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다. 안 하려고 하면 핑계와 변명의 말만 나온다.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미래를 보는 삶



처음에는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암웨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양가의 경제력이 평범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에, 결혼도 빛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삶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가장으로서 조급함도 느꼈습니다.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새벽 우유 배달을 고민했지만 찾은 출장 탓에 불가능했습니다. 가장의 책임감은 압박이 되어 다가왔지만 직장 생활만으론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듯 쉬지 않고 방황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때 찾은 출구가 암웨이였습니다. 물론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살피던 수동적 태도가 습관으로 자리 잡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능동적 비즈니스맨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결혼 초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민해진 적은 있지만 부부가 제대로 다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초보 사업가 둘이 서로 다른 방향을 주장했고, 양보하지 않는 상대에게 아쉬운 마음을 품은 것이죠. 그걸 못 받아주나, 그 정도도 못해주나 하는 원망도 생겼습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힘든 시기를 보내다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암웨이를

할까? 행복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행복의 기본 단위는 과연 뭘까?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로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며 행복에서 빗겨가고 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남편은 “그러면 이제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남편이라고 그간 맺힌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먼저 양보하니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암웨이 사업은 수동적 개인들이 능동적 자원으로 변모하는 과정입니다. 가정 혹은 관습에 얽매어 있던 여성은 암웨이를 통해 비로소 독립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리키고 아내는 무조건 따르는 상황이 아닌 부부가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한다면 그 가족은 상상 이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시작은 경제적 동기로, 미래는 그 이상의 꿈을 향해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그리고 진심을 담았다고 해도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스폰서의 존재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스폰서는 우리가 가려는 길을 먼저 가본 사람입니다. 부부 사이의 방향성 문제는 스폰서의 조언을 받는 건 물론 스폰서를 통해 이야기를 건네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스폰서들은 우리보다 먼저 성공의 길을 가봤습니다. 함께 잘되어야 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정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중간 리더까지는

선배들이 결과를 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나만의 전략,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길을 고집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했을 때는 성취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집니다. 수석 다이아몬드는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파트너가 더욱 생각났고, 우리도 누군가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밟는 길을 다른 누군가가 뒤따라올지도 모르니까요. 저희 부부는 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사업도 기도도 시작했고, 고민도 기도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사실 암웨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은 순전히 경제적 이유뿐이었습니다.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원했고, 월 200만 원의 수입과 연 1회의 해외여행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과 신앙, 삶이 하나로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 동기로 시작했지만 이제 저희 부부는 더 큰 꿈을 꾸니다. 다른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핀업은 이제 목표가 아니라 실천 방법입니다. 현재의 목표는 2019년까지 파운더스 크라운 앰배서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적 그룹을 형성한 후 단기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암웨이는 저희 부부를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며, 더 크지만 더 겸손한 사람으로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꾸지 못한 꿈을 꾸게 해줍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만?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나눔이고 희망이다.	안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게 아니다.	항상 소통하라. 개인적인 판단은 하지 마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암웨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네요. 처음 암웨이를 시작한 이유는 삶의 균형을 맞추고 싶어서였어요. 저와 남편은 모두 신학을 공부했고 어려운 형편에 결혼을 했죠. 당시 김성학 리더는 전도사였고 저는 학원 강사였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남편은 사역자가 꿈이었고 저는 돈이 없는 게 너무도 불편했죠. 그 꿈과 현실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이 바로 암웨이였어요. 하지만 김성학 리더가 반대의 뜻을 비쳤습니다. 암웨이란 사업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전도사, 목사의 사모가 암웨이를 한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것들이 불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성학 리더 역시 암웨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제대로 알고 나서는 반대를 접고 오히려 저를 자신의 목회와 선교 사역에 후원자로 삼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조건을 걸었는데, 암웨이 사업을 통해 버는 수입의 반은 후원을 하자고 했고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큰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교육과 제가 쓸 만큼의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암웨이를 통해 이루고 싶은 저의 꿈은 남편과 아이의 행복이었기에 남편의 꿈을 이루는 게 곧 제 꿈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여겼죠. 사실 암웨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사업을 그만두는 이유가 누구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 없음과 게으름 때문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사랑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암웨이 때문에 싸움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암웨이를 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다들 싸우고 살지 않아요? 다만 반대하는 사람이 공격의 패를 하나 더 가진 것뿐이죠. 암웨이는 연금처럼 나오는 수입이고 상속이 될 뿐 아니라, 인생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월급과는 다른 보상을 받는 일인 만큼 그에 맞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폰서의 성공만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약속

저희는 다이아몬드를 달성한 후 3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했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에 도전하면서는 다이아몬드 때와 달리 파트너와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희가 도전해야 파트너님들이 다시 한 번 자신의 목표를 향해 힘을 얻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만큼 수석 핀은 개인의 목표라기보다 우리 팀의 목표였죠. 그 목표에 함께 뜻을 모으고 각자의 리더십을 보여준 파트너님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저희가 도전하면서 만든 팀 구호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였는데, 그 구호처럼 한 치의 오차 없이 우리가 해냈다는 것이 가장 큰 감동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파트너님들에게 스폰서의 성공만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스폰서가 핀을 성취해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본인만 핀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한 후 지금까지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도 프로세스라고 보거든요. 된다는 믿음만 있으면 이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암웨이 사업은 여러분이 ABO에 가입하기 전까지의 삶을 묻지 않는, 기가 막힌 사업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현실과 현재의 모습만 인식하다 보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일을 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인정한다면 이 사업을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여러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꾸준함이 열정이다.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만의 수은주를 유지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	--------------------------------	---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씨를 뿌리면



수석 다이아몬드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핀을 성취하기까지 오로지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암웨이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나눠주고 싶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희와 동고동락한 파트너에게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일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걸 믿기가 어렵죠. 저희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봤기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파트너들이 언젠가 반드시 수확의 계절이 온다는 걸 믿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농사짓는

마음으로 지내온 것이 저희가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할 수 있었던 비법인 것 같습니다. 암웨이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를 통해 증명하는 거예요. 이야기와 자료로 암웨이를 설명하는 것보다 “이것 봐, 내가 됐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저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과 파트너에게 증명해 보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수석이 됐다고 해서 샵페인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또다시 도전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으로 암웨이 사업을 증명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o’하지 않는 오늘이 가장 큰 위기

암웨이 사업은 철저하게 배우는 일입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너 나 할 것 없이 아무것도 모르므로 모든 이에게 공평하죠. 학벌, 외모,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 3%에서 시작해 학습을 통해 부를 이뤄가는 거예요. 배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이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 사회적 지위 같은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시작하면 이 사업의 비전을 볼 수 없지요. 반대로 이 사업을 가장 잘하는 이는 그런 고정관념을 모두 내려놓고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역시 고정관념을 모두 내려놓고 처음부터 배우면서 정말 많이 변화했습니다. 기존의 생각, 인성 그리고 안일함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 사업에 맞는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요. 배움을 통해 방법을 알았다면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행동하지 않아요. 알고(Know) 있는 걸 ‘하고(Do)’ 있다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시스템이 정말 좋아. 시스템 안에서 이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어”라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시스템을 지키는 것과는 다르죠. ‘Do’하지 않고 ‘Know’하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사업에서 겪는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지요. 저희 역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긴장하려고 합니다. ‘수석이 됐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긴장을 풀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Do’하지 않는 오늘이 바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파트너의 삶 속으로, 인생으로 들어가면 위기를 겪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파트너가 힘들게 느끼는 그 순간, 누군가 그들을 잡아주고 조금만 더 끌어준다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성공에만 안주하고 파트너와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위기가 또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기꺼이 다시 내려가 정상을 바라보고 있는 파트너들에게 “저 위로 올라가면 훨씬 더 좋아. 우리와 함께 가자” 하며 함께 손잡고 산을 오르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선택, 나눔과 배움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스폰서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일	심청사달(心淸事達,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	감사하라. 불평하지 마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Executive Diamond  2015년 8월 1일부

당신의 노력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암웨이 비즈니스



저희 부부는 15년 전 작은 교통사고를 계기로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부가 함께 헤드헌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차가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나면서 두 사람 다 병원에 다니게 됐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부부가 함께 아프다 보니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커지더군요. 어쩌면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느끼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찾은 대안이 바로 암웨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박동진 리더는 조금 반대를 했어요. 암웨이를 반대했다기보다 이 사업의 가치를 모를

때라 제가 자리를 비우면서 생기는 불편함을 싫어했죠.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미팅장에만 나가보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암웨이 사업의 본질을 알기를 원했거든요.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상대로 박동진 리더는 미팅장에 나간 이후 생각이 바뀌더군요. 생각이 바뀌니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지금도 이 사업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암웨이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본질보다 현상을 먼저 보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지?', '나는 세계를 팔지 못할 것 같은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 이런 것들이 바로 현상을 먼저 보는 거죠. 하지만 암웨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본다면 이 괜찮은 비즈니스를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연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본질을 보여주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반응과 이야기의 속뜻을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하죠. ‘아, 이 사람은 지금 단순히 사업을 거절하는 게 아니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구나’, ‘이런 이유로 저렇게 돌려서 말하는구나.’ 그런 이해가 있어야 사업을 전하는 우리도 상처를 덜 받고,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어루만질 수 있죠. 저는 암웨이 사업이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라는 걸 느끼고 심리학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리더의 책임감

저희는 큰 목표보다 삶의 대안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힘들다고 느껴지면 놓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죠. 사업을 하다 보면 편이 성장하는 시기도 있지만 정체기도 있게 마련이고, 사실 그런 시기를 겪으며 더욱 성장하죠. 그런데 저희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도 끝까지 암웨이를 놓지 않은 건 자존심과 책임감이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마음먹었던 그 자존심을 놓을 수 없었고, 소비자로 시작해서 이제 막 동참하는 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책임감이 생겼죠. 하지만 이 책임감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역시 암웨이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직원들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끝까지 돕거나 책임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암웨이는 파트너가 동의만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는 이제 우리가 된 것처럼 우리 파트너들도 최소한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은 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물론 수석 다이아몬드가 끝은 아니지만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 파트너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믿음, 제품에 대한 믿음, 스폰서와 파트너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해낼 거라는 믿음이에요. 암웨이는 믿음을 키워가는 비즈니스고 결국엔 그런 믿음을 계속 키운 분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파트너들뿐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모든 분이 그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간다면 암웨이는 결코 당신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의 스승이자 행복이다.	기쁘게 살자.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이 되자.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 하는 것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
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
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Executive Diamond  2015년 9월 1일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김명혜 리더) 자영업을 하던 남편의 사업이 IMF로 힘들어질 시점에 친구에게서 암웨이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연 매출 100억 원대 규모의 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경제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저는 비록 자신은 없었지만 암웨이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남편인 김병용 리더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대를 넘어 암웨이 안티운동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저 역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암웨이 비전을 본 이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은 저의 간곡한 부탁과 협박에 못 이겨 사업

설명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저와 같은 비전을 발견한 듯합니다. 아마도 눈앞에 닥친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김병용 리더) 저는 성실함으로는 대한민국 제일이라고 자부할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7년간 젊음을 바쳐 일구어낸 사업을 하루아침에 잃고 나니 그 상실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게 위로와 용기를 준 사람은 바로 아내 김명혜 리더였지요. 저를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수고했다며 가정경제는 자신이 책임질 테니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라고

하더군요. 그때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꿈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사실 처음에는 언제나 제 의견을 잘 따라주던 아내가 제 뜻을 거스르고 암웨이를 한다고 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그때 아내가 제 반대에 못 이겨 암웨이를 포기했다면 오늘의 행복과 온전한 가정은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김명혜 리더와 암웨이가 우리 가문을 부활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딸도 암웨이 사업자로 함께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저희는 파트너들에게 핀이 성장할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기죽어서도 안 된다고 당부하지요. 암웨이는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장하고 보상이 주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누가 더 꾸준히 하느냐에 달려 있죠. 그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암웨이를 해야 하는 'Why'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암웨이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시작한 순간부터 미더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파트너에게, 스폰서에게 그리고 소비자에게 미더운 사람이 되려면 예전의 안 좋은 습관과 자세와 마음을 돌아보고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암웨이의 꿈을 바라보는 거니까요. 그와 더불어 성공자와 리더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암웨이를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정말 행복합니다. 비전을 정확히 본다면 그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우리처럼 변화할 테니까요. 지금도 예전의 저처럼 암웨이를 모르거나 오해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암웨이를 제대로 아는 날까지 앞장서고 싶습니다. 저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꿈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기회를 찾지 못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암웨이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비상 탈출구다.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재능도 인내를 이기지 못한다.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폰서에게 순복할 것. 포기하지 마라.
-----------------------	--------------------------------------	---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파도를 넘어 대륙을 찾는 항해사



실패하는 사람은 힘들 때 거친 파도를 본다고 합니다. 파도만 보면 두려움 때문에 바다로 뛰어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파도 뒤의 대륙을 봅니다. 파도가 크면 클수록 대륙도 큼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과정에만 매달립니다.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역경만 헤아리다 시작도 못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결과만 바라보고 전진합니다. 힘든 일은 어느새 지난 일이 되고, 달콤한 과실을 따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도 1보다 2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잘되었을 때의 결과물보다 클 수 없습니다.

20년 전인 1996년, 고교 동창에게 암웨이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암웨이를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직장도 두 군데나 있는 데다 부업으로 제법 커다란 식당까지 2개 운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선입견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과 홍콩 출장을 가면서 선입견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암웨이를 제 일로 받아들일 자신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 만나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개인 성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고 있던 사업은 너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일이 잘될 때는 힘들어서, 종업원 수보다 손님이 적은 날에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하려면 사람도 만나야 하고 대화도 해야 합니다. 암웨이 사업을 할 때 제가 넘어야 할 파도였습니다. 그럼 파도 저편에서 기다리는 성공의 결과는 어떨까요? 비교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1이 2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권하는 '좋은 직업'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안정적이어야 하고, 그 안정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하며, 직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원은 안정적이지만 언제 타의로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릅니다. 연봉도 어느 정도를 넘어서기 힘들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있으면서도 자영업까지 겸했는데, 자영업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암웨이는 3가지 문제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암웨이의 문을 열었습니다.

행복의 수단을 전하는 행복

11년간 노력했지만 이렇다 할 성취는 없었습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그게 그때의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파트너라도 성공하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남의 성공을 위해 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년간 저는 가장 안 되는 길만 쫓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성취를 보면서 전에 없던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장사로 큰돈을 벌 때는 느낄 수 없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돈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니까요.

짜장면 한 그릇이 먹고 싶다고 칩시다. 눈앞에 4개의 중국집이 있습니다. 어딜 가시겠습니까? 보통 맛있는 집을 꼽습니다. 다음으론 가격을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봅니다. 사업에서 맛이란 제품의 품질을 의미합니다. 암웨이에선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니, 짜장면의 맛이 똑같다고 보면 될 겁니다. 가격도 같습니다. 그럼 암웨이 사업에서 필요한 건 서비스, 즉 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 형성을 잘해야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고 싶을 때 우리는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을 좋아하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건 수단이고, 우리는 결과인 제주도를 원하는 거니까요. 암웨이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의 수단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때론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보단 결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레몬은 쉽다. 상상만 해도 위산이 솟아납니다. 그럼 생각을 멈춰서 속쓰림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레몬 생각을 멈추겠다는 생각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딸기를 떠올리면 위가 편해집니다. 힘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하려고 부정할 수 있으면 그건 이미 힘든 게 아니겠죠. 잘되었을 때를 상상해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압니다. 이젠 아름다움을 원하는 사람에겐 아름다움을, 건강을 원하는 사람에겐 건강을, 기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겐 방법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암웨이의 일이며 제 행복입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전부'다.	쪽 팔리지 않게 살자.	왕의 마음(주인의식)으로 사업하라. 영의정의 마음(한계)을 버려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희망의 삶

1994년에 시작했으니 암웨이 속에서 살아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40대와 50대를 암웨이와 함께했고, 이제 다시 60대를 암웨이와 더불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20여 년 전, 암웨이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별로 좋지 않았고, 마스크의 반응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도 암웨이를 시작한 동생이 걱정되어서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입견과 달리 회사의 철학과 마케팅 방법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품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당시에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세제가 30여 종이었는데, 물빨래를 해도 드라이클리닝을 한 효과를 내는 암웨이 제품에 견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제품의 품질과 합법적인 마케팅을 확인한 후 저도 동생들을 따라 암웨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리려던 동생은 오히려 제 스폰서가 되었습니다. 1995년에 자비로 암웨이 본사를 5박 6일간 시찰한 후 믿음과 애정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IMF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암웨이가 양적으로 성장하던 것도 경험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의 그룹은 대부분 평범한 주부들로 이루어진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직장인과 남편들까지 유입되면서 그룹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남자들의 시각은 사업에 큰 도움을 줍니다. 넓고 크게 바라보는 능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과





달리 지나치게 마케팅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높은 비중을 두는 여자들에 비하면 소비자에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암웨이 사업은 부부가 함께할 때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소비자와 마케팅은 차의 두 바퀴와 같아서 균형을 제대로 맞췄을 때 안전하고 빠른 주행을 보장해주니까요. 40대를 암웨이 안에서 열정적으로 보내자, 50대에는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7~8년간 일을 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믿음 속에서 미래는 꽃피운다

암웨이에서 보람을 느낀 순간을 일일이 꼽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이 즐거움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저희 세 자매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세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스레 암웨이 사업을 진행했던 막내동생은 크라운 엠버서더 핀을 성취했고, 제 스폰서였던 셋째 동생은 파운데이션 크라운 엠버서더가 되었습니다. 동생들의 핀 달성을 보면서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가족의 성공이기도 했지만 평범한 주부들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에 더 기뻐던 것 같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7~8년간 치료에 집중할 때도 암웨이가 너무 고마웠고, 완치한 후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암웨이 외에도 기다려주고, 언제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암웨이 안쪽 세상이 바깥과 차별화되는 결정적인 요소는 '연속성'에 있습니다. 암웨이의 삶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밖에선 쉬지 않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설사 답을 찾더라도 그 해답의 유효기간은 한정됩니다. 그런데 암웨이에선 노력하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면 삶이 풍요롭게 이어집니다. 암웨이의 가치는 가족 안에서도 확산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두 아들이나, 출산하고 육아휴직 중인 둘째 며느리도 현재 암웨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을 주기 힘들기 때문에 암웨이 사업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암웨이에서의 삶이 어떠한지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꿈과 가치를 공유하게 됩니다. 나이가 있는 저는 새로운 핀 달성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를 통해 암웨이를 만난 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을 나눠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능력은 있습니다. 스스로 믿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안의 거인을 찾지 못할 뿐입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제품을 믿고, 스스로를 믿고, 암웨이라는 회사와 약속된 보상을 믿으면 우리 삶은 계속 더 좋아질 테니까요.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진실되게 살자.	믿음 부정적인 생각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암웨이를 이어가는 패밀리



암웨이를 시작하기 전에도 식당을 크게 운영했기에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사'란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이나 퇴직금도 없고,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영석 리더가 다른 사업을 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1997년, 처음에는 피트니스센터가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님에게 암웨이를 소개받은 남편은 이 일을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피트니스센터와 달리 무자본, 무점포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입견에 사로잡힌 저는 1년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 설명을

듣고 나니 저희가 꿈꾸는 미래가 여기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사는 아무리 크게 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웨이가 제시한 인세 형태의 수입은 미래를 책임질 뿐 아니라 상속까지 가능했고, 해외여행을 하는 삶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장사로 번 돈은 액수의 크기에 상관없이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미래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시간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돈이 있어도 여행의 여유는 꿈꿀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웨이는 여행이라는 보상을 통해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까지 선물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김영석 리더보다 더 깊이 암웨이에 빠져들었고, 1999년에는 FP가

되어 하와이로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영업으로 돈을 벌어도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암웨이 덕에 돈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저희는 작은 아이를 브라질로 축구 유학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의 흐뭇한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겁니다. 아들은 열심히 축구를 익혔고, 귀국해 프로축구팀 생활도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학연과 지연이 없는 유학파가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듯했습니다. 한국의 축구 세계에 희의를 느낀 아들은 결국 축구를 포기하기로 결심했고, 안타깝지만 저희는 아이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의 계승

그 작은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원룸에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인 날짜가 다가오니 부모로서 더 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결국 시내 중심에 아파트를 마련해줬습니다. 아들은 감사해하면서도 저희 경제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스스로 현실 점검을 하게 된 것이겠죠. 2013년, 작은아들이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 곧 큰아들도 동참했습니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려면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과 보람이 있고, 바른 일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직업을 물려줄 수 없을 테니까요. 이제 암웨이는 저희 가족 모두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똑심 있게 사업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냥 흐뭇하기만 합니다. 사업 설명이나 메인 강의에 나설 때, 랠리 게스트로 초대받았을 때, 아들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버이날에는 존경한다는 카톡 메시지도 보내옵니다. 미팅도 아들 집에서 하기 때문에 매주 3~4일 정도는 온 가족이 모입니다. 며느리가 귀찮아하지 않느냐고요? 오히려 아들, 며느리가 다 함께 스폰서인 저희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쫓아다녀 저희가 귀찮을 지경입니다. 가정에는 존경과 사랑이 새록새록 샘솟고 있습니다. 또 먼저 시작한 작은아들이 조금 앞서가니까 큰아들은 더 열심히 하려고도 합니다. 가족 사업은 이렇게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그룹에 아들이 있으니 다른 파트너들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스스로 조심합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너들을 10배, 100배 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여서, 가족 밖의 파트너들을 가족 이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그리고 함께이기에 더 큰 힘을 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3 Key Questions

<p>나에게 암웨이란? 암웨이는 자유다.</p>	<p>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더불어 사는 삶</p>	<p>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켜라. 포기하지 마라.</p>
--------------------------------	--------------------------------------	---

비범한 성공의 원동력, 평범함

2004년, 남편인 강선웅 리더의 지인 소개로 암웨이를 처음 알았습니다.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사업에 나서기 두려웠지만 남편 때문에 교육장에는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저는 암웨이를 ‘종합 엔터테인먼트’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업으로 얽히지 않더라도 암웨이에는 세상에 도움 되는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제외하면 육아, 생활, 교육 등 세상 모든 문제의 해법이 여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암웨이는 트렌드를 앞서잡니다. 암웨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얼마 후 제 주변의 현실이 되어 다가왔고, 이런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아이를 출산한 후 저를 괴롭히던 만성피로 역시 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많이 호전되었어요. 제 마음에는 암웨이에 대한 믿음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러던 2011년 어느 날, 평소 들리지 않던 사업 설명회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오더니 2013년에는 거짓말처럼 사업이 빵 터져버렸습니다.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어서 사업자 마인드라곤 전혀 없고, 언변도 뛰어나지 않은 데다, 적극적인 성격도 아닌 제가 어떻게 네트워크 사업의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믿음을 쌓는 일

저는 제가 부족했기에 오히려 성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암웨이 이야기를 알아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해도 되겠다 싶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깁니다. 바꿔 말해 확신이 생겼다면 암웨이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그랬듯 신뢰는 꾸준히 쌓이면서 형성됩니다. 암웨이는 신뢰의 사업입니다. 파트너에 대한 믿음, 회사에 대한 믿음, 제품에 대한 믿음이 씨실과 날실처럼 엮일 때 결실을 맺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암웨이 사업을 '1만 명에게 제품을 파는 일'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의 본질은 5~6명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줄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확신을 갖는다면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자 신앙심도 생겼습니다. 저는 암웨이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파트너를 섬기며 꾸준히 진심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약속을 지키는 회사	늦더라도 정도를 가라.	믿음을 갖는 것. 의심하지 마라.



웹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받으시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두려운 미래를 행복한 현재로



30대의 모든 시간을 어린이 집에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삶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암웨이의 '인세수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세수입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미팅 속에서 암웨이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저의 목표는 F.P.T, 연봉 4,000만원이 목표였습니다. 10년 농사 짓는 마음으로 조급해 하지 않고, 꾸준히 시스템을 믿고 배우고 행동함을 반복한 결과, 꿈꾸던 이상의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008년 어린이 집을 정리하고, 암웨이 사업에 만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바꿔 주는 기회의 사업

사업을 시작할 때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투잡으로 진행한 암웨이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된 것은 남편과 함께 부부사업으로 진행하면서였습니다. 타고난 성실함으로 자신의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으로 주어진 가치 중에 저희 가정에 경제적인 안정뿐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성공자의 생각을 배우게 되면서 리더로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과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의 창업이념을 하나씩 온전히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웨이는 기회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았다면 끝까지 성취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전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스폰서님께 감사 드리며,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하는 파트너 리더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희망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변화 성급함

가치와 비전이 만나 변화시킨 삶



암웨이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약 17년 전입니다. 당시 저는 부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님 한 분이 암웨이와 환경에 대해 얘기하더군요. 환경과 자연에 관심이 가는 건 사람의 본능이죠. 저는 암웨이의 장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몰았습니다. 아쉽게도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일상에 쫓겨 궁금증을 뒤로하고 지내던 중 14년간 운영하던 부산 미용실을 넘기고 안산으로 이사했습니다. 고향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이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암웨이가 도대체 뭘까 가끔 궁금한 적도 있었죠. 어느 날 부산에서 옛 미용실 손님이었던 지금의 스폰서님께서 주소를 물어보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 암웨이 책자와 CD가 담긴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제가 궁금해하던 모든 것, 시대 트렌드를 리드하는 암웨이의 비전과 본질, 가치가 있었습니다. 처음 암웨이에 대해 관심을 보인 건 바로 이 비전과 가치 때문이었는데, 부산에서 날아온 상자가 제게 비전을 눈뜨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스폰서님과 시스템 도움으로 지금의 자리에 있습니다

진심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암웨이

암웨이에는 가치와 비전이 모두 함께 공존합니다. 14년을 노력해도 미용사와 손님의 관계를 넘어서 수 없던 과거와 달리 암웨이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되어 함께 성장합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권했는데 이해하기는커녕 제가 건넨 자료를 무시하고, 계속 반복해서 노력해야 할 때 때로는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방법을 전하면 심드렁해하는 모습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암웨이의 본질과 가치를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택배를 받으면서, 우유 배달원을 만나면서, 일상에서 암웨이의 가치와 비전을 전하려고 노력했지요. 그러다 보니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 오더군요. 꾸준히 최선을 다하면 해내야만 하는 그곳에 자연스럽게 도착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건 우리지 암웨이가 아니니까요. 지금은 수많은 파트너들과 꿈과 목표를 위해 하루를 행복하게 보냅니다. 제 삶을 바꿔준 스폰서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인생 (삶의 방향)이다.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삶	꿈과 비전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약해질 때 암웨이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마라.



앰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앰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받으시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한 후 3년 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했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파운더스에 도전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 파트너님들이 정말 열심히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축하를 받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 파트너들을 위해 다시 출발선에 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제 이름 김부정을 한자로 풀이하면 도울 '부(扶)'에 깨끗할 '정(淨)' 자입니다. 깨끗하고 바르게 남을 도우라는, 앰웨이의 창립 이념인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와 딱 맞는 뜻이죠. 제 다테임은 '긍정의 힘' 이에요. 긍정의 힘으로 만나 올해 제가 받은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우리 파트너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전력 질주할 때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의 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파트너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제가 팀에 내준 숙제 중에 자신이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생각하고 인정식 인사말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틀어주더군요. 그분들의 꿈을 제가 다 알고 있기에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을 알아준 파트너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겠더군요. 앰웨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그 마음을 서로 알고, 진심으로 바라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이지요. 이제 저희는 파트너들이 앰웨이를 통해 경제적·시간적으로 자립하고, 많은 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부터 더 집중하고 행동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앰웨이란? 행복한 나눔이다.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오늘, 내일 모두 힘들다. 하지만 모래는 아름답다.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약속을 지켜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	---	---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약속



지난 1년이 제게는 하루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다이아몬드를 달성하고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지요. 그 과정에서 저는 혼자 아니었습니다. 파트너로서, 소비자로서 그리고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동참해준 부모님까지, 함께해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그분들을 대표로 이 편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암웨이를 하면서 사업 자체가 힘들다기보다 경험 부족에서 오는 의심의 순간을 마주 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내야 한다'는 마음과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정말 큰일을 해줬지만, 그녀가 혼자 이겨낸 고독의 시간을 우리는 보지 못했죠. 좀 쉽게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 가치 있는 일은 모두 힘들다 여기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리더

저는 암웨이 덕분에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다각적으로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만 보고 살던 제가 암웨이 사업을 통해 정말 좋은 분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제 안에 큰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일 자체가 힘들어서라기보다 위로받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소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겨내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파트너님들 곁에 늘 함께 있어주는, 소통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감당해야 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제가 해결해줄 수는 없겠지만 혼자 감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저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이자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희망이다.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를 믿고 살자.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도를 밝아가라.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라.
--------------------	--	--

가난한 농사꾼에서 암웨이 사업가로



남편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시할아버님도, 시아버지도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직업을 물려받은 셈이지요. 가난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농사와 토끼 사육까지 하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저 또한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성실히 살았지만 생활은 넉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10여 년간 비염과 천식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먹으면서 차츰 호전이 되었고, 암웨이 사업 기회를 이해하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품을 배우면서 쓰는 소비자에서 2006년부터는 농사와 암웨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스펙도 없던 저희의 경쟁력은 특별한 성실함으로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는 태풍 때문에 도로가 토사에 덮여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도 미팅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폭설이 내린 겨울날에도 산을 넘어가는 미팅 길이지만 타협하지 않고 성실히 참석한 결과 5년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핀을 성취했습니다.

꿈꿀 수 있는 삶, 암웨이의 선물

“70세 이후에는 농사를 그만 짓고 싶다”던 시어머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대도시로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꿈이 이뤄졌습니다. 사업을 결정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낯선 일이나까 두렵기도 하겠지만 암웨이를 통해 기회를 보고 가슴 뛰던 그 순간의 초심을 늘 기억하며 2~5년만 꾸준히 하면 값진 열매가 맺어지는 일입니다.

3대에 걸친 농사일은 삶이 변하지 않았지만 5년 6개월의 암웨이 사업은 저희 가정을 뿌리부터 바꿔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수영장 가는 길”이라고 밝은 목소리로 전화하시는 시어머님께 자식 노릇 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스펙도 없는 저희의 삶이 암웨이 사업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스폰서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만?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삶을 통째로 바꿔주는 기회다.	간절함과 믿음의 크기만큼 이룰 수 있다.	초심을 잃지 말고 기본을 지켜라.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이 되지 마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의 결실



2006년 암웨이와 처음 인연을 맺기 전에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15년 사업의 노하우 덕에 서울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체인점은 늘어났고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5년 주기로 시장은 계속 변했습니다. 사업이 잘된다 싶으면 경쟁자가 생겨났고, 다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좋아도 끝없이 반복되는 '리셋' 구조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웨이의 구조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이 막을 내릴 때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는데, 암웨이에선 수입이 인세처럼 쌓여갑니다. 평생 사업이라는 점도 놀라웠고요. 암웨이의 정직한 사업과 투명한 세금 구조도 크리스천인 저희에게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확신을 가진 남편과 달리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았죠. 남편은 자다 깨서 울고 있는 저를 보고 "그림의 떡이 아니라 정말 되는 사업"이라며 다독여야 했습니다.

불안했던 경험이 역지사지의 이해력으로

돌아보니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남편 역시 진지하게 고민하더군요. 하지만 가장이라면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기에 암웨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저는 반대 의견을 접어야 했죠. 그런데 갈등 속에서 시작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암웨이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때 제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이해시켰습니다. 칸트는 평생 할 일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희망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정말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결과를 믿지 못할 때 힘들어하지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굳게 믿고 함께한다면 누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면 질색이던 저는 이제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골프와 피트니스를 즐깁니다. 그렇게 모든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3 Key Questions

<p>나에게 암웨이란? 암웨이는 희망이다.</p>	<p>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사랑하자.</p>	<p>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늘 기억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마라.</p>
---------------------------------	---	--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노력보다 더 큰 보상을 선물 받는 최고의 사업



암웨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저희는 예비 부부였습니다. 둘 다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집안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겹치면서 직장 생활만으로는 역경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때 만난 대안이 바로 암웨이였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현실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나니 우리가 앞으로 직장 생활에 10년을 투자했을 때와 암웨이 사업에 10년을 투자했을 때 결과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더군요. 암웨이의 자산 수입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면서 이 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나와 맞지 않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편견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알아볼수록 제품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미팅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을 통해 진정한 암웨이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만 설득하면 되는 일

많은 사람이 암웨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누군가를 설득하지 못해. 나는 말주변이 없어”라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암웨이 사업은 남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하나만 설득하면 되는 일입니다. 내가 암웨이의 가치를 이해하고 비전을 공감했다면 누군가에게 진정성 있게 그 가치와 기쁨을 선물하듯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수단을 놓고 적성만 따진다면 돈 버는 일치고 적성에 맞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일에서 적성은 수단이 아닌 결과물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웨이 사업의 결과물, 다시 말해 소비자 네트워크적 자산을 갖고 돈과 시간의 자유를 누리는 게 적성에 맞다면 여기에 필요한 수단에 내가 적성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적성을 맞춘 후 믿음과 끈기로 나아간다면 암웨이는 우리가 치른 대가보다 훨씬 큰 보상이 주어지는,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된다면 믿음 자포자기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위기에서 더 높이 도약하는 암웨이 부부



1989년 결혼 초, 남편이 오사카로 발령을 받아 3년간 일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아파트로 종종 찾아오는 트럭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주민들이 생활협동조합에서 공동 구매한 신선한 먹거리를 실어 나르는 트럭이었지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2005년, 암웨이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제 과거 경험과 세상의 미래가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의 아파트 주민들이 그랬듯 소비자는 점점 공동화되면서 스스로에게 좋은 제품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트렌드가 형성되면 부의 주체도 유통 기업에서 현명한 소비자 집단으로 이동하리라는 믿음이 당시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견 기업의 최연소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남편은 “당신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며 암웨이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8개월 후 스폰서님에게 사업 설명을 들은 남편은 “쪽박은 깨지 않겠다”며 반대를 철회했지만 함께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간의 깊이만큼 가치와 보상도 커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즐겁게 사표 내는 남자

남편은 최연소 임원이었고, 40세 이사, 45세 상무이사로 10년간 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9월, 갑자기 남편이 다른 임원들과 함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남편은 잠자리에 누워서야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준비한 암웨이 사업이잖아요. 사표 내고 밖에서 오피스텔을 얻어 1년간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다음 날 남편은 26년 직장 생활 중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후 암웨이는 저만이 아닌 부부 사업으로 우리 가정의 미래를 준비한 감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26년 직장 생활과 오랜 사회생활의 경험은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남편이 “암웨이 사업에선 당신이 선배”라며 한발 물러나줍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와 신뢰는 더욱 깊어졌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암웨이와 함께 더 높이 도약하고 있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생명수다.	믿음, 정직, 사랑	사랑으로 품으면서 정직하게 진행하라. 순간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이 되지 마라.

꿈으로 가는 길, 암웨이



대학 시절 제 꿈은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대학원 시절에 교수님을 도와 올림픽 의상 디자인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육아 문제로 디자이너 생활을 중단하다 보니 꿈은 점점 멀어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인 독일어 선생님에게 암웨이를 소개받았습니다. 거절했지만 선생님은 집요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 저희 집에 올라올 정도로요. 디자인 외의 길은 없다고 굳게 믿었던 저는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앞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옆문이나 뒷문이라도 열려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요량으로 미팅에 몇 번 참석했는데, 그만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금융계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암웨이는 던&브래드스트리트(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모기업)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기업”이라면서 “내성적인 당신은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두 열쇠, 꿈과 파트너

오기가 발동해 더욱 열심히 암웨이를 공부했고, 남편에게도 함께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미안했는지 남편이 뭘 도와주면 되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하루에 CD 하나씩 듣고, 1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임에 참석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음에 8번 참석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암웨이가 제 인생의 15년을 함께했습니다. 내성적인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암웨이와 함께할 수 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꿈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암웨이를 시작했지만, 파트너들과 함께 성취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얼마 전 심장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황에서 남편과 아이들뿐 아니라 파트너들이 한 분씩 떠오르더군요. 그들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제 꿈도 암웨이 안에서 더 굳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핀 성취가 가능했던 건 스폰서님들 덕분입니다. 평~생 정말 감사합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꿈의 수단이다.	한결같이	정직한 사업 부정적인 마음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송진숙 | 박형진

Founders Diamond  2015년 9월 1일부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처음 암웨이 플랜을 접했을 때, 너무나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와 닿지 않았어요.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됐죠. 파는 일인 것 같고, 인맥이 많아야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품에 감동이 생기다 보니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사업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6개월 가까이 암웨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나니 암웨이의 이상적이고 막연했던 플랜이 매치가 되더군요. 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암웨이 플랜을 전할 때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제품과 이 사업을 정확하게 알아보라고 말해요. 그래야 왜 이 제품을 써야 하는지, 다른 차이는 무엇인지 설득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암웨이는 평생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고 그 소비자들이 물론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모든 제품을 사랑하는 애용자 클럽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공부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의 선택이 5년 후 내 모습을 결정짓는다

저는 원래 책을 좋아했는데 늘 책 속에 답이 있었어요. 책을 통해 여러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는 걸 알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5년 전의 선택과 현재, 그리고 5년 후, 나의 선택이 5년 후의 내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걸 알고 나니 저 자신을 위해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더군요. 제 행복이 있어야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의 그 선택이 제 모든 숙제를 다 해결해준 것 같아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든든한 후원자이자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아내, 그리고 엄마이자 며느리와 딸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제가 받은 이 많은 것들을 파트너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축복의 통로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가난한 날이다.	진심을 지켜라. 배신하지 마라.

축복은 개척하는 것!



친정엄마의 긴 투병 생활을 지켜보며 저는 출산과 육아를 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저는 삶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 살고 또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기업에 다니며 삶에 지쳐가는 남편과 자신감 없이 남편만 바라보는 내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희망도 없는 정신적 장애 상태였습니다. 그때 암웨이를 만났구요. 저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온 이 사업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저에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참으로 어색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기 싫은 과거가 있었기에 앞으로만 나아가게 되었고, 더디지만 실패를 거듭하며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성실하게 도와주었고 늘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는 회사가 아니라 암웨이뿐이라는 것을 저희 부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모든 에너지를 암웨이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희망의 가정, 희망의 미래는 암웨이를 통해

사업을 해나가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파트너를 바라보며 정체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네트워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고 스폰서님과 시스템에 순종하며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했고 올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해낸 성취가 근육이 되어 있었고 도전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도 회사에서 나와 저와 함께 더 큰 꿈에 도전합니다. 너무나 기대되고 설렙니다.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사람답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꿈이 암웨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스폰서님들께 감사 드리고 함께 꿈꾸며 축복을 개척해나가는 파트너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삶을 비추는 빛	축복은 믿는 자의 것	사람을 잃지 말자. 욕심으로 얻으면 상대의 욕심을 얻고 사랑으로 얻으면 상대의 사랑을 얻는다.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없음과 두려움에 용기를 불어넣는 시스템의 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목표 의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꼭 가야 한다. 뒤로 유보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컸지요. 신기한 건 마음을 먹으니 주변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걸 경험한 1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0년 동안 반대하던 남편이 이제는 저를 인정하고 너무나 멋진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 꿈만 같습니다. 제가 남편의 반대에도 오랜 시간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저처럼 평범한 주부가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잘 갖추어진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 시스템이 오늘의 저를 만든 것이죠. 이 사업은 개인의 능력보다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공의 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심으로 느끼고 실천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후원할 때에도 "당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시스템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아보고 느껴라"라고 당부합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시스템은 제 안의 자신 없음과 두려움에 용기를 불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능력이 아니라 건강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저를 변화시켰죠. 저는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는 일밖에 모르던 아주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몇 명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 몸에서 경련이 일 정도로 소심하던 제가 이제는 몇백 명 앞에서 스피치를 하고 당당하게 진심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던 시기가 있었고, 어느 순간 제 안에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생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제가 잘한 일 한 가지는 바로 시스템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시스템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 언젠가 당신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 역전이자 미래 지도	끝이 좋은 인생이 되자.	ABO다운 자세를 지켜라. 절대로 시스템을 벗어나지 마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내 삶의 업그레이드



자영업 10년 차에 암웨이를 처음 알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전주에서 가게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업하고 3년째인 1994년, 가게 앞에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꼭 10년을 버텼는데, 돌이켜보면 억지로 끌고 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세상을 잘 모르는 스스로를 탓하며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암웨이를 소개받았습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자영업의 한계에 부딪혀 어둠 속을 배회하는 것 같은 하루하루였는데, 암웨이의 사업 설명은 제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2001년 4월 5일, 바로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최종만 리더는 암웨이 사업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고 미팅에 참석하니 그럴 만도 했죠. 그렇지만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선 후 가게 매출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저도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몰락하는 자영업자에서 존경받는 사업가로

반대하는 남편을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속여 미팅에 데려갔습니다. 생소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던 남편에게 스폰서님이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반대를 거둬들였고, 삶은 백팔십도 바뀌었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제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암웨이에서 삶의 목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저를 '아무개 엄마'에서 '인생의 동반자'이며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암웨이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암웨이는 삶을 진일보하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시스템이 모든 걸 도와줍니다. 방향을 잡아주고, 흔들릴 땐 자신감도 심어줍니다. 시스템 안에서 저는 가족의 존경을 받는 아내, 어머니, 시어머니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암웨이는 삶을 업그레이드합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희망이다.	Forward, Forever (영원한 전진)	시스템에 순복하라. 스폰서와 떨어져 마이 웨이를 가지 마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
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
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웃으면 사람이 늘어나요

2002년, 남편은 미래를 꾸리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암웨이를 소개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세, 또래 여자들의 관심사는 가방이나 여행 같은 것이기 십상이라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권하는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모두 바른 말뿐이었고, 올바르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니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자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지나온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고민 끝에 딱 1년만 더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스폰서님께서 늘 하시던 이야기가 전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사업 설명을 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음 깊이 울림을 주었고 그때부터 제가 알던 모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원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되돌아보면 1년만 더 해보자고 결심한 스스로가 대견하기까지 합니다.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람, 웃음, 행복

스폰서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던 원동력은 즐거운 마음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무척 즐거웠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호텔 컨시어지 일을 했습니다. 암웨이가 처음 5년이 힘들었던 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즐겁게 더욱 가까이 암웨이 안으로 들어가자 주변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여행은 혼자 다녀왔지만, 이후로 두 번째는 2조, 세 번째는 4조의 파트너와 함께 여행하며 사람이 늘어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암웨이 사업은 즐겁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절을 많이 받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즐겁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파트너가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기슭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인생의 선물이다.	열심히 살자.	정직하게 하자. 바르지 못한 일은 하지 말자.

핀업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



암웨이와의 인연이 시작된 지 꼭 10년 만인 2011년에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다시 4년 만에 새로운 핀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4년 전에는 숙제를 마친 흥분분함과 감격으로 벅찼다면 지금은 책임감이 크게 다가오는 성취인 것 같습니다.

암웨이 사업 이전에 저희 부부는 맛벌이를 하며 크게 부족함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현실에 만족하는 삶 같았지만, 미래의 큰 희망과 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스폰서님께서 사업을 소개받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리더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 크게 자극을 받아 초기부터 매진해 4년 만에 에메랄드핀까지 매년 핀업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사업은 그 이후로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가기는 고사하고 매년 줄어드는 사업의 볼륨을 보며 저희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다져온 팀워크

앞만 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암웨이 사업의 본질인 인간관계를 바탕에 둔 팀워크, 미흡한 리더십 등 여러 가지 구멍을 메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팀을 정비하고 목표를 공유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리더들과 공리하고 의기투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의 스피드가 팀의 스피드다” 라는 암웨이의 원칙을 떠올리며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습니다. 이후 팀워크를 다지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시 뉴 핀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딸도 이제는 본인의 꿈을 향해 스스로 노력하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암웨이 사업 안에서 성장한 우리 가족은 다시 꿈을 꿉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팀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힘을 합칠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암웨이 사업을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스폰서님들께 감사하고, 영원한 동지 파트너들께 본이 되고 끝까지 돕는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만?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희망이다.	Freedom Is Not Free.	술선수범하고 역지사지하라. 신뢰를 깨지 마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자현 | 박재성

Founders Diamond  2015년 9월 1일부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10여 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한 저는 암웨이 사업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폰서님이 고마워 미팅장에 그냥 가서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다니던 병원이 부도나고 시어머니는 뇌진탕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면서 제 미래에 대한 현실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암웨이가 그때부터 저에게는 다른 암웨이로 다가왔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 설명과 데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교통사고를 일곱 번이나 냈을 정도로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을 찾아 어디든 찾아 다니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를 이틀로 사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2002년에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그리고 너무도 사랑하는 파트너들의 힘으로 12년 만에 핀업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오히려 어려움으로 인해 암웨이가 수단이 되어 나 자신을 찾았고, 가정이 많이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 안에서 보낸 17년 동안 스폰서님과 시스템 덕분에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희망을 심는 암웨이

우리 딸이 고3 때 “엄마의 꿈이 제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던 말이 기억납니다. 또 나트랑 여행을 다녀오면서 제 손을 잡고 “엄마의 미래가 부럽다”며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과의 만남이었다며 암웨이 첫 여행인 샤프로 여행을 가장 좋았던 기억으로 꼽았던 딸아이가 이제 암웨이 사업을 시작해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열심히 살았던 덕분에 우리는 아들도 유학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들 역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암웨이 사업 덕분에 저희 가족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으며 꿈을 꾸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스폰서님을 비롯한 많은 파트너를 만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 꿈을 꾸게 만들고 도전하게 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소중한 비밀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가족의 희망이다.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파트너를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대하라. 무엇이든 시스템 안에서 진행하라.

꿈의 위력을 아는 사람



다이아몬드 핀 달성 이후 상당히 오랜만에 뉴 핀을 달성했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다이아몬드 성취 후 오히려 함께했던 파트너가 떠나가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며 그릇 불륨이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 다른 시련도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만회하려던 저는 오히려 큰 사기에 휘말리며 잡까지 날리는 등 가정경제에도 회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 파트너들을 동기부여시켜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 에너지가 소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수없이 결단하면서 앰웨이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다시 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 덕분에였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 결국 저희도 오랜 인고의 시간 끝에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는 핀은 더욱 의미 있고 감사한 핀입니다.

‘긍정’과 ‘감사’의 힘

처음에 앰웨이를 통해 품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마음으로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과 맞닥뜨리면서 힘든 일이 생기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어느 순간 심신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 정말 큰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의 위력을 믿고 비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으로 얻은 최고의 진리죠. 그리고 누군가 앰웨이 사업의 성공 비법을 물어보면 딱 두 단어로 이야기해요. ‘긍정’과 ‘감사’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저희가 비록 잠시나마 흔들리기는 했지만,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앰웨이에서 배운 긍정과 감사의 마음 덕분이거든요. 앞으로도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꿈을 계속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앰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문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	긍정과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긴다.	처음 본 앰웨이의 비전을 놓지 마라. 어떤 순간에도 부정적인 마음에 빠지지 마라.

믿음과 사랑으로 깊게 뿌리내리는 가치 있는 일

성악을 전공한 저는 아이를 대상으로 음악 레슨을 하고 있었지만, 미래를 위해 다른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당장은 수입이 좋을지 모르지만, 조수미처럼 뛰어난 성악가로 성공하지 않는 한 결국 임시 소득일 뿐이라는 한계를 알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미국 암웨이를 전달받고 제가 찾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암웨이가 다른 세일즈 사업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단 한 번도 사업을 의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뿐이었죠. 처음에는 해본 일이 아니었기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암웨이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할수록 내 마음 그릇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과 사회성을 반성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암웨이를 가장 잘하는 방법

암웨이 사업의 열쇠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믿음, 파트너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고요. 이 사업은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에 때로는 실망도 하고 갈등도 생길 수 있지만, 암웨이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사람을 품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암웨이는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이 잘하는 비즈니스가 결코 아닙니다.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은 처음에는 부각될 수 있지만 점차 존재감을 잃고, 결국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실함 그리고 꾸준함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일이지요. 저 역시 앞으로도 그 사랑과 성실함, 꾸준함으로 진실하게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빠른 편입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깊게 뿌리내리는 방법으로 앞으로도 암웨이 사업을 더 잘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Key Questions

<p>나에게 암웨이란? 삶이다.</p>	<p>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p>	<p>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함께하는 비즈니스라는 걸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라. 이기적인 행동</p>
--------------------------------	---	---

앤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받으시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는 가족으로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공무원 연금도 어찌될지 모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와 미래가 늘 불안했는데, 밀레니엄으로 어수선하던 2000년 즈음에는 세기말 분위기까지 겹쳐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IMF 후유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암웨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초반에는 암웨이 일도 불안했어요. 거주지인 강원도 동해라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시골에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가족의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걱정대로 성과는 터디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전과 전망은 뚜렷해지고, 성과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했지만 암웨이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스템의 도움이 있기에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포함한 각자의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추억이고 현실이고 미래인 암웨이

결혼하면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몇 년 동안 한 번도 가족 여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족과 매년 한두 번 여행하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겠지요. 저희는 첫 암웨이 여행으로 코타키나발루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했는데,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이 탁구 대결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학생 때 탁구 선수셨더군요. 그리고 사업 스케줄 때문에 신혼여행을 다녀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못 이뤄준 꿈을 며느리인 네가 이루어줬구나” 하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의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암웨이의 보상 가운데 여행은 그래서 더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암웨이는 가족을 좀 더 이해하게 해주고,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고요. 더욱 놀라운 건 시간이 갈수록 파트너님들도 진짜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파트너님들과 함께, 그분들의 자녀와도 함께 여행하며 추억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3 Key Questions

<p>나에게 암웨이란?</p> <p>암웨이는 나눔이다.</p>	<p>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p> <p>절대 남에게 나의 꿈을 빼앗기지 마라.</p>	<p>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p> <p>창업자의 정신을 변질시키지 말고 길을 따라가라. 상대의 반응에 좌지우지하지 마라.</p>
------------------------------------	--	---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
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
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



저는 처음부터 암웨이가 제 삶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멋진 수단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정도 사업이라면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14년간 해오던 일을 접고 처음부터 암웨이 사업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첫 도전을 통해 인생이라는 게 도전을 해야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고, 제 도전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저의 도전이 파트너의 도전이 되고, 그 과정에서 파트너와 저 모두가 성장한다는 걸 깨달았기에 더 큰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임감을 감당해내고 그 자체를 즐기는 일도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사업과 제 인생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게 더할 수 없이 감사하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성장해야 할 편이 있지만, 그 도전들이 제 삶에 새롭고 멋진 경험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저는 암웨이를 통해 24시간을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24시간이 제 손안에 있죠. 제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할 수 있는 자유. 제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암웨이의 이런 가치를 파트너님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면서 꿈과 목표를 설정해나가는 게 저는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게 있거나 뛰어난 테크닉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살면서 통제할 수 있는 건 저 자신밖에 없다는 걸 알고 성공의 울타리 안에서 제 삶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죠.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내가 마음먹고, 말하고, 표정 짓는 것을 책임질 수 있다면 암웨이 안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계속 암웨이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준비된 삶으로 가는 길	오늘 한 일이 내일을 결정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받으시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기다리는 당신께



암웨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한 만큼 오늘의 이 성취가 정말 기쁩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만큼 깊은 숙성 기간을 거쳐 안전 궤도에 올랐기에 더욱 멋진 핀이라는 자부심도 생기고요. 암웨이는 마인드 게임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일 앞에서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파트너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저희 역시 사업 초창기와 다이아몬드 핀 달성 이후 숱한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우리가 이미 본 암웨이의 비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사업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한 언젠가 우리가 뿌린 씨앗이 싹틀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만 본다면 암웨이 사업은 실패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능력의 5%밖에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발해나간다면 실력은 얼마든지 향상되게 마련이죠.

신뢰의 씨앗으로 제대로 뿌리내릴 것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암웨이는 사람을 얻는 사업인 만큼 신뢰가 깨지는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주인의 마음으로 신뢰를 만들어가면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성장의 시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신뢰를 쌓는 사람은 결국엔 성공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뢰의 씨앗을 뿌리고 주인이 된 마음으로 가꾸어나가면 열매를 얻게 되는 비즈니스죠. 이 모든 것에는 '내가 비전을 품은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주인 정신이야말로 어떤 스트레스와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웨이는 노력보다 결과가 훨씬 큰 비즈니스입니다.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1만 시간의 법칙을 믿고 나아가시면 분명히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할 겁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번에 완벽한 행복을 이루는 것	언행일치	약속 핑계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도전과 성취가 더 나은 나를 만든다



10여 년 전, 직장 상사에게 소개받아 암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사업 설명회에서 암웨이의 비전을 듣고 빠져들긴 했지만 나이가 어렸고, 아는 사람이 적었으며,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문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것 같았고, 파트너가 편업을 못해준다고 느낄 때는 '내 그릇이 문제인가?' 하며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다잡아준 이는 스폰서님이었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한 의심, 자신감 상실이야말로 가장 큰 시행착오였습니다. 한때는 갈 곳이 없어 멍하니 앉아 공허함에 젖어야 했지만, 지금 제 곁에는 여섯 명의 평생 동료가 있습니다. 친정 언니와 시누이는 원래 가족이지만 다른 파트너들 역시 제겐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나

암웨이는 혼자가 아닌 팀워크 사업입니다. 제가 파트너의 손을 잡는 것처럼 파트너도 제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손에서 힘을 빼고 불안해하면 제대로 된 팀워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업 성과는 목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짜입니다. 성공을 향한 습관은 더 나은 말투와 몸짓, 표정, 목소리,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습관의 변화를 통해 훨씬 당당한 사람으로 변화한 저를 발견합니다. 암웨이는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웨이 비즈니스는 타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초라해지지 마세요. 자신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에너지를 몰입해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을 만드세요. 예전의 저는 자신감 없이 불안함에 떨었지만 이제는 2017년까지 여섯 명의 파트너 편업을 이뤄내겠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3 Key Questions

<p>나에게 암웨이란? 생활이다.</p>	<p>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아직'일 뿐이다.</p>	<p>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뢰를 쌓고 약속을 지켜라. 경쟁하려고 하지 마라.</p>
----------------------------	--	---

하나 된 가족으로 발전하다



아이 학원비 정도만 벌 수 있다면... 7년 전 처음 앰웨이를 시작할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를 더 잘 키우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김옥근 리더에겐 새로운 도전이 탐탁지 않았나 봅니다. 미팅에 나간 저를 대신해 쌍둥이를 돌보는 일이 버거웠던 탓입니다. 그래서 미팅 날짜에 다른 약속을 잡는 식으로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뭔가 해보겠다는데 시댁이, 친정이 그리고 가족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누구보다 힘들게 만드는구나 싶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한테 사파이어 핀과 에메랄드 핀을 달성하면서 경제적 변화가 차츰 눈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던 가족의 미래가 조금씩 보였습니다. 남편 역시 반대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저의 눈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부터 가족은 힘을 모았고, 지난해 8월부터는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앰웨이 비즈니스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근본적 변화

저는 최근 9개월 동안 가족이 하나 되어 다이아몬드 핀에 도전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핀을 달성했다는 사실보다 일본일초의 과정이 숨 막힐 정도로 벅찼습니다. 앰웨이는 생각의 체계를 근본부터 바꿔놨습니다. 가족이 나아가갈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미팅을 마치면 남편과 하루 한 시간씩 함께 걷습니다. 걸음걸음 사이로 행복, 미래, 가족을 주제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자 학원비를 놓고 혼자 고민하던 과거는 달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가 열립니다. 과거 꿈꾸던 작은 행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행복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르려면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앰웨이는 오래달리기와 비슷합니다. 걸음을 늦출지언정 포기하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행복과 조우할 것입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앰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수단	꿈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수단	보다 큰 비전과 확신을 배울 수 있는 미팅에 늘 함께하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꿈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마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조진옥 | 전해영

Diamond  2015년 6월 1일부

믿음, 소망, 사랑의 결실



5년 10개월 전, 암웨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성공할 수 있는 암웨이의 특성은 저희 삶에 축복된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희 인생에 최고의 선물을 준 스폰서님에게 감사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도전하며 걸어오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돌아해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늘 가슴속에 새긴 단어는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그리고 늘 함께하는 파트너님들이 반드시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희의 꿈을 도둑질하려는 여러 환경 속에서도 가슴 깊이 박힌 '소망'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또 저희와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이 단단하게 뿌리 깊게 내려질 때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완성되더군요.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며 풍성해지는 삶

다이아몬드 핀은 공동체의 신념을 지켜내고 다 함께 생존할 수 있다는 증표나 마찬가지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파트너 리더님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곤 합니다. 그분들의 가족도 생각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쏟아내는 눈물을 여러 번 흘렸습니다. 진정으로 그분들의 성공을 바랍니다. 이런 암웨이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느냐고, 저희는 사람을 만나야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진심을 주고받는 만남이 저희에게 힐링이자 기쁨입니다. 얼마 전 아홉 살 아들이 묻더군요. "여섯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섯 명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진심을 주고받고, 그들의 성공을 위해 뛰는 것이 저희 부부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은혜다.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겸손하게 배워라. 남 탓하지 마라.
-----------------------	------------------------------------	---

꿈을 꾸게 된 제2의 인생

4년 전 큰아이가 “엄마는 꿈이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터라 당황했고, 끝내 아무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물음은 저희 부부에게 동기를 부여해줬습니다. 우연히 접하게 된 제품을 통해 암웨이를 알게 되면서 마케팅 플랜을 듣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플랜이 괜찮아 보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암웨이 비즈니스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잘하면 꿈을 꾸게 된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꿈이 아니라 현실과 미래를 이어주는 어른의 꿈을 암웨이에서 꾸게 된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난관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힘들어도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부부가 함께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습관이 된다

암웨이 사업은 장점이 많음에도 누구에게나 이 길을 함께 가자고 강요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기본에 충실하면, ABO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뒷모습을 보여줄 순 있습니다. 그 삶이 정직하고 아름답다면 함께 길을 걸으려는 사람도 자연스레 생길 것이라고 믿으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과정이 쌓여서 결과를 만들고,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법. 저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표를 외친 후엔 반드시 성취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결국 습관이 되니까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듬뿍 주신 조부의 상을 치를 때조차 미팅에는 반드시 참석했고 그달의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타고난 성격과 과거의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저희 스스로 바뀌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책 속에서 좋은 선례를 찾으려고 했고, 모든 테이프를 들었다고 자부할 만큼 mp3 파일을 열심히 청취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선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첫인사나 말투,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얼굴에 미소가 조금씩 생기더군요. 다이아몬드 핀으로 30대의 숙제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다음 숙제는 파트너들에게 이 평온한 마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3 Key Questions

<p>나에게 암웨이란? 히든카드다.</p>	<p>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나의 목표보다 파트너의 목표에 1% 앞서가야 한다.</p>	<p>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자. 규칙을 벗어나지 마라.</p>
-----------------------------	--	--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발밑에 놓으면 디딤돌이 되는 거죠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샘하듯 저희 가정에 검은 그림자처럼 다가온 남편의 건강 악화는 우리 가정에 미래 준비를 위한 대안이 시급함을 재촉했습니다. 직장, 자영업의 직·간접 경험을 통해 그 일에 대한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추가 수입 수준을 넘어 오롯이 책임 질 수 있는 정도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울증마저 동반하게 되는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기 위해 암웨이 사업을 권유했지만, 강한 부정과 고정관념으로 언니이자 스폰서님께 많은 상처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호기심으로 알아보게 된 뉴트리라이트 유기농 농장의 철학에 반한 것을 계기로 암웨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지만, 극복과 희망 역시 바로 뒤따라와 우리 가정을 위로해줬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쳐

최악의 건강 상황에서 함께 암웨이 ONLY 1 제품과 희망의 힘으로 삶의 외로운 싸움에서 잘 견뎌준 앤드 파트너 윤강수 리더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편의 병간호와 육아, 가정의 역할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란 결코 만만한 여정은 아니었지만 잘 이겨내고 결과를 만든 나 자신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명의 은인인 스폰서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게 다이아몬드핀은 '성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기업 이념을 증명해낸 핀이라 더 의미 있습니다. 각기 다른 개인이 모여 꿈과 희망이라는 한목소리를 내고, 팀워크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던 과정 속에서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멋진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비즈니스 해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스폰서님들의 사랑과 열정을 사랑하는 파트너들에게 나누어주어야 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도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희망이다.	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희망의 증거가 되자.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스템을 따라라. 자기의 꿈과 타협하지 마라.
--------------------	---------------------------------	---

나를 변화시켜간다는 것의 의미



암웨이 플랜을 처음 들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뿌듯합니다. 저는 원래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과외를 했고,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직업으로서 한계와 일 자체에 지루함을 느끼던 시기였을 때 암웨이를 소개받았지요. 괜찮은 일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만약 그때 암웨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온종일 아이들만 가르치고 있었을 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였겠죠. 저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지금의 이 삶이 참 행복합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씩 이겨나가는 저 자신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그릇을 키우는 일

사업 초기에는 쉽지가 않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군가와 마주앉아 커피를 마셔본 경험이 별로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기에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사업 시작 후 1년은 거울을 보며 인사하고 말 거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지 고민했고, 그러면서 차츰 사람과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암웨이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 분이 제게 이 일을 왜 하느냐고 묻더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일이 나를 변화시켜주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성공이라는 건 스스로 완벽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2019년 파트너 5조와 함께 라스베이거스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삶의 가능성이다.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어진 사명을 다하자.	약속, 윤리 강령을 지켜라.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마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김경옥 | 김중완

Diamond  2015년 7월 1일부

내 안의 공허함을 채워준 암웨이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지만 이른 결혼 탓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같은 것이 생기더군요. 마음 한편이 늘 외롭고 우울했죠. 수공예도 배워보고,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해봤지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 좀 더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즈음 스폰서님에게 암웨이 사업을 제안받았지요. 하지만 남편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아이들 돌보며 늘 자신을 맞이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5년 가까이 반대하던 남편의 마음이 돌아선 건 스폰서님을 덕분이었어요. 스폰서님과 조금씩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남성 미팅을 나가기 시작했죠. 암웨이 사업의 가장 큰 고비던 남편이 이제는 든든한 파트너로 가장 큰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편하고 좋은 사람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암웨이 리더의 라이프스타일, 그중에서도 봉사하는 삶을 닮고 싶어서였습니다. 대학 때, 매년 소록도에 들어가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봉사 활동을 하곤 했는데, 그때 마흔 살이 될 때까지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의 삶은 봉사하며 살고 싶다는 꿈이 생겼지요. 암웨이를 통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 그 어떤 반대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와 남편이 스폰서님의 모습을 보며 비전과 가치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큰 꿈과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분이 정말 많아서 제 역할은 기회가 필요한 분을 미팅장까지 이끄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이 더 큰 리더를 만나 새로운 비전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언제나 편안한 징검다리 같은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Key Questions

<p>나에게 암웨이란? 에너지다.</p>	<p>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내가 해내야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p>	<p>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빠른 성장은 원칙을 지키는 것 비방하지 마라.</p>
----------------------------	--	---

삶의 균형을 맞춘 최고의 성공

암웨이를 하기 전, 저희는 딸 셋을 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1년 만에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말았지요. 힘들어하는 남편을 통해 경제적 부도가 마음의 부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며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암웨이였고, 암웨이 덕분에 이제는 사업과 가정의 안정 그리고 나 자신의 성장까지 건강한 균형을 맞추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름발이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죠. 암웨이는 내 인생을 철들게 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너무나 멋진 도구이자,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함께 꿈꾸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모의 뒷모습이, 우리 부부의 삶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학교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가장 큰 희망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곤 합니다. 특히나 암웨이 사업 초기에는 바로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지요. 그럴 때, 당장 필요한 빵과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갈림길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 역시 부도가 나고 가진 게 없을 때 암웨이를 시작했기에 빵과 가치의 기로에서 가치를 선택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를 곱씹으며 꿈을 지키기 위한 저의 선택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저 자신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 그 누구보다 나 자신과 소통하며 꿈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진지하게 마주 해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할 게 아니라, 또다시 꿈을 포기하는 게 두려워서 해내고야 마는 진짜 '내 안의 나'의 능력을 믿어보세요. 그것만큼 큰 희망은 없으니까요.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의 반전 드라마 감사의 재발견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불평과 부정적인 마음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행복의 기회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저에게 처음으로 암웨이를 전한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그때 지금은 없어진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을 그때는 몰랐었죠. 당시 암웨이 플랜을 들은 저의 현실 점검은 직장인 월급으로는 두 딸에게 우리 부모님만큼 해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 그게 두려웠죠. 부모님께서서는 사업을 하셔서 저와 형제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지만, 직장인 가정의 현실은 다르잖아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음에도 월급만으로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충족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었죠. 그런데 암웨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 듯했어요. 그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죠.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잘하고 싶었어요. 지난 14년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안에는 만족이 없었죠.

진정한 성공은 나를 지키는 것

어떤 성취 뒤에는 늘 또 다른 도전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욕심과 두려움이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속도를 더디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스폰서님이 내가 암웨이 사업을 왜 하려고 했는지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게 바로 'Why'잖아요. 제 'Why'는 행복이었습니다. 돈·신앙·시간·가족·건강·관계...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행복한 삶을 위한 기회가 암웨이였고요. 그렇다면 사업을 하면서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도전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요. 진정한 성공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과 가정,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인 만큼 앞으로 그 'Why'를 잃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암웨이를 하고 싶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한 부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회사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믿음 부정적인 생각



앰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받으시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라



20대 후반, 동갑내기 남자 친구이던 지금 남편의 사촌 형님 내외분에게 암웨이를 소개받았습니다. 추가 수입에 관심이 많던 남편은 저에게 함께하자고 지속적으로 권했지만, 언제나 바쁜 직장 생활과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또 다른 일에 눈 돌릴 마음의 여유가 당시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처음 미팅장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의 분위기나 플랜은 저에게 너무 낯설고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강사분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라!!!”. 그때 저는 충분히 젊었고 당시 일하고 있던 직장에서 저 나름 대로 인정받고 있다고 여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삶과 미래도 나아지리라 믿었던 거죠. 미래를 위해 또 다른 명함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눈빛과 열기는 저에게는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경제 복음이라 생각하며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린 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저도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평정심과 긴장감 그리고 나눔

암웨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성공자의 마인드를 갖추는 게 성공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암웨이 사업은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마라톤 같은 롱런 비즈니스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했기에 성공한 리더들의 CD를 수없이 듣고 책을 읽으면서 그분들을 닮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평정심과 긴장감, 나눔이라는 나름의 원칙을 정하고 그 마음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만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사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일은 결국 비즈니스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도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나눔인데요, 내 것을 나누면 결국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베푸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3 Key Questions

<p>나에게 암웨이란? 화수분이다.</p>	<p>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사람들이 해내지 못할 거라고 한 일을 해내라.</p>	<p>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인이 세운 원칙을 지켜라. 시스템을 벗어나지 마라.</p>
-----------------------------	---	--

행복을 향해 가는 에스컬레이터



저희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해야겠다고 결정한 것은 파트너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도전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암웨이를 통해 정말 많은 인생의 변화와 여유를 선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분이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사업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을 모시기 시작했는데 암웨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경제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에 며느리로서 부담을 느끼기보다 흔쾌히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딸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던 마음이 바뀌어 사업 시작 후 7년 만에 둘째를 계획하면서 지금은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부모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암웨이를 통해 삶 속에서 작은 행복 하나하나를 선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프레임 밖의 가능성을 발견할 것

사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기라고 생각한 순간은 제 변화의 한계를 느낄 때였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데 저의 소심한 성격과 낮가림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원래 주도적인 성격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리더보다 조력자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암웨이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제 그릇이 너무 작은 건 아닐까 하는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가장 큰 의지가 되어준 사람은 남편 용대중 리더입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죠.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혼자만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의 프레임을 조금만 벗어나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에스컬레이터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기본에 충실할 것 비윤리적 행동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목표를 품고 나아갈 때 성공이 가까워진다



저는 동생을 통해 처음 암웨이를 소개받았습니다. 동생이 누나랑 미팅을 가면 기분이 좋다고 하니깐 귀여운 마음에 따라다녔고 처음부터 특별한 비전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미팅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 직장인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암웨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상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계속 크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자랄 때 부모님께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제가 받은 것만큼도 해주지 못할 것 같았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 잠깐 영어 강사를 해본 것 외에는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특별히 열정이나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었기에 겁도 났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무책임한 부모가 될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파트너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리더

암웨이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목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핀을 짧은 기간에 성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목표가 없고, 그냥 암웨이를 좋아하기만 했습니다. 안정된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을 감사해하고 있을 때, 스폰서님이 제가 도전해서 나아가야 파트너들도 따라온다며,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제게 큰 목표이자 힘이 됐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 이제는 정말 파트너들의 핀이 눈에 보이면서 스폰서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돕고, 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파트너들이 없었다면 저는 다이아몬드 도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파트너님들에게 너무 고맙고 제게 가장 큰 보물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늘 한결같은 리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딸을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물	될 때까지 하자.	제품을 진심으로 애용해라. 쉽게 포기하자 마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한 줌 흙에서 시작했다



아이들이 네 살, 일곱 살 때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지만 너무 어릴 때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도 컸지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큰아이가 엄마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할 만큼 암웨이 사업을 좋아하고, 두 아이 모두 인성이 바르고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로 성장해주어서 지난 10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기억이 있다면 초창기에 사업을 같이 한 분이 자신의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본업으로 돌아간 일이에요. 시간이 흘러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삶이 여전히 뻑뻑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암웨이 사업의 크기를 제대로 알려줬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크더군요. 만약 다시 그런 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5년 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5년 후, 10년 후의 삶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יי죠. 이제 두 번의 실수는 안 할 겁니다.

초심, 중심, 뒷심을 지켜라

사업 진행 중 어느 날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의 “에베레스트산도 한 줌 흙에서 시작했다”라는 문장을 읽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 사업도 결국 작은 나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준 문장이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은 시스템을 믿으며 또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처음에 신중히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해나가야 합니다. 어떤 일에서든 처음에 본 것에 대한 믿음, 결과를 내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지라도 중심을 지키는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무리. 어떤 일에서든 이 세 가지 마음만 지킨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옥토가 되도록 가꾸어주시고 좋은 씨앗을 뿌려주신 스폰서님과 저와 함께 이 길을 동행해주시는 파트너님들께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3 Key Questions

<p>나에게 암웨이란? 감사함이다.</p>	<p>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p>	<p>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일에서든 신뢰를 잃지 마라. 비전을 본 후에는 흔들리지 마라.</p>
-----------------------------	--	--

어떤 장애도 뛰어넘는 긍정의 힘!



저는 친언니에게 소개받아 암웨이 사업을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에어로빅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서른다섯까지 에어로빅밖에 모르고 살던 저에게 암웨이는 마음에 크게 와 닿지 않았죠. 하지만 공무원이던 언니 입장에서선 연금 수입의 가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동생이 하는 일의 한계가 보였나 봅니다. 1년을 거절한 저를 끝까지 설득해줬고 결국 이런 좋은 날을 맞았네요. 언니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암웨이 사업을 해보니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외로웠어요. 상주라는 지역의 특성상 외부인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아닌 터라 사람들이 닫혀 있는 성향이 강한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미팅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대전이나 대구로 나가기 위해 늘 혼자 다녀야 했는데, 오고 가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세운 원칙을 지키다

저는 춤을 추던 사람인 만큼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이었고, 그런 모습이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 자체를 바꿨죠. 이 사업은 나 자신을 보여줘야 하는 일이잖아요.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옷도 찢어진 청바지나 티셔츠에서 점잖은 스타일로 변화를 주었죠. 저만의 원칙일 수 있지만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를 줄 수 있고 진짜 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성격이 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암웨이 사업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시스템을 지키되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믿음과 긍정의 마인드는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리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긍정의 마인드로 더 신나게 암웨이를 하고 싶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무지개다.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꿈꾸고 외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라. 힘든 부분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	--	---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면



성악을 전공한 후 수원시립합창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이창현 리더의 직장 선배를 통해 암웨이를 소개받았어요. 저는 준공무원이었고 남편은 은행에 다니고 있었기에 모두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퇴직 후의 삶을 생각하니 다른 준비가 필요하겠더군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도 50대 중반쯤 되면 일이 없어지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나가고 몸까지 약해지면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잖아요. 저희 역시 현재는 안정적이지만 퇴직 후의 인생은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50대 중반이면 정말 젊은 나인데 말이에요. 그 나이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더군요. 암웨이 사업 플랜을 들어보니 제가 찾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해낸다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죠.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을 시간을 위해

어떤 사업이든 내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인데 처음엔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열정적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플래티넘 편까지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더니 그 이후부터는 사업이 저조했지요.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처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암웨이가 전업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했지만 다른 것은 내려놓지도 않으면서 좋은 결과만 바랐던 거예요. 당시 제 직장이 20년을 다니면 연금이 나오는 곳이었는데 암웨이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에 17년 차에 그만두었어요. 그 후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사업도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오늘의 선물이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암웨이 60주년을 바라보며 후회가 남지 않도록 파트너들의 성장을 돕고 더욱 집중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희망이다.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	---	--



앰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앰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받으시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아이의 교육비와 제 노후 준비를 위해 현재 하는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찾고 있었어요. 그 때 앰웨이 사업을 만났습니다. 옷 가게를 십여 년 운영했었지만 남은 건 부채였습니다. 다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늘 미래가 불안하고 부채는 해결이 안된 상황이었죠. 오십만 원 추가수입이라도 있었으면 원할 때 자본도, 능력도, 나이도 상관없고 오직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들었기에 제 상황에서 그만한 일이 없었죠. 하지만 혼자서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게 맘처럼 쉽지 않았습니니다. 앰웨이를 시작하고 10개월쯤 지났을 때, 잠시 앰웨이를 놓을 뻔했죠.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앰웨이를 놓았다면 오늘의 이 행복을 마주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사업

앰웨이를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기로에 놓였을 때, 저는 오히려 SP에 도전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당시 몇 개월간 함께 공부해온 파트너가 세 분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도전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저의 노후, 부채가 해결안된 상황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제 삶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바로 앰웨이를 통해서요. 무엇보다 이제 저보다 더 키가 큰 아들에게 엄마가 해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앰웨이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사업이에요. 이제는 저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에게 이 행복의 지도를 안내하며 돕는 리더가 되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앰웨이 사업 기회를 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앰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의 행복을 준 최고의 선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해내자.	신뢰를 지켜라.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마라.

내 안의 열정과 잠재력을 깨우다

5년 전, 저는 아들 둘을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림 잘하는
걸 미덕으로 삼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당시 시댁과 친정 모두
사업을 했고, 남편 역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던 저에게 교회에서 만난 스폰서님이 암웨이
비즈니스를 소개했지만, 저는 귀를 닫았어요. 제품이 좋다는
건 알고 있어서 사용하던 중, 어느 날 통장에 20만~30만
원이 들어와 있더군요. 그 돈조차 받고 싶지 않으니 주인을
찾아주라고 할 정도로 저는 암웨이 사업에 거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저에게 비전을 보여준 스폰서님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독서와 미팅을 통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저의
편견이 깨지더군요. 그때부터 그동안 발산할 곳이 없어 꺼내보지
못한, 제 안의 숨은 열정과 집중력이 물을 만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올인하며 목적 없는 배움을 좇던
제가 암웨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죠.

성공을 이끄는 동기부여의 힘

암웨이를 시작했을 때, 시스템만 잘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미팅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아침마다 CD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말도 안 된다는 그 시스템 안에서
제 삶이 변화된 거죠. 미팅을 하면서 열정과 아이디어가 샘솟고,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가 담긴 CD를 들으며 얻은 깨달음이
매일매일 저의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아침
파트너님들과 단체 카톡방에서 감동을 주는 파일을 공유하며
새롭게 의지를 다져요. 암웨이 사업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각자 흠어져서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함께하는 리더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만으로 파트너에게 동기부여하는 리더였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파트너의 마음을 아우르고 그들의 꿈을 함께 품어나가는
따뜻한 사랑으로 동기부여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다시 써나가는 인생 스토리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약속을 지켜라. 과욕하지 마라.
-----------------------------	-------------------------------	---

지금 당신의 행동과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앰웨이를 만나기 전 저희는 부산에서 참고서 총판 사업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음에도 사업을 하는 10년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컸습니다. 사업 특성상 매달 거래처에 2억~ 3억 원이나 되는 어음을 수급해 넣어야 하는 압박이 가장 힘들었죠. 많은 스트레스로 본업을 접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할 때 앰웨이 사업을 제대로 알게 됐지요. 그리고 사업을 결정한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후회해본 적 없을 만큼 앰웨이는 저희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업에 투자하는 시간으로만 보면 참고서 총판 사업을 할 때보다 지금 더 바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와 다른 행복이 저희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두 부부가 그 자리에 뻗어버릴 만큼 모든 에너지를 빼앗겼다면, 현재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도 피곤하기보다 내일의 앰웨이를 생각할 정도로 앰웨이는 그 자체로 행복한 사업입니다.

오늘 하루를 저축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앰웨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앰웨이 창업자의 책과 자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후 지금은 저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평생 남에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던 아버지의 철학과 앰웨이의 철학이 잘 맞아떨어진 거죠. 무엇보다 일흔들의 연세에도 플래티넘이 될 정도로 앰웨이는 나이와 상관없는 비전과 가능성으로 아버지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며 저 역시 평생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이 생겼고요. 창업자인 리치 디보스의 책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지금 당신의 모습은 과거 당신이 한 행동이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행동과 선택이 미래의 모습을 만들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저축하듯 살고 싶어요. 그럼 제 미래는 더 큰 행복과 보상으로 제 삶을 채워줄 것이라 믿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앰웨이란? 은인이다.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스템 안에서 순복하라. 욕심부리지 마라.
--------------------	---	---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유선희 | 김규원

Diamond  2015년 8월 1일부

목적이 있는 삶



소속이 있는 국악 연주자이던 저희 부부는 결혼을 일찍 한 덕분인지 현실 점검이 빨랐어요. 직장인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차에 친구에게 암웨이 사업을 소개받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웨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암웨이가 얼마나 큰 사업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 일이 너무 좋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차츰 암웨이 사업이 얼마나 큰 비전이 있는 사업인지 깨달았고 이걸 통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하고 나니 저 자신이 굉장히 주도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지요. 암웨이를 하고 보니 사람들이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원래 저만의 틀에 박혀 있던 사람이라 그걸 '틀리다'라고 생각했지만, 암웨이를 통해 사고가 유연해지고 시각이 넓어지면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저는 암웨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명확한 꿈이나 목적이 없었어요. 그저 막연하게 잘살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암웨이가 저희 삶에 많은 목적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역시 어떤 일을 하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악을 전공했기에 전공을 살려 CCM국악 찬양팀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녔던 꿈이었는데 암웨이를 통해 다시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님들에게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들의 성공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노력이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다 함께 성장한 모습으로 암웨이 6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3 Key Questions

<p>나에게 암웨이란? 설렘이다.</p>	<p>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역지사지, 한결같이 사랑을 흘려 보내자.</p>	<p>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에 충실할 것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 것</p>
----------------------------	--	--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옥남이가 해냈어요!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하면서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계신 친정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 저희 대신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궁금했을 텐데도 묵묵히 믿어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옥남이가 해냈어요. 아버지가 지켜봐주신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감사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2000년에 암웨이 사업을 시작해 4년 정도 이어가다가 사정이 생겨 암웨이를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개인 사정보다 암웨이를 바라보는 방향성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다시 시작한 도전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니다. 3년 정도는 신뢰 쌓기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던 배가 멈추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톱 리더님이 힘을 주었습니다. 항상 기본을 잃지 않으면 멀리, 오래갈 수 있다고 말이죠.

깔딱고개 넘어 나를 기다리는 꿈의 정상

암웨이는 보통의 삶이 기적이 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성공을 꿈꿨고, 친구 중에 그리고 가족 중에 가장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진 수단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웨이를 통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잘 해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사업하다 보면 의지가 흔들리는 힘든 고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등산할 때도 7부 능선, 8부 능선을 지나 깔딱고개를 만나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정상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정상이 보이지 않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던 고개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죠. 암웨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비에서도 그 고비를 넘어 도착할 나의 꿈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3 Key Questions

<p>나에게 암웨이이란?</p> <p>선물 같은 감동이다.</p>	<p>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p> <p>늘 진실한 삶을 살자.</p>	<p>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p> <p>다른 형제 레그의 암웨이도 내 것처럼 보라. 남을 험담하지 마라.</p>
--------------------------------------	---	--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고, 모두가 빠져든 암웨이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학원 영어 강사로 일했습니다. 제 삶은 없고 체력은 고갈되는 일상에 지쳐가던 저는 대학 강사로 전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대학 강사 일만으론 1년에 한 번 시애틀에 있는 시댁도 방문하기 버거웠지요. 그러던 중 암웨이에서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남편도 반대했습니다. 시택에선 제 의견을 존중했지만 남편만은 암웨이 사업에 발을 들이지 않길 바랐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진로를 바꾸기엔 그간의 공부가 너무 아깝지 않느냐며 안타까워했고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남편 친구에게서 반대 전화가 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과 학교 어디에서도 노력을 보상받을 수 없던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암웨이 사업에 몰두한 결과, 3년 만에 다이아몬드라는 성취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암웨이

남편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길 바랍니다. 제가 학원 강사를 할 때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안타까워할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가을, 저는 그에게 <리치처럼 승부하라>라는 책을 권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저와 암웨이를 함께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대신 함께 성장하는 '암웨이의 본질'을 읽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시어머님과 시누이도 미국에서 암웨이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으니 포기하라고 전화한 남편 친구는 저희의 편입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서 다이아몬드 핀을 처음 본다면, 포기했던 암웨이에 다시 도전하겠답니다. 암웨이가 처음엔 저 하나의 희망이었지만, 이젠 우리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인 암웨이가 희망을 퍼뜨립니다. 제 삶이 되어버린 암웨이가 그래서 귀하고 감사합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삶이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확대하라.	꾸준하라(Never Give Up!). 자신의 생각에 갇히지 마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받으시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완전히 달라진 긍정의 삶



2015년 9월 1일자로 다이아몬드 편을 성취했습니다. 암웨이와 첫 인연을 맺고 14년 만입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어리벙벙했다고 할까요?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다 멍하고 텅텅했습니다. 그리고 누님을 초대한 9월 둘째 주 레드 카펫 행사에서 편입 달성 소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눈물이 계속 솟아났습니다. 저는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주변에서도 성공자를 찾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만 보고 자라서인지 성격도 부정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아내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아 저희는 가난하고 힘들게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던 2001년의 어느 날 첫 직장 선배가 암웨이를 이야기해줬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선배를 믿고 암웨이를 조금씩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어차피 사용할 생필품을 바꾸어 쓰는 부업' 정도로 암웨이에 발을 들였습니다.

가치 있는 일의 점진적 실현

저는 암웨이에서 처음으로 성공 경험자를 보았습니다. 암웨이에선 누구나 성공 경험을 전하고, 서로의 장점을 칭찬합니다. 암웨이 안에서 저는 변화와 희망의 의미를 알았고, 저도 모르게 조금씩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저희가 풍요롭게 생활하고 전 중소기업의 이사로 성장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환경 변화는 아주 부수적인 보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저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암웨이의 본질은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점진적 실현'입니다. 모르는 사람까지 맹목적으로 긍정하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저를 엄마처럼 키워준 누님 앞에서 눈물범벅이 된 건, 14년 동안 암웨이 안에서 완전히 뒤바뀐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를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삶의 스토리다.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타인을 존경하라.	언제나 원칙을 고수하라.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라.

미래가 보이는 삶



2002년, 스폰서님께 암웨이를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뉴트리라이트로 어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암웨이 사업에는 선뜻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디에도 관심을 둘릴 수 없을 만큼 바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의류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까지 매장을 관리한 후 잠시 집에 들러 씻고 공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패턴을 확인하고 제조 공정을 지켜본 후 완성품에 불량인 없는지, 재고량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침까지 디자인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직접 옷도 만들고 매장도 두 개나 운영하니까 남들 눈엔 괜찮아 보였을 법도 합니다. 그해 연말에 결혼해 남편이 된 박성준 리더도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1주일에 10시간도 못 자면서 쳇바퀴 돌 듯 하루하루를 견뎌내기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때는 잠이 소원일 정도였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래는 선택을 따라 온다

매장 운영은 고정비 지출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암웨이에선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외국계 항공사에 근무해 퇴근이 빠른 남편이 미팅에 참석하며 저희는 암웨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성장했지만 다이아몬드 핀 앞에서 10년 이상을 안주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고, 파트너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올곧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이아몬드 결정 후 1년간 최선을 다해 다이아몬드에 도전했고, 마침내 이루어냈습니다. 암웨이는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보내기보다 일단 뛰어보고 그 결과를 돌아봐야 합니다. 혼자 고민할 때는 보이지 않던 미래가 암웨이에서 함께하며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저희를 지켜봐준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도전과 성취에 즈음해서 저는 아침마다 파트너 한 명씩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분들의 성장을 위해 앞장서서 달려겠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긍정적인 변화와 희망이다.	그럴 수 있다(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시스템에 순복해야 한다. 일단 선택했으면 흔들리는 고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 최고의 선택



지난 1년 동안 다이아몬드 핀을 도전하면서 과연 이날이 올까, 정말 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희는 사업을 시작하고 3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달성했기에 그만큼 일의 양도 많았고 도전 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적지 않게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힘들다는 생각보다 이 일이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몸은 바빴지만, 마음으로는 행복을 느끼고 즐길 수 있었던 건 이 안에서 만난 정말 좋은 분들 덕분이죠. 저희 부부가 가끔 웃으며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찌다가 앰웨이의 비전을 봐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앰웨이는 다시 생각해도 설레고 행복한 저희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작은 도전의 성공을 통해 다음 도전을 기대하다

앰웨이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다만 안 해본 일이니 어려운 점은 있었죠. 그럴수록 빨리 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로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노력해서 변화했을 때 다른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며 변화하거든요. 앰웨이 사업을 성취했을 때의 행복감이 참 큰 것 같아요. 초기에는 3%, 6%를 도전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졌죠. 하지만 성공을 통해 다음 도전에 대한 기대가 생겼고,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 보석 핀에도 도전하고 다이아몬드 핀까지 올 수 있었어요. 도전의 성취감을 맛본 이상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님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아 도전과 꿈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이미 성공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으니까요.

3 Key Questions

나에게 앰웨이란?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Boys Be Ambitious!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도를 지켜라.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	--	--

암웨이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다



2005년에 결혼해 이듬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두 해 뒤인 2008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문득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비가 온 다음에 우산을 준비하다간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미래를 담보로 오늘을 희생하는 건 싫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암웨이의 인세 개념이었죠. 오늘을 풍요롭게 살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사회생활보다 육아에 집중하길 바라신 거죠.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서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어 더 부지런해지고, 손주도 더 잘 돌보니까 시댁에서는 점차 찬성으로 돌아셨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는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관계에 조금 서툴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정말 귀하다는 것이었지요.

사람이 귀해야 사람을 내려주시다

미래를 대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가족 여행 경비 정도만 별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의 변화를 발견했죠. 저는 별로 개방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이외의 사람이 우리 집 비품을 건드리는 것조차 무척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누군가와 고민을 나누면 거기에 집중하죠. '누가 내 것을 만지고 있는지' 같은 사소한 문제에는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하고, 선후와 경중이 분명해졌지요. 사람 귀한 걸 모를 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안 붙여주셨어요. 돈 버는 게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자 큰돈을 안겨주시기도 했지요.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제 삶은 주도적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께선 어린 나이에 시집가는 저를 무척 안타까워하셨지요. 사회생활도 해보고 성취와 자아 실현의 기쁨도 경험해보길 바라셨던 거죠. 아버지께 제 작은 성취를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준 파트너님들을 모두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게 제 일의 완성일 테니까요.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축복의 통로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끝까지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라. 남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라.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저는 10년 전, 쇼호스트이던 친언니에게 소개받아 처음 암웨이를 만났어요. 하지만 당시 방송 작가로 굉장히 바쁘게 일할 때라 별로 관심이 없었죠. 경영학을 전공한 남편이 대학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했기 때문에 암웨이에 특별한 편견은 없었지만, 바쁜 가운데 또 뭔가를 하는 게 너무 부담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미팅장에서 다이아몬드가 된 분에게 사업 설명을 듣게 됐지요. 당시 작가 10년 차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분은 저와 동갑인 데다 암웨이를 한 지 1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모습과 너무 비교됐어요. 10년 동안 작가로서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돈 버는 데 급급한 저와 달리 그분은 인생의 숙제를 끝내놓은 듯 여유 있는 모습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죠. 같은 기간을 똑같이 전력 질주했는데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보며 이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저토록 바꿀 수 있다면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웨이 안에서 다시 꿈을 찾다

암웨이에는 방송 일에서 얻을 수 없는 가치가 있었어요. 바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방송 작가는 제 꿈이었지만, 꿈이 현실로 다가와 돈벌이 수단이 됐을 때는 더 이상 꿈이 아니더군요.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했지만 '언제까지 돈을 벌기 위해 기계처럼 앉아서 글을 써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지요. 이제 암웨이 사업을 통해 다시 꿈을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적으로 좀 더 성장한 뒤 진정한 경제적·시간적 자유가 주어졌을 때,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남편과 함께 전 세계 성당을 순례하며 에세이집을 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암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가정을 끝까지 잘 지키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저희가 가진 최고의 꿈입니다. 더불어 우리 파트너님들도 암웨이 안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Key Questions

<p>나에게 암웨이란?</p> <p>희망이다.</p>	<p>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p> <p>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p>	<p>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p> <p>다름을 인정 남과의 비교</p>
-------------------------------	--	---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되는 일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파트너님들과의 결속력이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밀양이라는 곳은 시스템도 떨어져 있고 AP도 따로 없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더 돈독한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어느 지역보다 매력 있는 곳입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해오긴 했는데, 특히 다이아몬드 편을 도전하면서는 소비자와 파트너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나보다 우리 파트너님들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파트너님들이 어떤 마음과 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 마음에 하나하나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아니까 안타까움도 더 커지고 더욱 힘을 모으게 되는 거죠.

꿈을 품고 사는 사람

암웨이 사업을 하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저 자신의 변화입니다. 암웨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빌어주고, 마음을 다해 돕는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배웠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다 기억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3년 전 잠시 암웨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분을 다시 만났는데 꿈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분명히 3년 전에 홀로 사시는 엄마께 집 장만해드리는 게 꿈이라고 한 걸 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본인도 잊어버린 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면서요. 그 후로 그분은 다시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마음에 품은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믿고 응원해주는 스폰서님께 감사 드리며, 가르쳐주신 긍정·감사·멋진 팀워크로 앞으로 더 행복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행복이다.	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일체유심조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폰서와 파트너, 소비자 간의 기본적인 도리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
--------------------	---------------------------	---



앰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받으시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업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대를 열심히 살았죠. 남들이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는 대학 교직원으로도 일했고 의료 사업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논술 강사도 했죠. 하지만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참 힘들다'고 느낄 즈음 스폰서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순진하게도 제가 "하나님은 부자로 사는 거 싫어하세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스폰서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업이 있다면서 알려준 게 바로 암웨이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암웨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스폰서님은 정말 괜찮은 분이었기에 그분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스폰서님을 믿은 게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준 듯합니다. 다수가 이야기하는 게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사랑과 배려, 섬김의 마음

예전에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 만났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저에게 필요한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는 앞의 두 부류를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제 자신을 좀 낮춰야 할 때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걸 이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처음엔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 혼자 살아온 인생관으로 그들을 바라봤으니까요. 하지만 암웨이를 통해 스폰서님의 정신과 리치 디보스의 저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접하고 사랑과 배려, 섬김은 마음을 배우면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파트너님들이 저보다 더 쉽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희생하고 쉽 없이 뛰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One Way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겸손한 마음 안주하는 마음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업 속에 꽃핀 가족의 희망



남편은 우직한 사람입니다. 이익에 흔들리기보다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는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점이 사회생활에 늘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2004년 남편은 노조 간부로 회사와 협상 중에 강제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덕분에 하루 아침에 수입이 '0'이 되었죠.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3남매를 힘들게 키워오신 엄마를 보며 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바랐습니다. 그러다 암웨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암웨이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피해를 주는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배달 온 택배 상자를 던져버린 적도 있습니다. 덕분에 사무실에서는 '박스맨'으로 통하죠. 그러다 회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는 스폰서님과 파트너들의 진실된 모습을 접하게 된 남편은 오해를 하나씩 풀게 되고 암웨이의 비전을 보게 되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멀리 경주 계열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길, 희망으로 가는 길

남편의 뒷바라지, 두 딸의 육아, 시부모님 봉양 등의 1인 3·4역을 병행하면서 암웨이 사업을 혼자서 진행하려니 3년의 약속한 기간은 지키지 못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켜냈고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습니다. 2011년 첫 여행지이던 치앙마이를 시작으로 매년 이어지는 해외여행지에서 마음껏 즐기는 아이들과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암웨이를 통해 점점 달라져가는 우리 가족의 삶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권고사직 그리고 주말 부부 등의 시련도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우직함으로 암웨이 사업을 진행해온 결과, 그 시련을 거뜰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는 우리 가족의 희망입니다.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저희에게 암웨이는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음과도 같은 암웨이!! 이 기회를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해주신 존경하는 스폰서님과 사랑스러운 파트너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Key Questions

남에게 암웨이란?	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울타리다.	정직	자신과 회사, 제품,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믿음 빨리 가려고 편법을 쓰지 마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을 넘어 유지할 수 있는 미래



결혼 전에는 늘 사회생활을 했는데, 출산 후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우울증까지 약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저희 부부에게 암웨이를 소개해줬습니다. 저 역시 뭔가를 해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더욱 적극적으로 세계 암웨이 일을 권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업을 해온 남편은 늘 사업 아이템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잘되는 일도 어느 순간에는 성장 동력을 상실하기에 언젠가 사업 아이템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업의 '유한한 한계'를 아는 남편은 '조금이라도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일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암웨이의 특성이 꼭 그렇다고 합니다. 집에만 갇힌 삶이 싫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시작했지만, 암웨이 사업은 알면 알수록 매력적입니다. 사실 성공이라는 면에서 암웨이와 일반 사업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일이란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암웨이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부부, 서로에 대한 재발견

결혼 전에 '잘나가는' 회사의 해외 사업부에서 근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중국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세상에선 우리가 투자한 시간이 한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웨이에선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을 인세 소득으로 보상해줍니다. 사회생활 하는 남편과 가정에만 있는 아내 사이에선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그건 부부가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이랍니다. 세상의 변화를 몸으로 경험하는 남편과 달리 아내의 시간은 고정되어버렸다는 뜻이겠죠. 암웨이 일을 하면서 남편은 제가 옛 모습을 되찾고, 자신보다 더 세련된 사람이 되었다며 기뻐합니다. 남자들은 흔히 지성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제 모습을 보면서 긍정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고도 말해줍니다. 암웨이는 경제적 성취만 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도 깨닫게 해줍니다. 서로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부부처럼 말입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사명이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	꿈을 명확히 하라. 포기하지 마라.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
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
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정인 | 신채웅

Diamond  2015년 9월 1일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빛을 밝혀주는 사람



저희가 암웨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삶의 변화 없이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았던 어제 때문에 오늘을 부도내지 않으려 숨가쁘게 살면서 차마 내일은 기약할 수조차 없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또 오늘이 어제 같냐고, 왜 달라지는 게 없느냐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왜?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암웨이 사업을 만나면서 공부해보니 열심히만 사는 건 최선이 아니라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열심히 전에 제대로 된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전 그 멋진 선택의 결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멋진 날이 될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막연히 그리는 삶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명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으로 주변에 긍정적인 파장을 만들어냄으로써 내가 꿈을 이뤄가는 모습이 또 다른 의미의 꿈이 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가기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세상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땐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즐기면서 극복할 것인지 고민하다 보면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될 때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100%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저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집중하는 시간도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집중해야 성장을 하니까요. 암웨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내 꿈과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얻은 답은 바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빛을 밝혀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생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파트너들의 네트워크가 진출해 있는 나라로 해마다, 여행가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사업이 되는 그런 멋진 노후를 꿈꾸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선물해준 암웨이와 스폰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꿈 너머 꿈	우공이산 우보만리 (愚公移山 牛步萬里)	인간관계 비즈니스를 하라. 비즈니스 인간관계를 하지 마라.

설레는 만남, 희망찬 모험



3년이라는 시간에 파트너 다이아몬드 한 조와 함께 다이아몬드를 성취할 수 있었던 건 저희를 위해 헌신해주신 스폰서님과 저희를 믿고 함께 도전한 파트너들 덕분입니다. 암웨이를 만나기 전, 의사인 남편과 저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앞으로의 생활에 큰 걱정은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갑갑한 의료계 현실 속에서 늘상 병원에만 갇혀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대로 삶이 시들어만 가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언젠가 부부가 함께 병원을 벗어나 자유롭게 여행 다니며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삶의 혁신적 변화를 시도해볼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품 좋은 회사라고만 알고 있던 암웨이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약속을 지켜내는 스폰서

사실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컸죠. 저희가 해오던 일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었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선택하고 해낼 수 있었던 건 끊임없이 도전하는 스폰서님과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시스템의 힘으로 이 일은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업의 원동력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희는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가끔은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누군가 꿈과 마음이 통하는 단 한 분을 만나고 나면, 마치 아기를 낳은 엄마와 같은 기쁨에 그동안의 아픔들을 모두 잊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보니 이제부터 진짜 암웨이를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기업 암웨이처럼, 파트너들과 함께 여행 가자고 했던 약속을 지켜내는 스폰서가 되려 합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차원이 다른 삶으로 직통하는 웜홀(Wormhole)	출탁동기(啐啄同機)	자신의 성공에 대한 믿음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보지 말 것

세계 최고의 자존감으로 다시 일어서다

4년 전 당시 웨딩플래너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행하던 일들이 많아 가장 바쁘고 소득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 가장 높을 때였지요. 한 달에 30여 건에 이르는 결혼식을 진행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제 나름 대로 꽤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가슴 한 구석은 늘 허전했고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시기였죠. 그때 만난 스폰서님은 제 인생을 백팔십도 바꿔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걸 가졌고 누리는 듯했지만, 내적으로는 30여 년간 겪은 수많은 상처로 인해 날 선 자존심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고 있었던 저였죠. 그랬던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손을 내밀어주신 스폰서님을 만나고 암웨이 사업을 배우면서 자존감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었고, 스폰서님께 받았던 완전한 치유처럼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는 스폰서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암웨이가 자연스럽게 저의 심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면 더욱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제가 암웨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만 해도 다이아몬드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계무대로 나아가는 글로벌 암웨이의 꿈을 품고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지나가는 여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며 그 나름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제 앞에 다가오는 시련은 반드시 극복하고 가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땅에 입성할 수 있는 희망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암웨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와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새로운 3%를 끊임없이 만들고 싶습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제가 누군가를 도와 그 사람이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자유와 희망을 안겨준 암웨이의 본질과 가치를 바탕으로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희망이다.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큰 꿈을 품어라.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도전을 멈추지 마라.
--------------------	---	--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에서 암웨이 스마트뷰어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에 대면 리더의 동영상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궈낸 성취



2005년에 암웨이 제품을 처음 만났고, 2006년에는 사업을 소개받았습니다. 호기심을 느꼈지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주변도, 인맥도 없던 탓입니다. 그래도 강의에는 참석했습니다. 만혼이라 아이도 늦게 가졌습니다.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가 늘 걱정되었죠. 가진 것이라곤 시간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행 동영상을 보는 순간, 아이들에게 그런 미래를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용기를 내 사업을 시작했는데, 3명 또는 6명의 파트너를 찾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감도 부족했고, 왜 성과가 나오지 않는지 조급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도, 주말 세미나에는 꼭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PT나 에메랄드 리더님들은 제게 성공자로 보였습니다. 그분들의 지나온 과정을 보니, 딱 제가 힘들어했던 부분이 보였습니다. 암웨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인데, 노력 이상의 결과를 기대했던 겁니다.

믿음은 꿈을 현실로 만든다

결혼 전에는 옷 가게를 운영해보기도 했고, 결혼 후에는 산모도우미업체 프랜차이즈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옷 가게는 시대 흐름에 밀려났고, 산후조리원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경쟁 업체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유행과 과다경쟁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웨이에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간만 투자하면 길이 열립니다. 시스템은 제게 없던 자신감을 부여해줬습니다. 처음엔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암웨이와 시스템을 믿고 성실하게만 임하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생깁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과 비즈니스 클래스 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9년 전에는 꿈꾸지 못한, 암웨이의 여행 동영상을 보고 마냥 부러워하던 그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파트너님들도 저처럼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이란?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웨이는 희망 찬 삶이다.	포기하지 말되, 기복없이!	암웨이는 (자신의) 사업이란 사실을 명심하자. 포기하지 말자.

성공자의 자세와 정신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멋진 부모



암웨이를 만나기 전 저는 아이에게 집착이 심한 스물아홉 주부였어요. 네 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새벽 2~3시까지 책을 읽어주고 패물을 팔아 책을 살 정도였죠.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독서로 영재를 만드는 게 당시 유행이기도 했고, 아이를 잘 키워 저보다 더 잘살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암웨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아이의 성적에 집착하며 살고 있겠죠. 하지만 암웨이를 통해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행복한 게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서 어떤 자세로 그것들을 해내는 게 맞는지 조언해주는 멋진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엄마의 의식과 행동반경이 아이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암웨이에서 배운 성공자의 자세와 정신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 너무 감사해요.

파트너와 함께하는 행복한 암웨이

암웨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파트너님들의 꿈에 제가 터치를 한 셈인데, 같이 해보고 함께 이루자 해놓고 책임감을 발휘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죠. 무엇보다 파트너님들과 함께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한층 더 커졌어요. 집착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저에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 같은 존재고 어찌든 가족보다 더 많이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아진 삶을 위해 바닥부터 함께 구르며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는 저희 파트너님들이 스스로는 셀프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더 후원하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암웨이 할 때가 제일 좋고, 파트너님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암웨이에는 정년이 없는 만큼 계속 필드에서 함께 뛰며 파트너님들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나아지는지 몰두하고 발전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3 Key Questions

나에게 암웨이란?	기술에 새긴 좌우명이 있다면?	ABO로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와 함께하는 그들과 다같이 잘되는 것	내가 말한 대로 된다.	정도를 걸어야 한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New Achievement

—
Desire Your Dream

	<i>Founders Emerald</i>	_____	110
	<i>Emerald</i>	_____	118
	<i>Founders Sapphire</i>	_____	140
	<i>Sapphire</i>	_____	142
	<i>Founders Platinum</i>	_____	146
	<i>Ruby</i>	_____	166
	<i>Platinum</i>	_____	168
	<i>Gold Producer</i>	_____	178
	<i>Silver Producer</i>	_____	180

Founders Emerald



2015년 9월 1일부



강복진

김경태

경기 광주시

올해 3월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핀을 달성했고, 9월에 파운더스 사파이어와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을 함께 성취했습니다. 그동안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경험한 덕분에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두가 암웨이의 멋진 비전과 가치를 끊임없이 알려준 스폰서님 덕분입니다. 꾸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격려를 보내준 스폰서님이 있었기에 실패해도 툭툭 털고 일어서서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뛰는 법밖에 모르던 저에게 함께 뛰는 방법을 가르쳐준 리더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더 많은 파트너와 함께하려면 지금보다 더 크고 따뜻한 그릇이 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더 크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옥토 같은 리더가 되겠습니다.



강정애

대구 달서구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 달성은 함께 이룬다는 의미가 있기에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암웨이는 영어 교사로 휴직 중인 저에게 좀 더 자유로운 삶과 여유 있는 수입, 여행이라는 값진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내 삶과 파트너의 삶에 책임감을 갖고 팀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변화를 결심하고 이를 지켜낸 결과, 이처럼 큰 기쁨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폰서님과 파트너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들 유학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다이아몬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2019년에도 꼭 라스베이거스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준

이경숙

대구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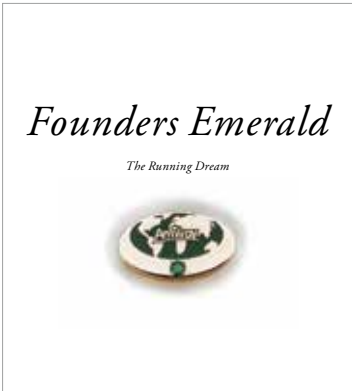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을 달성하니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진 것 같습니다. 더 큰 도전에 대한 갈망도 커지고요. 올해 다시 결심해 성취한 핀이라 더욱 뿌듯하고 다이아몬드로 가는 초석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한 번 사수한 핀을 끝까지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스폰서님과 함께 믿고 따라와준 파트너님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따뜻한 리더, 친구처럼 나눌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또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핀은 물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핀도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김명아

전북 전주시

먼저 항상 믿어주고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은 스폰서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세 개 핀을 모두 성취한 뜻깊은 해입니다. 이런 성공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단단한 팀워크를 보여준 사랑하는 팀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지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암웨이의 가치인 '탄탄하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꼭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큰 성공을 향해 더욱더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김상범

서울 영등포구

대학 선배의 권유로 우연히 암웨이 사업을 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할 수 있는 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과가 지속적으로 쌓여간다는 사업의 장점을 알고 나니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암웨이 사업과 자영업을 동시에 하면서 물론 힘들다고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루하루 앞을 보며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이런 기쁜 성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함께 뛰고 있는 파트너님, 그리고 늘 저의 성장을 위해 고민해주는 리더님, 어느새 너무나 가까운 가족이 된 스폰서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김상희

인천 연수구

처음에 아이들 고모에게 암웨이를 소개받아 1년 정도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암웨이가 저에게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사업을 열심히 운영해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업이 남을 도와 성공시켜 함께 부자가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의 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의 간절한 꿈 덕분에 지금의 성공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내년 회계연도에는 세 분의 파트너님을 도와 다이아몬드에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성취를 축하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업을 알려주고 기도해준 스폰서님과 함께 힘써준 파트너님들도 감사합니다.



김순이
-
전창규

대구 동구

단지 핀 성장만이 아니라 저의 내적 성장을 함께 이룬 것 같아 더욱 기쁩니다. 제 꿈속에는 파트너분들의 꿈도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탄탄한 팀워크를 다져 열심히 땀 흘렸고 그 수고의 대가로 이렇게 멋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워크야말로 사업 성장의 원동력이며, 성장은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공 덕분에 파트너님들은 보석 핀에, 저는 탄탄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다이아몬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늘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스폰서님과 리더님 그리고 함께 뛰어준 파트너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김현미
-
이종성

대구 남구

'할 수 있다'에서 '해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낸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생겨 더욱 뿌듯합니다. 1년 전 아이들과 각자의 목표를 정해놓고 함께 열심히 뛰어보자 약속했는데, 암웨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을 만끽하지 못했을 겁니다. 암웨이 사업은 남편의 권유로 부업 삼아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 속의 작은 거인을 깨워나가는 과정을 경험했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금과 같은 성장의 디딤돌이 된 듯합니다. 이 모든 일은 시스템 속에서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동기부여를 줬듯 앞으로는 제가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앞장서서 전진하겠습니다.



박인자
-
문현수

부산 금정구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성취한 핀입니다. 기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이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저는 항상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사업에 임했습니다. 매일 변함없이 출퇴근하는 직장인처럼, 출퇴근 개념을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끊임없는 노력이 지금의 성공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잘 코칭해준 스폰서님 그리고 함께해온 파트너님들,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먼저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보여주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2016년 다이아몬드 성취, 2019년 라스베이거스 입성 그리고 더블 다이아몬드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배정환
-
최윤희

경기 안산시

이번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 달성은 무엇보다 다이아몬드로 가기 위한 밑바탕을 제대로 그렸다는 점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스폰서님도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고, 저 역시 많이 공감하면서 핀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다이아몬드를 꿈꿨고, 이제 손에 잡힐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사업은 팀워크, 스폰서와 파트너가 한 방향을 보고 함께 발을 맞춰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뒤에서 묵묵히 기다리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스폰서님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항상 같이 고민하고 이끌어준 저의 스승이지요. 앞으로 더욱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목표이며, 더 나아가 세 아이와 2세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은숙
-
이철영

경기 의왕시

남편이 대기업 증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가슴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여러 분야에 투자도 해봤지만 돈을 벌기보다 손실이 더욱 커지면서 그런 상황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그 즈음 작은 아이 친구 엄마에게서 압웨이 사업을 접했고, 제품을 하나씩 써보며 압웨이에 발을 들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바쁘게 진행되는 미팅도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참여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꿈을 새롭게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가자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이런 기쁨을 가져다준 듯합니다. 항상 나눔을 실천하며 베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몸소 보여주고, 따뜻한 눈빛과 말씀으로 용기를 주는 리더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압웨이를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고 가르쳐준 스폰서님 모두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손언식
-
이정민

경남 창원시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혼자 힘으로 혹은 개인의 특별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과의 팀워크 없이는 이룰 수 없는 핀이라 더욱 값지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내 생각대로 된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성공이란 처음 목적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빛과 소금 같은 스폰서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이었기에 제가 온 마음으로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중한 파트너님과 리더님, 항상 응원하고 기다려준 우리 두 아이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핀업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엄규현
-
박은영

부산 사하구

10여 년 전 부모님에게 이 사업을 전달받아 20대 후반부터 암웨이와 함께했습니다. 마흔 살이 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핀업을 달성하게 되니 저희에게는 더욱 뜻깊은 핀업입니다. 지금 트리플 다이아몬드인 부모님의 후원으로 가족 모두가 암웨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과 누나는 모두 다이아몬드고, 이모는 수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언제부턴가 가족들이 항상 함께하고, 항상 함께 여행하는 암웨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다이아몬드에 도전해 가족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은하
-
이형일

서울 송파구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삼았기에 핀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파트너님들의 안정적 수입을 같이 도왔다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모두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니 지금의 핀까지 즐겁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를 가기 위해 팀이 하나로 뭉치면서 급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파트너님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 모두가 뉴 핀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암웨이의 영감을 준 스폰서님에게 감사합니다. 그저 따라만 가면 성공하게 돼 있는 완벽한 시스템과 위대한 파트너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도전하지 않으면 파트너의 성장도 없을 터. 파트너님들의 성장을 위해 무조건 다이아몬드 핀에 도달하겠습니다.



윤연경
-
강재영

경남 진주시

에메랄드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동시에 달성해 두 배로 더 기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암웨이는 해가 갈수록 더 큰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혼자가 익숙했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하는 분들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보상을 함께하고 싶은 바람이 간절합니다. 늘 앞서서 보여주고, 함께 뛰는 스폰서님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너무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파트너님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6년 두바이 그리고 2019년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위해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윤정숙
-
김청기

부산 부산진구

대기업 인사 담당자로 일하며 직장인의 한계를 느끼던 중 절친한 친구의 권유로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집중한 결과, 3년 만에 에메랄드를 성취했습니다. 이후 많은 보상을 받았고 여행도 다녔지만, “성공은 파도”라는 말이 있듯 저에게도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왔고 긴 터널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업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암웨이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재기에 성공하고 이렇게 뉴 핀을 성취해 정말 기쁩니다. 어려울수록 스폰서님과 시스템에 밀착했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최소 10조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두바이 여행을 가는 게 목표입니다.



장미진
-
최장규

경기 안산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파트너님들과 함께 이뤄낸 핀이라 더욱 값지게 생각합니다. 파트너들의 성장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꿈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엔 제품을 쓰는 평범한 소비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암웨이를 통해 꿈을 꾸는 것을 알았습니다. 암웨이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어떻게 키우고 이뤄나가는지 배웠습니다. 항상 격려하고 믿어준 스폰서님, 믿고 따라와준 파트너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핀을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소비자 한 분 한 분에게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2016년에는 더욱 단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017년도에는 꼭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하겠습니다.



정이순

광주 광산구

딸아이가 앓고 있는 아토피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암웨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렇게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 성취라는 기쁨으로 보상받은 것 같습니다. 스폰서님의 올바른 지도와 시스템 덕분에 이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파트너님도 에메랄드가 될 때까지 저 역시 열심히 돕겠습니다. ‘스폰서님 말씀은 흥내라도 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사업에 임해왔듯, 앞으로도 스폰서님께 인정받고 파트너님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목표한 바를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용석
-
이지현

경기 광명시

암웨이는 25년 전 부모님 소개로 처음 접했습니다. 미국 유학 중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거기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전업으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을 달성하며 성취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스폰서님이자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좌우명은 “젊은 리더답게 신나는 암웨이를 하자!”입니다. 앞으로 신나고 즐겁게 사업을 진행해 2019년 암웨이 60주년 라스베이거스 행사에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는 암웨이 2세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은영
-
류정환

충남 천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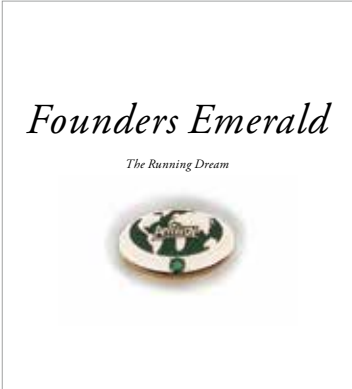
먼저 강력한 시스템 만들어준 스폰서님과 사랑스러운 파트너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에메랄드를 3년째 하고 있었기에 이번엔 핀업하지 않으면 파트너님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님들에게 성장하는 리더의 모습을 기필코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했고, 그 결과 이런 큰 기쁨을 얻은 것 같습니다. 또 꾸준해야말로 능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꾸준히 해온 것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준 듯합니다. 이제 2019년도 라스베이거스 행사에 모든 파트너님을 데려가는 것이 저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직접 가서 파트너님들에게 암웨이의 큰 기업 정신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집중함으로써 저 혼자 누리는 삶이 아니라 파트너와 동반 성장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진선자
-
권성택

경기 시흥시

핀을 성취했다는 기쁨보다 파트너님들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4년. 비록 더디게 성장했지만 저를 믿고 응원해준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이 함께하기에 행복합니다. 평범한 저에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창업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칭찬과 격려로 여기까지 이끌어준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 항상 제 앞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외조를 아끼지 않는 남편과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늘 배우며 인내하고 변화하는 리더가 될 것이며, 암웨이 사업 최고의 가치인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최유심

부산 금정구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 모두 경제적 자유로움이 생기면 삶을 한층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신념', '사랑', '진심', '나눔' 이 네 가지 단어를 가슴 깊이 새기며 열심히 사업에 집중해왔습니다. 바쁜 저를 위해 살림을 도맡아 해주고 아이 역시 잘 키워준 친정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진심을 다하고 싶습니다.



황경운

-

정동원

경기 수원시

파운더스 플래티늄 핀을 성취함으로써 나만의 기쁨이 컸다면, 파운더스 에머랄드 핀을 달성을 통해 부모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사업에 헛걸음과 헛수고는 절대 없습니다.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겸손과 배려 그리고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만 잊지 않으면 성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 역시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의 '일체유심조'를 가슴에 새기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스템 속에서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항상 리더의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저의 영원한 등대 같은 스폰서님 그리고 사랑하는 파트너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Emerald



2015년 7월 1일부



김태경

경남 김해시

올해 세운 목표를 성취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성취의 기쁨도 잠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이 남은 것 같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 핀에 도전할 계획인데,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암웨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 안에서 제 자신을 최대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했고 그 열매를 맺은 듯합니다. 일에 관해 상담해줄 때마다 부정적 의견이나 말보다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준 스폰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준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함께할 남편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희

-
동용

서울 금천구

매해 목표한 것을 하나씩 이루다 보니 에메랄드 핀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4년 전 한국에 처음 터를 잡으며 우연한 기회로 만난 암웨이 사업은 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하면서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경제적 부분은 물론 사업을 하면 할수록 곁에 좋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가슴에 품은 채 암웨이를 통해 성공을 생각하고 일해왔습니다. 저에게 이런 환경을 마련해주고 항상 제가 갈 길을 제시해준 스폰서님에게, 그리고 제가 암웨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현

경기 수원시

늘 에메랄드 핀을 꿈꿔왔지만 막상 성취하고 나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기쁩니다. 무엇보다 파트너님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도전하는 것만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메랄드에 도전하며 제 안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잘 극복해나가면 다이아몬드로 가는 기초가 되는 시간일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안겨준 그룹 시스템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의 저의 모습은 또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아직 미약하지만 파트너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다이아몬드 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숙

경남 김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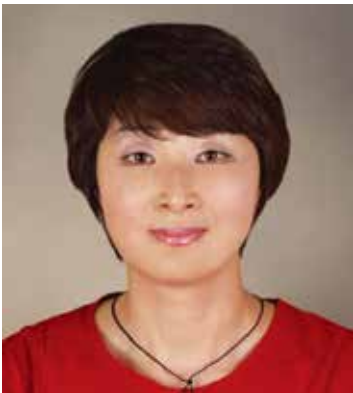
사랑하는 파트너들과 함께한 도전이라 두 배로 기쁩니다. 이번 에메랄드 편을 성취하면서 '감사'가 될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 '리더십'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인식하는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시스템대로 했기에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꿈도 없던 저에게 기회를 준 사랑하는 스폰서님과 저를 믿어준 파트너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에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2017년에는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기 위해 또 열심히 쉬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안재진

부산 강서구

작년에 사파이어, 올해에 에메랄드 이렇게 매년 한 단계씩 꾸준히 편입을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정한 목표를 꼭 이뤄내기 위해 그 목표에만 집중했습니다.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시스템이 안내하는 대로만 묵묵히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만난 순간부터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회를 준 스폰서님에게 감사합니다. 암웨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성취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저를 믿고 따라와준 파트너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 다이아몬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암웨이 60주년 라스베이거스 행사에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장삼목

- 박영준

부산 사하구

끈기의 승리를 보여준 제 자신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웨이를 만나기 전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미래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그저 불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암웨이 사업은 미래는 물론, 현재도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자는 생각을 갖고 사업에 임했습니다. 남을 따라가지 말고 오로지 나답게, 내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인생이고 자산입니다. 제가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항상 든든하게 지켜준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정지은
-
오준석

경남 진주시

지금껏 파트너님들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도전하지 않으면 파트너님들의 성장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해내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 도전하면서 힘든 것보다 더 컸습니다. 실패보다 성공만 가슴 깊이 새기고 도전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갈 곳에 먼저 가서 저의 작은 그릇을 크게 키워준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리더, 저의 욕심이 아닌 정말 팀원들의 성장을 위해 발벗고 뛰는 리더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매진하겠습니다.



최미현
-
석병섭

경북 구미시

사실 저는 꿈이 작았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세운 목표는 바로 파운더스 플래티늄입니다. 세 번째 파트너가 나오면서 파트너의 도전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말만 하는 스폰서가 아닌 보여주는 스폰서였기에 이번 에메랄드 핀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시스템대로 그저 앞만 보고 간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흔들린 적도 있지만, 바로 그때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의 힘든 현실이 더욱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성공한 것 같은 그림은 없었지만 열심히 뛰 그 하루하루가 축적돼 제가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를 믿어준 소비자분, 함께 뛰어준 파트너님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용기를 준 스폰서님 모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많은 분에게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계속 전해주면서 다음 다이아몬드 목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표남병
-
박정희

경남 김해시

다이아몬드로 향하는 과정에 또 하나의 핀을 성취해 기쁘고, 스스로에게 또 한 번 동기 부여가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압웨이 사업을 시작하고 8년 만에 이룬 도전입니다. 파트너님들도 목표한 것이 있었고, 저 또한 꼭 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핀에 도전하면서 힘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싶었기에 그저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저에게는 무척 소중한기에 그분들과의 신뢰를 깨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감동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스폰서님과 파트너님에게 감사합니다. 저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이아몬드를 향해 열심히 달려겠습니다.



한은정

서울 용산구

이번에 에메랄드 핀을 달성하고 나서 '진짜 되는구나!'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되는구나!'를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해야겠다, 그리고 반드시 여행을 같이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은 누가 대신 뛰어줘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내면 되는 사업이기에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은 꼭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답은 이거밖에 없으니 그냥 하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믿어준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 그리고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암웨이 60주년 라스베이거스 행사에 꼭 참여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핀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혜임

- 박영진

부산 부산진구

저뿐 아니라 많은 분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준 파트너님, 그 고마운 분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사명감에 에메랄드 핀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의 주치의이던 스폰서님, 세상과의 소통이 안 되던 그 시절에 세상을 보는 눈과 지혜를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사업에 몰두할 수 있게 도움을 준 부모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랑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편업하지 못한 파트너님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네트워크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파트너님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해 2019년 라스베이거스에 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2015년 8월 1일부



강부순

- 김행숙

경남 창원시

저에게는 '성장의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해내는 결과물은 똑같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핀에 도전하면서 저보다는 파트너들의 성장이 첫 번째였습니다. 파트너들을 위해 에메랄드 핀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는 결과물이나 과정에 타협하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전진했습니다. 저를 선택해준 스폰서님, 결과의 믿음보다 과정의 믿음을 따라와준 파트너님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목표는 2016년 8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두바이 미팅에는 새 파트너들과, 암웨이 60주년 행사인 라스베이거스에도 6명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파트너들과 꼭 함께 가겠습니다.



강혜정
-
허상운

경남 진주시

에메랄드 핀 성취는 저에게 새로운 동기부여와 출발을 의미하는 감사한 편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평범한 주부 마인드에서 직장인 마인드로 그리고 사업가 마인드까지 지닌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성공이 있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이 거쳤지만 정확한 원본이 되어준 스폰서님의 믿음과 방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정하면 실행해지는 사업에, 순도 200%인 스폰서님의 믿음과 저보다 강한 목표 의식을 지닌 파트너님들과의 따뜻한 팀워크가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스폰서님에게 감사하며, 파트너님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스폰서가 되기 위해 다음 다이아몬드 핀도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곽수경
-
오승택

경기 고양시

파트너님들에 대한 책임감도 컸고, 독립하면서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이번 에메랄드 핀에 도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저를 움직이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리더님의 성품이 정직, 성실, 근면이었던 만큼 저 역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시스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사고하고 제가 그 시스템이 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파트너 리더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과 파트너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성공의 기쁨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다이아몬드에 도전할 것입니다. 2019년 라스베이거스 행사에는 수석 다이아몬드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미향
-
주성한

강원 동해시

미국에 살고 있는 분이 6시간을 이동하며 후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장거리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서울로 자주 이동하는데, 장거리가 힘든 만큼 많은 리더와 만났고, 다이아몬드라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에메랄드 핀은 다이아몬드에 도전하며 자연스럽게 성취한 핀이자 다이아몬드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거리를 후원하며 생각을 키운 것이 이번 도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더불어 파트너님들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스폰서님과 제가 장거리를 뛰면서 움직일 때 각자의 몫을 충실히 해준 파트너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분들이 보석 핀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며, 2019년 애플워치 행사에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자격으로 가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김연옥
-
최광희

충남 보령시

성취의 기쁨보다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준 파트너님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네트워크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에메랄드 핀에 도전했습니다. 힘들 때도 좋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루하루 일에 집중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기 위해 알아보다가 우연히 접한 암웨이 사업. 저에게는 암웨이 사업이 희망이자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길을 알려준 스폰서님 그리고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가고 있는 파트너님들, 저를 믿고 물건을 써준 소비자와 가족 모두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또 열심히 목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유경
-
김형남

경기 안양시

암웨이 사업을 시작하고 10년 만에 에메랄드 핀을 성취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10년을 해야 알 수 있다는 믿음 덕분에 오랜 시간이었음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먼저 도전해야 파트너들도 도전할 수 있기에 앞장서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다고, 능력이 있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저의 오랜 고객에게 감사하며,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에메랄드 핀을 성취했듯 핀업을 하고자 하는 파트너님들과 같이 열심히 뛰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내년 목표입니다. 앞으로 능력 있는 리더보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
-
조철형

경기 남양주시

에메랄드 핀을 달성했다는 것이 아직 현실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저 새롭게 리셋된 기분입니다. 4년 소비자 생활을 하고 4년간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난이 없어질 수 있는 순간이 이것이라면, 무조건 해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할머니가 되어도 암웨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비전이었습니다. 처음 암웨이를 알려준 스폰서님, 제가 가야 할 길을 직접 보여주고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도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해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뿐이지만, 제가 그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년에도 쉬지 않고 다이아몬드 핀에 도전할 것입니다.



김효경
-
황태영

대전 유성구

많은 사람에게 좋은 제품을 알리고 빨리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20대 후반부터 압웨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도전을 통해 에메랄드가 아닌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세운 건 제 인생의 숙제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들의 빠른 동반 성장을 위해서기도 했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듯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섬김의 리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폰서님에게 감사하며, 많은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은 양가 부모님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믿음직스럽고 멋있는 장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0주년 라스베이거스 행사 때는 수석 다이아몬드로 입성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류지민

서울 서초구

다른 사람들보다 압웨이의 가치나 비전을 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었기에 빠르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거절이 많을수록 성공이 가까워진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거절이 적은 게 문제지, 거절이 많으면 성공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제겐 큰 힘이 됐습니다. 나이가 어리기에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배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폰서님 말씀 듣고 미팅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시스템대로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폰서님과 어린 나이임에도 저를 믿어준 파트너님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파트너들이 저를 믿고 의지한 덕분에 더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기본을 지키며 꾸준히 제 갈 길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린 친구들에게도 압웨이 사업의 비전을 더 널리 알리고 싶은 게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송아리

서울 노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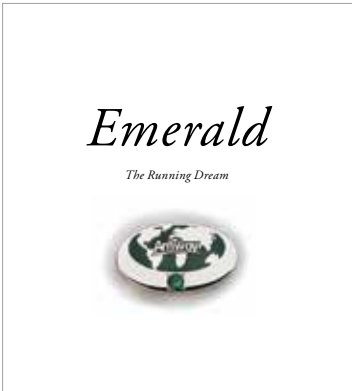
에메랄드 핀업은 압웨이 사업을 시작하고 7년 만에 이룬 성취라 더욱 뜻깊지만, 이 또한 다이아몬드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스폰서님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기에 그 길을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야 저희 파트너들도 함께 가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늘 스폰서님과 상담하는 일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항상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스폰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가야 할 방향 설정을 잘 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으니까요. 저도 파트너들에게 스폰서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편하고 친한 관계지만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심정수

경기 안산시

혼자 이룬 성취가 아니라 파트너님들과 같이 성장했다는 점에서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먼저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반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암웨이를 보고 저 역시 그 비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성취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니 정말 암담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듯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한 것처럼 저희 부부에게 너무 소중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꾸준히 사업을 이끌어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파트너님들도 보석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꿈과 희망이 되는 리더가 되기 위해, 그분들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은연

-
신재명

경기 광주시

먼저 에메랄드 핀 달성으로 리더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암웨이를 만난 지난 3년 반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희망 없이 살던 저에게 도전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준 암웨이에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글로벌 암웨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 많은 젊은이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저 또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외치겠습니다. 불굴의 개척 정신! 고 프리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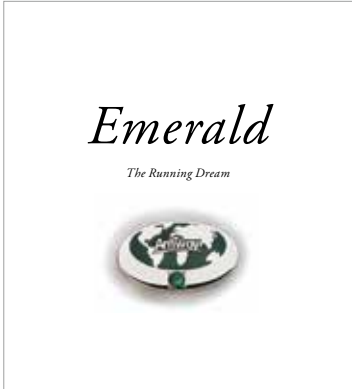


오윤정

-
김숙문

경기 시흥시

스폰서님과 지속적으로 만나 이어간 암웨이가 우리 가정에 이토록 축복된 삶을 안겨줄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의 노후와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부모님에게 좋은 자식이 되고 싶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정확히 알고 난 후 자아 실현과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일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남은 인생을 걸고 더욱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만족’이라는 말보다 ‘도전’이라는 단어를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님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며 다이아몬드를 향해 더욱 멋지게 비상하겠습니다.



원영숙
-
신성우

대구 수성구

스폰서님의 성장이 저와 파트너님들의 성장과 직결되기에 단단한 팀워크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 이렇게 에메랄드 핀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메랄드로 가겠다는 결정이 이번 핀 달성의 성취를 이뤄준 듯합니다. 그 길에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모두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힘든 일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의 능력으로 잘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시스템의 힘이 좌우하기에 그저 그대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 리더님 그리고 모든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다이아몬드에도 도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스템의 힘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기에 정말 무너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경은
-
민봉기

경남 김해시

이번 에메랄드 핀 달성은 다이아몬드 핀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핀에 도전하며 제 성공보다 파트너님들의 목표에 더 많이 집중했고, 파트너님들이 성공하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갈 방향을 정해주고 성취보다 나눔의 목표를 알게 해준 스폰서님과 오랜 시간 함께해준 파트너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용기를 더 많이 내서 많은 어려움도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강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이숙자
-
심송용

충남 아산시

자영업에 한계를 느끼던 중 후배에게서 암웨이 사업을 소개받았습니다. 스펙이라고는 가난밖에 없었고 아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당연한 건 없다', '공짜는 절대 없다', '무엇이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10여 년에 걸쳐 해온 자기계발은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에메랄드 핀에 도전하며 팀워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은 물론 함께하는 리더들 그리고 소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
-
전국삼

경북 경주시

함께 도전하고 응원해준 스폰서님에게 가장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해준 파트너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소중한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더욱 잘하겠습니다. 아들 셋 낳고 정신없이 보내고 있을 즈음 스폰서님을 만났고,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이룬 성취입니다. 그저 '될 때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암웨이는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무한한 잠재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다이아몬드에 도전해 파트너님들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리더가 될 것이며, 2019년에는 파트너님들과 함께 라스베이거스에 꼭 동행하도록 전진하겠습니다.



임기화
-
최병일

경남 밀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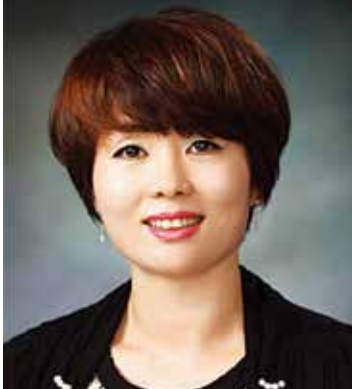
살면서 늘 뭔가 2%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으로 고민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고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언니가 하고 있는 암웨이 사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 이 사업의 씨앗을 전해준 모든 스폰서님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 부딪치는 어떠한 걸림돌도 꿈과 목표가 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에메랄드 핀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파트너님들의 편업을 위해 또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스폰서님과 파트너님, 모두 사랑합니다.



정윤숙

경기 성남시

암웨이 사업을 하면서 "함께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암웨이를 좋아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의 성장을 도와주면 그는 물론 나 역시 보상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언제나 저를 최고로 믿어준 스폰서님과 동고동락하는 파트너님 그리고 소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스폰서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파트너님들에게는 책임을 다하며,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목표는 '절대 여행 혼자 가지 않기입니다. 여행은 꼭 모든 파트너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제영순
-
유봉호

전북 전주시

이번에 파운더스 사파이어와 에메랄드를 모두 함께 성취했습니다. 제 좌우명이 “진실은 통한다”입니다. 무엇이든 정직하게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이끄는 대로 노력하니 이런 성취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그룹에 리더가 될 수 있게 멘토가 되어준 스폰서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끌어주는 대로 열심히 하면 시행착오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다이아몬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도 파트너님들과 함께 가는 것이 꿈입니다.



최재숙
-
박종수

충남 서산시

처음 암웨이 사업을 접했을 때 ‘꾸준히만 한다면 내게도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 올 수 있겠다’라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 설렘 덕분에 지치고 힘들 때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저와 함께 꿈꾸고 힘을 모아준 파트너님들과의 팀워크가 아니었다면 성취할 수 없는 편입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제는 제 꿈을 향한 발걸음보다 파트너님들의 꿈을 위해 더욱 집중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며 함께 동반 성장하는 멋진 2016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함께이기에 해낼 수 있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인도하며 한 걸음씩 성장해가는 멋진 리더가 되었습니다.



황은옥
-
이재성

대전 유성구

기쁘기도 하지만 책임감이 더 큼니다. 내가 도전해야 파트너님들이 성장할 수 있기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어도 그때마다 3년은 버티자고 생각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지나니 여행도 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신명 나서 일했습니다. 가장 먼저 항상 다독겨려주고 용기를 준 스폰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아니었다면 성공하지 못한 도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와준 파트너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파트너들의 편임을 위해 쉬지 않고 뛰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



김은희
-
김영준

경기 의정부시

우선 멀리 있으면서도 항상 배움의 기회를 준 스폰서님과 압웨이를 통해 저와 꿈을 공유하고 있는 파트너님 그리고 소비자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이 사업이 세상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압웨이 비즈니스는 배움과 복제를 토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타인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소중한 가치를 가져다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사랑하는 파트너들과 자유, 가족의 행복, 희망, 보상을 함께하고 실천하는 사업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선미

경기 부천시

압웨이는 저 같은 청각장애인에게도 성공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지만, 외적 성장보다 내적으로 많이 성숙해지면서 파트너십도 강하게 자리 잡았고 저를 믿고 따라와준 파트너님들과의 신뢰 또한 더욱 깊게 쌓였습니다. 언어 전달에 어려움이 많은 청각장애인 파트너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스폰서님에게, 그리고 격려와 응원을 함께해준 동료 리더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무대에 서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강연경
-
유귀중

경기 하남시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압웨이를 접했을 때 '상속'이라는 두 글자가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때부터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라는 말을 항상 가슴속에 되새기며 겸손한 자세로 사업을 운영해오다 보니 이렇게 좋은 일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알려주고 걸음마를 거쳐 될 수 있게 도와준 스폰서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늘리는 삶이 아닌, 누리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의 스피드가 팀의 스피드라 생각하며, 파트너님들과 함께 자유인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파이팅하겠습니다.



강정민
-
안영섭

서울 영등포구

에메랄드는 사실 과정 중의 일부라고 여겼는데, 막상 달성하고 나자 생각보다 더 기쁘고 그만큼 책임감도 크게 느낍니다. 인정과 보상을 받으니까 더 높은 편을 빨리 성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받는 보상을 파트너들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쉬지 않고 성장한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스폰서님이 미국 헤리티지 여행을 다녀오면서 받은 동기부여로, 저희도 에메랄드라는 편을 목표로 삼아 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사파이어까지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는 스폰서님의 말을 듣고 꼭 될 거라 믿고 뚝 것이 성취 비결인 듯합니다. 저희에게 목표를 준 스폰서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믿고 따라와준 파트너님들도 고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쉬지 않고 성장할 것입니다. 2016년에는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2019년에는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를 달성해 라스베이거스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강정아
-
김현규

서울 용산구

이번 성공으로 책임감이 더욱 커진 만큼 더 열심히 뚝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신 스폰서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딸, 아내, 엄마가 된 것 같아 무척 뿌듯합니다. 파트너님들의 간절함이 저를 움직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많은 분에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따뜻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올해 다이아몬드 편을 꼭 성취해 파트너분들과 두바이 부부 여행을 꼭 함께 갈 것입니다.



권미정
-
서경범

경북 구미시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이아몬드를 위한 시작점이 된 것 같아 설레기도 합니다. 작년 회계연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에메랄드 편을 달성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서 계속 그 꿈이 이루어지는 상상을 했기에 저의 마음은 그때 이미 에메랄드였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역지사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가훈이기도 하고 이 사업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일인 만큼 늘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문턱을 넘어야 하는 시점에서 손 잡아주고 격려해준 스폰서님과 파트너님 그리고 소비자분, 함께하는 모든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세운 첫 번째 목표인 다이아몬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은숙
-
박성식

경남 진주시

제가 에메랄드 편에 왔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신기합니다. 암웨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뭔가 대안이 필요했을 때 선물처럼 찾아와주었습니다. 더구나 무자본, 무경험인 저 같은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지요. 항상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스폰서님과 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파트너님들에게 가슴 깊이 감사합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도 꼭 한 번 더 편입해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쉬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끊임없이 발전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광주 서구

신랑의 소개로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할 수 있는 데다 인세 수입이 된다는 암웨이 사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업 후 2년 동안 열심히 미팅을 다니면서 시간을 적금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4년 3개월이라는 시간 적금을 든 후 드디어 에메랄드가 되었고, 이제와 보니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이런 멋진 보상을 받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파트너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품고 함께 잘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스폰서님이 보여준 '섬기는 리더십'으로 꼭 파트너님들과 함께 평생 여행을 다니겠습니다. 스폰서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고 다이아몬드!"



김새별
-
최영주

경기 남양주시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스폰서님의 사랑, 함께해준 파트너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미팅장을 다니면서 건강해지는 법, 건강한 요리를 배우는 법, 예뻐지는 법,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 등을 배우며 지금껏 잊고 지내던 꿈을 하나하나 다시 찾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현재 나의 선택이 5년 후 나의 모습이다!"라는 말을 마음을 새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현재보다 미래의 나를 보며 기특하다고 할 수 있는 선택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더욱더 배우고 노력해 많은 사람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김인숙
-
김정환

경남 창원시

결혼 후 13년간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상샘암을 진단받았습니다. 힘든 암 수술 후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났고, 암웨이 사업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뉴트리라이트로 건강을 되찾으면서 더 큰 믿음이 생겼고, 그 힘으로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세운 목표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매 순간 긍정적인 자세와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결같이 믿어준 스폰서님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편입을 하리라 마음먹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매년 편입'과 '매년 여행'을 원칙으로 삼아 이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며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김지영
-
박진석

경남 창원시

작년 회계연도 초에 계획한 일보다 더 큰 성취여서 기쁨이 두 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취해낸다'는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보냈습니다. 저만의 능력으로 성취한 편이 아니라 100% 스폰서님의 상담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공이었습니다.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나 자신과 파트너님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항상 바른 길로 지도해주고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준 스폰서님과 리더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올해는 다이아몬드 핀도 꼭 이뤄내겠습니다.



김진아
-
이상돈

경기 안양시

보석 같은 파트너님들과 함께 즐겁게 성장해나가는 것,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 또 먼저 이 길을 지나간 스폰서님들의 눈높이를 맞추며 팀워크를 다져나가는 것, 이 모든 일이 나의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수많은 시도와 실수, 실패를 경험한 우리 부부 스스로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늘 가까이에서 함께한 가족 같은 스폰서님의 조언과 무엇보다 저희 부부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김태영
-
안승현

경북 포항시

도전하지 않으면 정체되기에 더 큰 목표와 도전에 앞서 한 단계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편입되면서 한 가지를 더 배운 느낌입니다. 저를 찾아주고 항상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준 스폰서님과 교육 시스템이 좋았기에 가능한 성공이라는 점입니다. '탁월한 리더가 되자', '배운 것을 나누는 사명인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사업을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 소비자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다이아몬드 편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멋진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김희영
-
안진

인천 연수구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을 얻어 정말 기쁩니다. 또 이 모든 것이 파트너님과 함께한 성취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믿음의 크기만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번 편 달성으로 증명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아이를 바치는 양가 부모님 그리고 끝까지 믿어준 스폰서님, 부족하지만 팀워크로 따라와준 파트너 리더님들, 응원해준 형제 레그와 소비자분에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암웨이 본사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목표인 다이아몬드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파트너들과 함께 두바이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규석
-
박지혜

대구 동구

암웨이를 만나기 전 저 또한 남들처럼 잘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큰돈 들어 시작한 자영업, 끝이 정해져 있는 직장 생활 등을 거쳐 마지막 선택한 것이 바로 암웨이였습니다.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매일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앞으로는 '시종일관'을 좌우명으로 삼아 열정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행동하며 앞장서서 달리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스폰서의 목표와 외침에 주저 없이 응해준 파트너님들 그리고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해준 스폰서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스쳐가는 수많은 점 중에 이제 한 지점을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다음 편에 도전하겠습니다. "Go Diamond!"



박종복
-
원현숙

대전 유성구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암웨이를 만나 비전을 보았고, 암웨이가 우리 가정에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감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스폰서님과 시스템이 안내해주는 대로 따라 하다 보니 이렇게 에메랄드 핀까지 성취한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제 인생의 은인인 스폰서님 그리고 믿고 함께 이뤄내준 파트너 리더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암웨이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소중한 친구를 얻은 데다, 능력 있는 부모와 멋진 아내 그리고 든직한 자식이 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박지영
-
허윤석

경기 수원시

더 큰 핀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기에 꼭 해내고 싶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손님으로 만난 분에게 암웨이 사업을 전달받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에메랄드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올바르게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님과 한 방향을 맞추려 했기에 핀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6년에는 다이아몬드, 2017년에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에 도전해 기필코 핀업을 이뤄내겠습니다.



박지은

경남 거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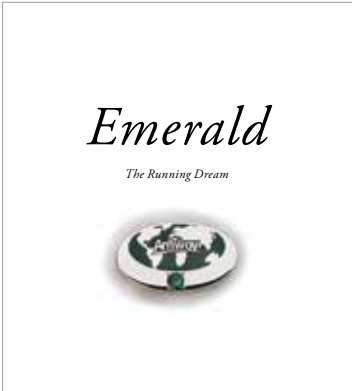
파트너님들과 함께 단단한 팀워크로 열심히 뛰어보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뤄진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첫째 아이에게도 엄마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여유롭게 삶을 즐기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함께하는 이도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스폰서님과 같이 도전해준 파트너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평 한마디 없이 외조해주는 남편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계속 핀업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들과 두바이 여행을 함께 가서 맘껏 즐기고 싶습니다.



백형규
-
박용자

서울 송파구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겠다 생각했고 그 어느 해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올바르게 떳떳한 '정도 경영', 가치 있는 '윤리 경영' 그리고 '상호 존중' 이 세 가치를 신념처럼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에게 본받고 싶은 롤모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적 부분 때문에 시작한 암웨이 사업이지만, 진행하다 보니 나와 가족,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비자, 스폰서님, 파트너님 등 제가 암웨이를 알린 모든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다이아몬드 핀으로 마무리할 것이며, 매년 제 자신에게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여줄 것입니다.



소미란
-
이승규

경기 용인시

이번 성공은 파트너들과 같이한, 그리고 최대한 빨리 성장하고 싶어 스폰서님을 그대로 카피한 결과입니다. 스폰서님처럼 파트너님들을 도와주었더니 스스로 핀업이 되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암웨이 사업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 사업은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핀업할 것이며, 파트너들이 경제적·시간적으로 자유로운 그날까지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송명숙
-
윤형식

경기 용인시

한없이 기분 좋기도 하지만, 그보다 고마운 분이 많아지고 감사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리더로서 책임감도 더욱 커지고요. 마흔 살까지 전업주부로 살다 여동생한테 암웨이를 전달받고 아이들 학원비 정도만 벌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 핀 한 핀 꾸준히 달성하다 보니 에메랄드까지 왔습니다. 스폰서님과 파트너님에게 이제는 다이아몬드 핀으로 함께 동반 성장, 폭풍 성장하는 모습으로 정상에서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희망이 있기에 이 사업이 행복했고, 희망 덕분에 열정이 식지 않아 '열정 우먼'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민경
-
이규호

서울 영등포구

어릴 적 배운 피아노 선생님께 암웨이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비전을 확인했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핀업 달성은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서 해내는 것이 진짜 목표다”라고 조언해준 스폰서님의 말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반드시 해내리라 마음먹었고 마침내 성취해냈습니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늘 배우며 앞으로 꾸준히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저의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멋진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강한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성공입니다. 이제 3조 이상의 파트너와 2019년에 라스베이거스에 초청받아 가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연
-
박근홍

서울 강서구

이번 도전을 하면서 집중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암웨이 사업의 중심에는 항상 나란 존재가 있음을, 나로 인해 모든 것이 결정되니 신중히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믿고 실천해왔습니다. 이번 핀은 저를 지원해주는 가족과 파트너님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도전했고, 그 도전 속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힘들 때마다 돌봐준 친정 어머니, 항상 기도해준 스폰서님에게 감사합니다. “Back to the Basic!”이란 말처럼 암웨이로 가슴이 설레던 그 시작으로 돌아가 처음처럼 다시 달리겠습니다. “Go Dia! Go Las Vegas!”



이용복
-
서성민

경기 수원시

암웨이 사업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한 저에게 스폰서님은 항상 “실패와 실패자는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도전할 때 실패의 경험이 실력이 된다”는 말을 믿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도전했습니다.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포기할 자신은 더욱 없었습니다. 좋은 스폰서님과 시스템의 힘으로 지금의 파트너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에메랄드 핀은 저만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 그룹 모두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손잡아준 스폰서님과 믿고 따라와준 파트너님들에게 감사하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장해정
-
이동용

대구 북구

암웨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제대로 해야 한다는 스폰서님의 가르침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만난 저희 부부를 늘 믿어주고 격려해준 스폰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를 믿고 함께해준 파트너 리더님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파트너 리더님과 함께 두바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Go Diamond! Go Las Vegas!"



전문희

경기 용인시

바라던 에메랄드 핀을 달성하고 나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더욱이 파트너와 함께 동반 성장했기에 기쁨도 두 배인 듯합니다. 수학 학원을 운영하던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비전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업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늘 곁에 있는 스폰서님과 사랑하는 파트너님들과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향해 더욱더 전진하겠습니다.



정숙이
-
방한식

울산 남구

무엇보다 파트너와 함께하는 편이기에 그 어떤 편보다 기쁘고 행복한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의 현실은 시간의 자유도, 재정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계를 느낄 때 암웨이를 만났고, 13년 만에 에메랄드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을 지나오며 스폰서가 떠나가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제가 더욱 잘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흔들리지 않는 스폰서가 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스폰서님 그리고 부족하지만 함께해준 파트너님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멋진 팀을 만들어 함께 성공하고 싶습니다. 스폰서님이 보여준 것처럼 시스템과 나 자신을 믿으며 다이아몬드 핀도 반드시 성취하겠습니다.



조순자
-
정한진

전남 순천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 눌러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이대로 가다간 나도 남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에 머리로만 고민하던 암웨이를 제대로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실이 핀 달성이라는 성과로 돌아와 무척 기쁩니다. 무엇보다 목표를 세우고 해낸 제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뒤따라오는 파트너님들에게 '하면 된다'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어 더욱 뜻깊고 값진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거리를 오랫동안 힘들다는 말없이 후원해준 스폰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뛰어준 파트너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파트너님들과 함께 '멈추는 물은 썩는다'라는 생각으로 매년 편을 바꾸고, 계속 흐르는 물이 되도록 신나게 도전하겠습니다.



조주익
-
박미숙

전남 순천시

에메랄드에 도전하면서 상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한 꿈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엄마, 아이의 꿈을 꺾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스폰서님의 큰 가르침과 사랑 덕분입니다. 따뜻한 팀 안에 있었기에, 저를 믿고 함께해준 파트너님들과 하나가 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암웨이의 큰 가치와 비전을 가슴으로 전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프리덤!



최옥정
-
정상우

대전 유성구

에메랄드 핀 성취는 저에게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 앞으로 이 사업을 한층 더 집중해야겠다는 다짐, 그리고 더 높은 편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팀의 리더가 방향을 잡고 그 길로 갈 때 파트너님들이 힘을 실어줘야 좀 더 큰 성장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색깔이 아니라 한목소리로 단단한 팀워크를 보여준 파트너님,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앞장서서 그대로 보여준 스폰서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준 파트너들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효순

강원 강릉시

저는 손에 습진이, 아이는 아토피가 심해 암웨이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제품을 쓰다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10년 만에 드디어 에메랄드 핀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듣자'라는 생각으로 시스템과 스폰서님의 말에 기준을 두고 사업을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반드시 핀업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기에 가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늘 믿어주고 응원해준 스폰서님과 함께 해준 파트너들, 가족에게 모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허채목

- 백동조

경남 김해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 될 것 같은 일이 매일 하루하루 쌓여서 되는 일이 된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오늘은 실패하고 안 된 것 같지만 작은 도전과 실패가 성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의 실패로 절대 좌절하지 않기', '열정을 잃지 않기'를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스폰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석 핀은 절대 혼자 갈 수 없는 핀이기에 저희와 함께 성장을 약속한 파트너님 그리고 아이를 돌봐주는 부모님,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황은주

- 전재호

부산 남구

암웨이 사업은 불품없이 포장해놓은 행운의 선물 상자처럼, 열어보지 않으면 내용물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포장된 박스 겉면만 보고 이 일을 판단하지만 저희 부부는 조금 호기심을 갖고 박스를 열어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아주 작은 호기심과 갖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성실하게 배울 자세만 있다면 모두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과 접했던 일 모두가 우리의 성공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잊지 않고 또다시 도전을 시작합니다. 큰 목표를 세우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 알고 있기에 스폰서님과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매일 도전해 새로운 핀으로 거듭 성장하겠습니다.

Founders Sapphire



September

2015년 9월 1일부



문은영 & 박기홍
경남 진주시



박영희 & 이성오
경기 시흥시



박영희 & 최찬식
울산 중구



심규홍 & 김옥수
경기 화성시



이상원 & 강은희
대전 중구



이영숙 & 반상진
경북 포항시

누군가 오래전 나무 한 그루를 심은 덕분에
다른 누군가 오늘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것이다.

- 워런 버핏 -



정윤미 & 최한옥
경남 창원시



정재연
대전 유성구



정창기 & 김현옥
전북 전주시



조은숙
서울 마포구



채정희 & 안태진
대전 유성구



황성경 & 하상철
경남 김해시

용기란 일어나서 말할 때뿐 아니라 앉아서
듣고 있을 때도 필요하다.

- 리처드 브랜슨 -

Founders Sapphire

2015년 9월 1일부

강혜경 & 이정익 서울 강서구

김순조 경북 구미시

김혜숙 & 김종국 서울 노원구

도정민 경기 수원시

박물선 & 강효준 울산 북구

심태형 & 박연정 경기 용인시

안효주 & 구지훈 경남 창원시

원옥상 & 제갈옥 대구 수성구

이서현 & 한효석 부산 북구

이희선 & 이정선 대전 서구

정민애 & 김인홍 경기 남양주시

최규용 & 김수정 충남 공주시

최주혜 & 최실환 경기 안산시

홍순영 & 황준규 대구 달서구

황병건 대구 달서구

Sapphire



July

2015년 7월 1일부



강혜정 & 허상운
경남 진주시



김선미 & 정지윤
충북 청주시



김양희 & 송창현
대전 대덕구



손정희 & 이형일
경기 안양시



오지현 & 구자현
충북 청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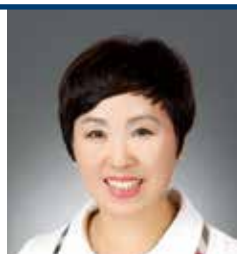
이국희 & 이제균
경기 파주시



이수진 & 윤영철
대구 달서구



이순호 & 이병재
충남 보령시



이명화 & 서진조
울산 중구



이은정 & 김진국
경남 양산시



전은영 & 정창원
대구 중구



정미리 & 최경오
충북 청주시



한경혜 & 임성규
대구 북구



허혜경 & 전해진
부산 해운대구

August

2015년 8월 1일부



강지영 & 이상훈
부산 금정구



김정숙 & 현준호
대구 북구



김태희 & 이승민
경기 시흥시



박진숙 & 최태선
서울 용산구



신순영 & 신지승
경기 화성시



원미자 & 김규상
강원 원주시



윤혜경
경기 군포시



이상희
경남 김해시



이양순 & 김동호
제주 제주시



이주영
경남 진해시



태주현 & 김문정
대전 중구

September

2015년 9월 1일부



김경순 & 장광선
경기 안산시



김연옥 & 이계환
광주 서구



박소영 & 최복배
경남 거제시



이막심 & 이부문
경남 남해군



이선형 & 정진아
서울 성북구



이현주
서울 동작구



조상훈 & 장성덕
경기 안산시



조연숙 & 강정훈
경기 양평군



최상홍 & 정은주
경북 영천시



최영희 & 김재우
울산 중구



최우정 & 정순호
울산 남구

남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에 도전하라. 남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을 꾀라.

- 하워드 슬츠 -

2015년 7월 1일부

- 공미선 & 백경웅 서울 영등포구
- 김명숙 & 김제수 경기 부천시
- 김태희 & 조철형 서울 서초구
- 박규석 & 박지혜 대구 동구
- 박기락 경기 성남시
- 박민 경남 진주시
- 송연숙 & 신상환 광주 광산구
- 안난하 대구 수성구
- 윤희주 & 김병현 대전 서구
- 이유진 & 장중용 서울 도봉구

- 이형호 & 허명우 서울 강남구
- 정지영 & 변인재 경기 용인시

2015년 8월 1일부

- 강정아 & 김현규 서울 용산구
- 김서희 경남 김해시
- 나희진 전북 군산시
- 박선화 & 강창수 경북 구미시
- 박용희 & 김경태 경남 창원시
- 박주은 & 박해선 대전 서구
- 박호정 경북 경산시

- 양정희 전남 무안군
- 이동효 경기 부천시
- 이용복 & 서성민 경기 수원시
- 조수봉 & 경지수 대전 동구

2015년 9월 1일부

- 강진출 & 박영선 경남 고성군
- 김경자 & 박정원 광주 서구
- 김성자 & 정민제 서울 서초구
- 김정례 & 김성득 부산 사하구
- 박기순 & 김석남 강원 춘천시

- 석명주 & 임병인 경북 구미시
- 성미숙 & 한대현 경남 창원시
- 이정인 전북 전주시
- 이화진 & 이상재 서울 관악구
- 임진희 인천 연수구
- 전현정 & 배형철 광주 서구
- 조선화 경북 경주시
- 조연옥 & 박영찬 경남 진주시

Founders Platinum



September

2015년 9월 1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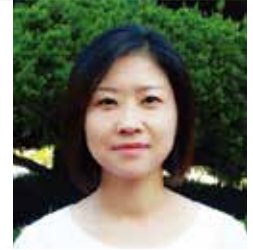
강명숙* 차원국
충남 당진시



강소영* 김현수
경기 광주시



강진희
경기 용인시



강현숙
경남 김해시



고가연
경기 군포시



고은주* 김성철
경기 안산시



곽은영* 이지형
대구 달성군



구경옥* 이정일
경기 평택시



구나영* 한경수
경남 진주시



구선화* 김종명
충남 당진시



구정임* 이말용
부산 북구



권은혜* 황영민
경기 김포시



김경남^{*}배정훈
부산 북구



김경아
경기 고양시



김경화
경기 용인시



김경희^{*}이상훈
서울 관악구



김귀숙^{*}손병호
대구 동구



김귀영^{*}이범수
부산 기장군



김남섭
경북 경주시



김남영^{*}강용훈
부산 해운대구



김동주
울산 남구



김말녀^{*}이기방
강원 동해시



김명신^{*}정필환
경기 광주시



김명자^{*}노형기
서울 광진구



김명희 & 서정수
경기 남양주시



김미랑 & 김수현
부산 사상구



김미랑 & 김진목
경남 창원시



김마선 & 김재호
경기 군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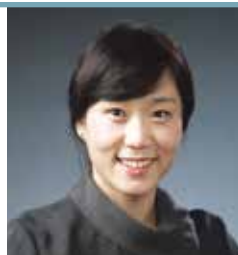
김미영 & 김창환
울산 남구

우리는 젊을 때 배우고
나이가 들어서 이해한다.

- 에브너 에센바흐 -



김미영 & 장병욱
경기 화성시



김민경
서울 용산구



김민정 & 정재현
대구 중구



김복주
경남 창원시



김상숙 & 김동규
강원 동해시



김선미 & 김영일
대전 동구



김성이 & 김철
광주 북구



김성임
경기 수원시



김수진
경남 창원시



김아현 & 김대원
경남 창원시



김연금 & 정홍재
경북 구미시



김영성 & 허승임
충남 천안시



김영화 & 남영주
경남 김해시



김영희 & 최행규
전남 순천시



김옥연
대구 달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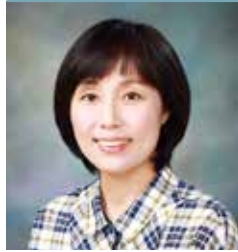
김은영 & 신민호
경기 고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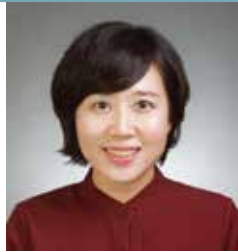
김은주 & 이재흠
경남 함안군



김정이 & 장세봉
서울 동작구



김지은
전북 전주시



김진경 & 강경우
대구 북구



김진선
경남 김해시



김항순 & 이광국
경기 수원시



김현진 & 정상남
울산 울주군



김혜미
서울 동작구



김호남 & 이민경
경기 화성시



김효은 & 양병건
전북 남원시



김희정
경기 고양시



김희정 & 문준영
경남 김해시



남영훈 & 박미주
경북 안동시



남희은 & 현준호
경기 화성시



민소희^{*}박도균
서울 성북구



박경덕
부산 서하구



박규리^{*}신성섭
충남 서산시



박미경^{*}방영진
대구 북구



박미현
경남 거제시



박미현^{*}정행남
전남 광양시



박민영^{*}양기석
전남 광양시



박선남^{*}임형섭
경기 성남시



박선희^{*}홍대웅
서울 도봉구



박순영^{*}임완영
경기 성남시



박승호^{*}채정임
경기 부천시



박영희^{*} 변용주
전남 순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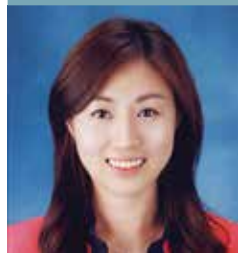
박옥란
충남 아산시



박용선
경기 의정부시



박은희^{*} 이상준
서울 강서구



박정은^{*} 이종석
경기 수원시



박지훈^{*} 임수경
경기 용인시



박창민
울산 남구



박현미
경남 거제시



박혜경^{*} 김창기
대구 달서구



박혜란^{*} 전승박
대전 서구



박희숙^{*} 이상복
인천 남동구



배광진*윤성아
경기 성남시



배병택*이명숙
광주 북구



배서연*박상건
경기 용인시

돈만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는
형편없는 비즈니스다.

- 헨리 포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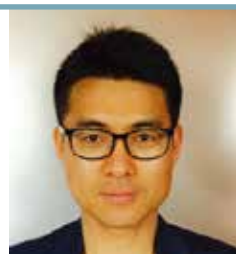
백미현*성시형
대전 대덕구



백은영*이전환
경남 김해시



사공효선*손정호
강원 동해시



서은성
경북 경산시



서지현*박재달
울산 울주군



서현호*정승
충북 청주시

Founders Platinum



성수영 & 광기영
서울 중구



송미경 & 신상호
대전 서구



송미주
경남 진주시



송설옥
대전 유성구



송정순 & 박석재
인천 남동구



송지윤 & 송준혁
경북 경주시



송진영
경기 남양주시



송혜화 & 정형우
경북 경산시



송희연 & 김근태
대구 수성구



신민경 & 김경민
전북 전주시



신은진 & 조현호
경북 경산시



신진희
부산 수영구



안미숙 & 김경재
강원 동해시

당신의 삶을 찬양하고 축복할수록 당신은 정말
찬양하고 축복할 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오프라 윈프리 -



안민경 & 조용상
경기 의왕시



양미령
경남 창원시



양복심 & 손상용
경남 남해군



오정희 & 조우영
경북 구미시



위혜정 & 정영재
울산 동구



유나연 & 임병영
부산 남구



유재화 & 한승록
강원 강릉시



윤라미 & 김진승
대전 대덕구



윤은정 & 박동명
경남 거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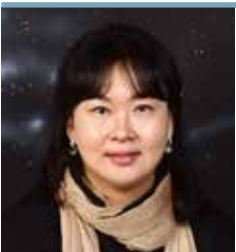
윤정분 & 김문한
경남 사천시



윤혜경 & 이범구
경기 안양시



윤희란 & 김진웅
경기 부천시



이경화 & 김영백
부산 사하구



이광자 & 강성호
부산 사상구



이득주 & 손기협
경북 경주시



이무상
경남 진주시



이미송
전남 광양시



이미향*송종덕
대전 서구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민영
울산 중구



이민영*김진철
경남 진주시



이봉현*박준호
강원 원주시



이선영*김훈
전북 전주시



이선희
경북 영천시



이수영*구필모
경기 화성시



이수영 & 김옥
경기 고양시



이수진 & 김운교
울산 북구



이순규 & 김보광
충남 천안시



이승희 & 박승현
서울 강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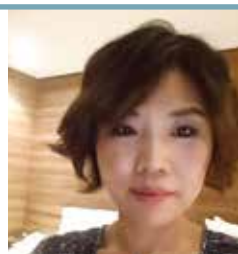
이영신
서울 강북구



이옥희
경기 수원시



이은경 & 임기선
울산 울주군



이은영 & 양득승
전남 여수시



이은정 & 최진영
서울 서초구



이인영 & 박효성
인천 부평구



이정수
서울 강서구



이지희 & 홍종환
경기 군포시



이태연 & 문진경
경남 창원시



이현옥
서울 송파구



이현주 & 한인구
부산 해운대구

당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타인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 스티브 잡스 -



이해선
경북 구미시



임선주 & 정윤후
서울 강남구



임영미 & 김광현
전남 순천시



임영선
대전 유성구



임재희*김석기
충북 청주시



임해정*이영준
광주 서구



장미자
울산 남구

내 생애 최대의 자라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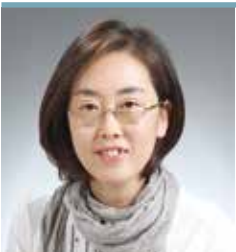
-골드스미스-



장유경*박경대
경북 칠곡군



장윤호
서울 서대문구



전경아
경기 고양시



전유선*박성용
경기 화성시



정대환
경남 통영시



정말례*강대승
경남 진주시



정선미
울산 남구



정선임
대구 북구



정성희
전북 전주시



정애숙
경기 부천시



정진라
부산 동구



정진희 & 권재웅
울산 동구



정해성 & 이정남
경남 거제시



조재화 & 김영준
경기 수원시



주문희 & 유호영
서울 관악구



지윤숙
경기 용인시



진순화^{*}김경진
광주 남구



차근애
경기 고양시



천희원^{*}문진호
울산 남구



최문희^{*}홍중도
울산 북구



최서향
전북 전주시



최선옥^{*}김원식
강원 강릉시



최성아^{*}최경근
경기 안양시



최필예^{*}차봉호
경기 화성시



최현숙^{*}한광희
서울 마포구



추미영
경남 김해시



한정순
경기 부천시



허경중 & 최은정
전북 익산시



허은숙 & 양광열
경기 용인시



홍승연 & 정대환
경기 파주시



황경숙 & 안철민
전북 익산시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한 그것이 삶의 목표라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

- 체 게바라 -



황국희 & 정진우
울산 남구



황유진
부산 북구



황인섭 & 정대관
전북 전주시



황주미 & 이상현
대전 유성구



Founders Platinum

2015년 9월 1일부

강경덕 & 배준영 대구 남구
 강문희 & 김경수 광주 서구
 강복희 울산 남구
 강석중 & 전선영 경남 의령군
 강연국 & 양지윤 경기 광명시
 강푸르나 인천 서구
 고해란 & 이상풍 대전 유성구
 박신애 경남 창원시
 구윤덕 & 지용훈 경남 진주시
 권나경 & 강남중 울산 남구
 권미숙 대전 중구
 권선애 전북 전주시
 권영태 인천 남동구
 권은경 & 박명식 경남 양산시
 권은영 & 김항기 경남 김해시
 권현순 제주 서귀포시
 길춘형 경기 안산시
 김건해 & 최지용 울산 남구
 김경란 경남 김해시
 김경분 충남 서산시
 김경숙 & 주용택 경남 거제시
 김경은 대구 수성구
 김경은 & 정준길 서울 송파구
 김귀숙 광주 서구
 김귀현 경남 창원시
 김규량 부산 금정구
 김기현 & 박나희 부산 금정구
 김대웅 & 김현지 대구 중구
 김도영 서울 서대문구
 김도영 서울 구로구
 김동기 & 허경순 경기 용인시
 김명진 & 이영민 전남 순천시
 김미숙 & 유진영 충북 청주시
 김미순 & 윤대영 부산 서구
 김민숙 & 유웅열 부산 동래구
 김민주 & 이태우 울산 북구
 김보경 & 여덕수 경북 구미시
 김상규 & 김미선 경기 양주시
 김상진 경남 양산시
 김성순 경남 창원시
 김성혁 경남 김해시
 김소영 & 김성덕 경남 창원시
 김소희 전남 화순군
 김수진 경남 거제시
 김수진 & 안대영 경남 거제시
 김승일 & 임혜선 경기 김포시
 김승희 & 안형원 경기 용인시

김시연 인천 남동구
 김시현 & 임비호 경남 창원시
 김연성 & 이동률 경기 성남시
 김연숙 인천 서구
 김영애 광주 북구
 김영애 & 김민석 경기 김포시
 김영진 & 김진욱 경기 고양시
 김영희 대구 달서구
 김영희 & 김태수 부산 사상구
 김용기 경남 진주시
 김용옥 & 예경선 충북 청주시
 김우수 & 이병애 서울 광진구
 김원훈 충북 청주시
 김은미 & 성병제 대전 서구
 김은숙 서울 강서구
 김은숙 & 박창훈 충남 보령시
 김은숙 & 박창훈 경북 경주시
 김은아 & 진상수 광주 광산구
 김은영 서울 용산구
 김은정 울산 중구
 김은정 & 이계수 부산 영도구
 김은주 & 강호정 서울 서초구
 김은지 경기 성남시
 김인순 서울 강서구
 김자영 인천 강화군
 김재준 서울 양천구
 김정두 경남 창원시
 김정미 대전 북구
 김정현 대구 유성구
 김정화 전남 순천시
 김지영 대구 수성구
 김지혜 대구 수성구
 김진각 & 정태교 대구 달서구
 김진영 & 주상훈 광주 광산구
 김진표 경남 창원시
 김진희 & 이등욱 경남 양산시
 김창건 충북 청원군
 김하숙 전북 전주시
 김해광 & 정양주 서울 강남구
 김향순 & 박철중 경기 남양주시
 김현미 & 피재호 충남 홍성군
 김현민 & 최관모 충북 제천시
 김현삼 & 김진희 경남 통영시
 김현숙 & 이상현 경기 용인시
 김혜정 & 김병문 서울 관악구
 김효영 & 임동현 인천 남동구
 김효원 & 오정일 충남 아산시
 김희진 경북 포항시

나선정 & 이경섭 대구 달성군
 남지연 & 임경훈 서울 송파구
 노현주 & 박종준 경북 영천시
 노희정 & 권오성 서울 서대문구
 동일성 서울 금천구
 모은진 서울 강남구
 문정희 & 장세한 인천 부평구
 민숙자 서울 성동구
 민지현 인천 서구
 민치영 & 임영옥 서울 송파구
 박경인 & 김신봉 서울 성북구
 박경희 경남 진주시
 박나영 경기 성남시
 박미숙 & 김동일 광주 북구
 박미옥 & 임선택 전북 전주시
 박미진 & 최우진 경기 군포시
 박민주 충북 청주시
 박보연 & 양승철 인천 남구
 박상혁 서울 서초구
 박선영 경북 구미시
 박선영 & 김중철 경남 함안군
 박성연 인천 남동구
 박성희 대구 수성구
 박세희 & 박소망 인천 서구
 박안나 & 오한규 광주 북구
 박영일 & 남동희 경북 구미시
 박영주 경기 용인시
 박용우 대전 서구
 박윤경 & 조국환 광주 서구
 박윤미 & 정영원 경기 하남시
 박은선 인천 서구
 박은주 & 강기현 대구 동구
 박정옥 & 김동원 부산 금정구
 박정은 & 정용호 부산 사상구
 박청수 & 조용현 경남 창원시
 박현미 & 차상현 경남 진주시
 박홍철 & 허지연 서울 양천구
 배선숙 & 노석진 경기 용인시
 배운진 인천 연수구
 배지은 & 권중혁 인천 연수구
 배진영 & 김재훈 인천 서구
 백해기 서울 중랑구
 백현숙 경북 경주시
 백현숙 & 추형욱 서울 노원구
 서남희 & 차재적 경기 수원시
 서복희 부산 부산진구
 서유록 & 전애서미 부산 남구
 서은미 & 박용순 전남 광양시

서지원 & 구성영 울산 중구
 소옥섭 & 김은정 경남 거창군
 손지선 & 박민수 경남 김해시
 손지영 강원 원주시
 송동근 대전 대덕구
 송서현 & 지상훈 경기 용인시
 송영진 & 이주영 경남 창원시
 송은희 & 이동열 경기 성남시
 신경민 경기 성남시
 신누리 부산 수영구
 신상희 & 하중성 충남 천안시
 신승희 & 강민우 광주 광산구
 신영가 & 노현호 부산 해운대구
 신윤미 & 박영준 경기 남양주시
 신은영 & 김정식 경북 경산시
 신혜선 대전 서구
 안병희 충남 연기군
 안윤미 & 박지훈 경기 부천시
 안희옥 & 류제승 경기 용인시
 양미선 & 박세용 인천 서구
 양승희 서울 서초구
 양승경 & 전용현 광주 서구
 양지연 & 김승대 서울 서초구
 엄미경 & 송정화 충남 공주시
 엄미정 경북 칠곡군
 엄은경 인천 서구
 오세혁 경기 용인시
 오수복 & 김성수 대구 수성구
 오영옥 전북 전주시
 오종연 & 이경환 서울 노원구
 오지현 경북 구미시
 오철학 & 최지영 경기 안양시
 옥숙자 부산 동래구
 왕린생 경기 고양시
 우선미 & 박종만 대구 서구
 유경희 & 정승옥 서울 강동구
 유민지 & 배명환 부산 해운대구
 유주라 & 홍현철 경기 수원시
 유희정 & 이승현 경남 창원시
 윤경순 & 정병우 전북 전주시
 윤미선 경북 포항시
 윤미선 & 이익규 대전 중구
 윤미성 & 신현석 인천 연수구
 윤성순 광주 광산구
 윤송용 & 오창주 서울 용산구
 윤여주 & 윤영근 서울 동대문구
 윤영미 경남 창원시
 윤영미 & 현재오 서울 금천구

윤옥화 서울 구로구
 윤원희 & 하정근 경북 포항시
 윤지현 광주 남구
 윤진아 & 김재연 경기 고양시
 윤태화 & 조강식 대구 동구
 이경미 & 이영수 부산 북구
 이경미 & 전병국 경남 창원시
 이경선 & 정준 충남 보령시
 이경숙 경기 용인시
 이광호 경기 하남시
 이교정 & 최교원 경북 안동시
 이길자 대전 서구
 이난미 & 김태현 전남 순천시
 이단실 & 박창섭 대구 달서구
 이도경 대구 달서구
 이몽우 & 서함미 경남 창원시
 이명희 & 최희원 경북 안동시
 이명희 & 이창수 울산 북구
 이문경 경기 고양시
 이미영 & 조현모 울산 남구
 이민선 & 정승진 광주 서구
 이민정 & 노상준 대전 동구
 이민정 & 최보식 서울 성북구
 이병문 & 강동원 전남 순천시
 이병선 울산 남구
 이순영 & 최성열 서울 구로구
 이순옥 충남 홍성군
 이승연 세종 자치시
 이승연 경기 수원시
 이연희 경남 창원시
 이영남 경기 광주시
 이영애 & 김운필 충북 청주시
 이영호 경남 진주시
 이옥련 & 김덕기 대전 중구
 이유탁 & 이지연 부산 해운대구
 이윤경 대구 수성구
 이윤희 경기 남양주시
 이은경 경기 남양주시
 이은미 서울 강서구
 이은미 & 전태홍 울산 북구
 이은수 경남 창원시
 이은진 광주 광산구
 이은하 & 백태현 대구 달서구
 이은희 & 허명연 울산 중구
 이정희 울산 남구
 이지희 & 김형주 경기 남양주시
 이진수 & 황선영 대구 수성구
 이현직 & 이은영 경남 창원시



Founders Platinum

이현경 & 김영탁 서울 강남구	장윤주 광주 서구	조미경 & 최순진 대구 달서구	최성숙 & 변경일 서울 중랑구	한지옥 전북 정읍시
이현주 서울 도봉구	장윤희 & 최원 경기 안산시	조민준 & 이정하 경남 진주시	최성윤 & 서은경 경기 파주시	허선옥 & 신민우 전북 전주시
이혜원 경기 안산시	장주연 대구 북구	조수민 & 이현중 경기 성남시	최송희 경기 용인시	허성림 & 김영관 경남 고성군
이혜정 & 박세준 경기 수원시	장춘옥 경기 안산시	조숙희 & 김진 대전 중구	최영란 & 박길선 서울 강서구	허성신 & 이진호 경기 남양주시
이호수 경북 구미시	장형기 & 최윤정 강원 삼척시	조영수 & 장상민 서울 서초구	최우금 & 한기현 서울 마포구	허세창 & 장미연 충남 공주시
이홍화 & 남호용 서울 구로구	장희선 & 전승현 경북 구미시	조용환 & 강순임 경남 김해시	최윤정 & 김정범 부산 수영구	허주아 전남 광양시
이효순 & 김재환 경기 남양주시	전미경 부산 부산진구	조우재 & 신경숙 부산 남구	최은정 & 이영목 전북 군산시	홍기숙 경기 의왕시
이희숙 경기 수원시	전복민 & 이상용 경북 구미시	조우진 & 정연래 충남 천안시	최은주 & 김동춘 경기 부천시	홍의승 부산 사하구
임미라 & 윤양수 충남 청양군	정규하 경기 안양시	조정희 & 김동규 부산 사하구	최인남 전북 전주시	홍인숙 경기 고양시
임미숙 & 최경열 전남 광양시	정다운 전남 영광군	조해련 & 허경환 경남 김해시	최인애 & 권순성 경기 남양주시	홍정아 & 오재권 서울 영등포구
임수정 경남 김해시	정미나 & 공준호 경기 성남시	조현미 & 이학범 경기 성남시	최인자 & 함현식 광주 남구	홍해정 강원 원주시
임수정 & 우승민 경기 수원시	정민숙 & 이도형 부산 금정구	조현실 대구 중구	최정 & 최재중 대전 서구	홍혜경 & 유대웅 경기 화성시
임윤희 & 박원녕 서울 서초구	정민주 대구 달성군	주옥 & 김태형 경기 부천시	최정란 & 최계환 부산 북구	황경주 강원 원주시
임은주 울산 남구	정순진 전남 여주시	지은호 서울 송파구	최지양 & 홍성진 경기 과천시	황명숙 & 김수진 대구 남구
임혜란 & 지승준 서울 용산구	정영자 경남 통영시	지효희 & 홍태희 인천 계양구	최현우 경기 수원시	황연정 인천 남구
임희경 & 임준형 서울 송파구	정유선 경기 수원시	진수경 & 김훈 서울 관악구	최형록 광주 북구	황용철 서울 동대문구
임희정 & 박정호 부산 금정구	정윤미 경북 구미시	최동호 & 김경진 부산 동구	최희영 & 장기현 경기 광주시	황정화 서울 강남구
장미금 부산 동래구	정혜영 경기 용인시	최문영 광주 광산구	추유림 & 주춘식 경남 창원시	황한표 & 이민성 경기 김포시
장미숙 & 황재연 부산 강서구	정향순 서울 성동구	최미숙 & 전영식 광주 광산구	표민우 대구 수성구	황호중 & 장복녀 경기 수원시
장선미 경남 김해시	조경미 & 이경용 대구 서구	최상희 경기 양주시	하은영 & 안영삼 경남 김해시	
장소례 & 이기정 경기 안양시	조경화 경기 수원시	최선미 & 김성원 서울 구로구	하재천 & 조여란 경기 광주시	
장소영 & 김봉철 경기 화성시	조덕순 경기 고양시	최선희 경기 광주시	하정은 & 은창환 경북 칠곡군	
장영희 & 김정식 경남 김해시	조명숙 & 양선모 경기 고양시	최성미 & 이종문 경기 오산시	한수엽 대전 대덕구	

하늘은 시련과 행운을 반드시 같이 준다.
 시련에 오래도록 아파하고 있다면 행운의
 포장을 아직 뜯지 않았을 뿐이다.

- 박찬호 -

Ruby



July

2015년 7월 1일부



김경순 & 채병완
강원 동해시



박현실 & 광양호
경남 통영시



배인영 & 이재철
대전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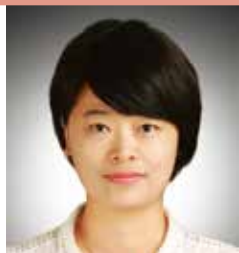
유수정
서울 송파구



윤미경
전북 전주시



이은진 & 최재호
경기 고양시



최선미 & 지영호
경기 성남시



최현민 & 김현우
서울 서초구



홍유영 & 이운길
부산 해운대구

August

2015년 8월 1일부



강민정 & 현정석
서울 성동구



고민정 & 백서준
경남 거제시



김경진 & 최동호
부산 동구



박승호 & 채정임
경기 부천시



September

2015년 9월 1일부



오혜련
서울 동작구



이수진 & 송재호
서울 송파구



강성숙 & 정창규
경남 진주시



권성욱 & 이후정
경기 수원시

일찍 책장을 덮지 마라.
삶의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른 멋진
나를 발견할 테니.

- 시드니 셀던 -



김동주
대전 대덕구



김순화 & 박건욱
강원 등해시



변인숙 & 한현
인천 서구

Ruby

2015년 7월 1일부

- 김경선 경기 광명시
- 김도영 & 장승연 서울 구로구
- 김수연 & 김동욱 경기 안산시
- 김은희 경기 오산시
- 김지현 & 김승윤 제주 제주시
- 김지홍 강원 원주시
- 김지혜 & 이국남 경기 포천군
- 노은중 & 서학을 경북 경산시
- 서난영 & 이상현 광주 북구
- 신지은 대전 서구
- 심연화 경기 성남시

유주라 & 홍현철 경기 수원시

- 윤혜영 & 안국현 대전 유성구
- 이영애 & 김운필 충북 청주시
- 이윤경 대구 수성구
- 임은경 울산 남구
- 장소영 & 김봉철 경기 화성시
- 전명옥 & 김부영 경남 창원시
- 정남순 & 김성욱 경남 마산시
- 정정숙 & 박승호 부산 사상구
- 정진영 & 박현국 충북 청주시
- 조우진 & 정영래 충남 천안시
- 한경희 전남 목포시

2015년 8월 1일부

- 강봉정 & 이연수 경북 경산시
- 김귀영 & 이범수 부산 기장군
- 김상숙 & 김동규 강원 등해시
- 김숙희 부산 기장군
- 박은희 & 구정훈 경북 경산시
- 안선희 광주 북구
- 이연주 & 김현주 경남 김해시
- 조상윤 & 최혜련 경기 수원시
- 최태옥 경기 부천시
- 황미애 & 유승하 경남 사천시

2015년 9월 1일부

- 고윤희 & 김철한 충남 계룡시
- 권희정 & 박경원 울산 북구
- 김미미 광주 남구
- 김연숙 & 곽동학 전북 군산시
- 김현화 & 강신철 제주 제주시
- 박은정 & 김철수 경기 남양주시
- 박정호 & 정경아 경기 용인시
- 박지원 & 제해수 경남 사천시
- 박지현 & 김현수 광주 서구
- 박진아 & 최준모 울산 북구
- 안정임 & 홍정표 경기 포천시

유영란 & 조태환 부산 해운대구

- 이경호 대전 유성구
- 장수영 & 설상원 경기 화성시
- 장수정 경기 의왕시
- 최미정 & 이종배 경남 창원시
- 최영선 & 제필고 부산 금정구

Platinum



July

2015년 7월 1일부



강혜정
경기 고양시



고경희
경남 김해시



공현옥
광주 북구



구남균 & 박이경
대구 달서구



김미경
경남 창원시



김시현 & 오영택
충북 진천군



김아정
세종 자치시



김예후
부산 부산진구



김은희 & 오상훈
경북 의성군



김정금
서울 강서구



김주연
전남 순천시



김진희 & 임형섭
대구 달서구



김희영 & 선석현
광주 서구



류형자
경남 남해군



박경란
서울 노원구



박은희 & 박종구
대구 달서구



박정호
부산 사상구



백정일*이승희
경기 평택시



성주연*박성득
경기 안양시



손승숙
인천 계양구



손혜령
서울 강서구



양영주
서울 도봉구

우리는 모두 스타고,
빛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 메릴린 먼로 -



유정은
경기 고양시



윤정희*김준호
충북 청주시



윤지혜*이언필
경기 수원시



윤혜경
경남 진주시



이미영*박창기
경남 창원시



이선우*최재도
서울 송파구



이은재*이기혁
경기 용인시



이정영
서울 강북구



이정희
경기 안산시



이지윤*심순보
경기 파주시



임경아
경남 김해시



장흥연
강원 통해시



장희선
충남 천안시



정진선
경남 진주시



조연순 & 강택상
대구 북구



조은옥
부산 기장군



조은희 & 순석기
경기 구리시

모범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
유일한 방법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채경화
인천 부평구



최미희
부산 사하구



최영순
울산 울주군



허찬선
부산 사하구



홍기연 & 이재성
인천 연수구



홍수분
경기 수원시

August

2015년 8월 1일부



강민주
경남 창원시



강유미
경기 남양주시



강진수
경기 성남시



고승우
경기 안산시



곽미지*강영철
대구 북구



김양경
서울 마포구



김미현
서울 동작구



김병철
경기 남양주시



김보영*이상무
경남 김해시



김정미*김태영
서울 동작구



김주우
경북 김천시



김지영
경기 광주시



김현지*이재필
서울 마포구



라경희
경기 광주시



박수진*박환근
전남 순천시



박순욱
경기 수원시



박응현
경기 안산시



박인수
전북 완주군



서윤희
부산 사하구



신강선
서울 종로구



안성연
서울 송파구



안윤옥
경기 의정부시



위연희
경기 수원시



이미혜
경기 고양시



이만규
대전 유성구



이영희
인천 연수구



이은정 & 양경훈
전남 광양시



이희숙 & 이용기
전남 목포시



정유선
경기 안양시



조행아
부산 사상구



채승화
전북 익산시



최미경 & 권영호
울산 중구



최은숙 & 신동섭
대전 동구



최은주
경남 진주시

September

2015년 9월 1일부



강경애 & 김태훈
경기 고양시



공현숙
광주 남구



박문영 & 김태형
경남 창원시



김경화^{*} 이정표
광주 광산구



김동화
부산 연제구



김선영^{*} 조수연
경기 이천시



김수영
전남 여주시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



김순향
경기 화성시



김영준
강원 춘천시



김은미
경기 군포시



김주희
울산 동구



김진연
경기 광명시



박금향
인천 부평구



박기란^{*} 이광호
경남 진주시



박동희
인천 연수구



박승란
서울 강서구



박은진^{*} 이준호
서울 동작구



박진숙
경북 안동시



박희숙
대구 북구



박희진 & 김옥진
경기 부천시



손미숙 & 권한제
경북 포항시



송인희 & 서동석
전북 전주시



신창엽 & 김선정
경남 창원시



신혜련 & 이운섭
전남 순천시



심은정 & 신덕호
경기 파주시



안건
경남 통영시



여송재
충북 청주시



오상우
서울 동작구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

- 오드리 햅번 -



오정아
강원 강릉시



유미숙 & 박신욱
경기 수원시



이경한
전북 전주시



이명옥^{*}엄종철
경북 구미시



이민희
서울 서초구



이분조
경북 경산시



이은정^{*}양상민
경남 통영시



이정미^{*}박형건
경기 성남시



임동혁^{*}최송화
경기 성남시



임희란
경기 평택시



장경숙
대전 중구



정경미
경남 남해군



정등옥^{*}강태현
서울 동작구



정문희^{*}김범준
서울 노원구



정원숙
부산 북구



정은경^{*}최성준
경남 진주시



정혜선
경기 성남시



조미숙
경기 안양시



진영선 & 이재성
대구 달서구



최명동
경기 안산시



최용준 & 한희경
서울 강남구



최우현
부산 동래구



최인희
경기 용인시



최희경 & 임동식
대구 동구



탁경혜
경기 의정부시



하영이
부산 수영구



황병철 & 김용희
서울 은평구

우리 여성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 캐머린 다이즈 -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 찰리 채플린 -

Platinum

2015년 7월 1일부

IN KAY KYUNGHEE 서울 용산구
강정애 경남 김해시
강정열 경북 상주시
고영동 대전 서구
권정아 경북 경주시
김경옥 & 윤태형 서울 성동구
김상숙 서울 성북구
김승현 경기 수원시
김일순 & 신창수 서울 관악구
김지안 부산 강서구
문호순 경기 구리시
박길남 서울 강남구
박노순 서울 동대문구
박신자 울산 남구
박은혜 경북 상주시
박정주 경기 이천시
백정민 경기 군포시
변은진 부산 사상구
서경원 & 김석호 경북 영주시
서정화 서울 강동구
손진 광주 남구
안미숙 & 김경중 부산 연제구
안현숙 서울 광진구
우현화 대구 북구
육정화 & 김광훈 서울 영등포구
윤현정 서울 성북구
이두홍 경기 안양시
이소라 경북 상주시
이영미 서울 도봉구
이유희 경기 남양주시
이종권 경기 시흥시
이진성 경기 용인시
이혜경 & 금명호 경기 화성시
이혜진 서울 서초구
이효진 & 강종진 울산 중구

임점이 경남 통영시
장미선 광주 광산구
장정희 경남 창원시
정상유 서울 강동구
정일웅 & 홍성희 경북 포항시
정정순 & 김영국 경북 경산시
조정희 경남 창원시
주숙정 충남 서산시
지현진 경남 김해시
최은지 서울 성북구
최주성 경기 평택시
홍영주 & 김효정 경남 김해시

2015년 8월 1일부

공주성 서울 구로구
김니영 경기 남양주시
김도연 & 최석희 부산 사하구
김동영 대구 달서구
김령주 경기 평택시
김막례 & 박병환 전북 군산시
김미경 & 양준철 전북 전주시
김미애 경기 수원시
김성이 경남 창원시
김수이 광주 남구
김순덕 전북 전주시
김영태 & 김연식 충북 청주시
김윤미 경기 고양시
김정숙 서울 강동구
김종진 경기 용인시
김철민 울산 남구
김춘일 경기 용인시
김해민 충북 제천시
김향숙 대구 북구
박미숙 경기 양평군
박영미 충북 청주시
박유영 & 노종권 서울 노원구

박재은 인천 연수구
박준걸 경기 수원시
박효정 경기 의정부시
석은미 서울 광진구
송영숙 & 이종찬 대전 중구
신동혁 서울 노원구
안주영 & 박성철 경기 고양시
오연화 & 김태균 서울 강서구
오은주 경기 용인시
오희정 대구 서구
웅선 부산 해운대구
유상록 & 신운학 서울 서초구
유연진 & 하현규 대구 수성구
유윤희 서울 강남구

윤귀임 & 김재근 부산 금정구
윤상민 울산 울주군
윤이숙 경남 함천군
이경호 & 안지영 경기 시흥시
이무진 & 이상규 대구 수성구
이민재 서울 강남구
이민택 충북 청주시
이승욱 & 이성민 인천 남동구
이예나 대전 중구
이정옥 서울 서초구
임영봉 서울 성동구
임주형 & 오은희 광주 광산구
임현진 경남 거제시
장병하 대구 북구
장지애 전남 순천시
장현아 & 안주호 전남 보성군
전선희 경기 안산시
전윤자 울산 울주군
조철홍 서울 동작구
차숙자 서울 강남구
천영주 경남 창원시
최애랑 대전 유성구

최익신 충북 청주시
하명재 경남 밀양시
하미혜 & 정진석 경남 진주시

2015년 9월 1일부

고경림 경기 부천시
권영애 서울 도봉구
권오현 서울 송파구
김대겸 경기 화성시
김미숙 & 김성용 인천 서구
김미진 서울 동대문구
김민정 & 김재규 경기 화성시
김복희 경기 안성시
김분선 서울 마포구
김석주 부산 동래구
김운정 & 이영재 경북 영천시
김유희 & 박정화 대전 동구
김정아 & 유동진 충남 천안시
김정화 & 김대균 서울 영등포구
김종애 서울 송파구
김종현 서울 서초구
김진욱 경기 고양시
김혜경 & 김호식 경기 용인시
김혜민 & 김도현 서울 송파구
남경진 서울 강남구
노미진 경북 칠곡군
민구석 & 이효순 충남 논산시
박관숙 서울 종로구
박미애 경남 창원시
박석순 서울 서대문구
박소윤 인천 서구
박원채 서울 강남구
박정화 인천 서구
박지영 경남 통영시
배현위 & 윤경민 세종 지치시

백범선 서울 송파구
서동원 부산 동래구
소시하 전북 군산시
손일수 & 최유경 부산 사하구
송현미 & 이기봉 경기 안양시
신윤주 서울 관악구
심원보 경기 용인시
안희영 경기 시흥시
엄혜경 & 양형진 경기 고양시
여명정 경남 진주시
오연주 경남 창원시
우수정 경기 고양시
원서영 경남 김해시
원유정 & 박원호 경남 남해군
유복선 경기 평택시

윤선호 서울 강남구
윤지영 & 김용준 경남 진주시
윤혜정 대구 달서구
이광웅 경기 수원시
이근 서울 구로구
이나윤 대구 북구
이미복 & 김성종 경기 용인시
이소연 서울 용산구
이영주 대구 달서구
이용희 경기 화성시
이유진 대전 서구
이유진 서울 구로구
이윤희 서울 강동구
이은영 & 임영록 대구 달서구
이정은 & 장재혁 대구 북구
이주희 충북 청주시
이한숙 서울 서초구
이현주 경기 용인시
이혜민 경기 용인시
이혜정 서울 송파구
장영지 & 우수군 울산 중구

장유선 & 고용우 광주 북구
장호선 경기 김포시
정경희 서울 동작구
정순연 & 권창식 경북 의성군
정은숙 경기 고양시
정인숙 울산 남구
정태욱 & 하주연 경남 창원시
정혜진 & 이남재 경남 고성군
조보경 부산 북구
조효미 & 박기식 경북 구미시
천산성 경남 진주시
최선명 경남 진주시
최신호 & 오수정 서울 송파구
최영은 대구 북구
최정자 강원 강릉시
탁세미나 & 이승준 경기 이천시
하연주 서울 종로구
한상경 & 박병규 경기 안양시
한승은 서울 강북구
한아리 서울 서대문구
홍길선 충북 청주시
홍은희 경남 진주시
황보영 & 박상우 대구 동구
황인숙 대전 대덕구

Gold Producer



2015년 7월 1일부	김지원	양성남	정호정	김선주	박혜정
강경준	김치훈	양원채	제용석	김수미&홍종민	배홍이
강성욱	김현미	오경숙	조금연	김수정	백기정
강소년&박태환	김형주	오상목	조진영	김영미	서은희
강은정&김주립	김형진&박정하	오탈호&권초록	주란&노원택	김용대	성부현
고주선&조창용	나세정	윤수미	주은미	김용한	성지안
권경민	명현	윤혜신&이정오	채은진	김윤정	송영배
권연화&박요성	문용우&황정아	이강일	천영웅	김은경	송지영
권은숙	문정선	이건주	최연정	김은성	이기자
권홍선	문화선	이경애	최유화&노광호	김은형	이내규
김경희&양영진	민설아	이매&윤해공	최윤아	김은희	이서현
김계임	박기형	이명남	최희진	김정란	이숙희
김금주	박만엽&임학규	이명복&이주형	하경옥	김정선&나병욱	이양훈
김기근	박미예	이미정&안완준	하은미	김정은	이은경
김누리	박미진	이병림	한윤영	김정희	이인대
김명숙	박소정&정성환	이상미	한은영	김준희	이정숙
김미라	박은영&김규혁	이성신&박동준	한지경	김진수	이정희
김민섭	박준현	이수진	허순자	김현빈	이주해
김선미&오정혁	박형진&강창신	이신우	허용	김현수	이혜진
김선애	배경순&이승철	이유미	홍인태&이원주	김현희	이희수
김선영&조수연	배미영	이정미&정동수	황연경	김혜영	임근숙
김양희&노상완	배은순	이정하	황정란	김혜진&이태호	임승주
김영기&이현미	배정애	이종택	황정숙	남연옥	장설미
김원미	백종훈	이지윤	2015년 8월 1일부	동명희	장현준
김윤미	서미연	이지은	강기영&이권형	문은혜	장혜영&박수형
김은희	서민수	임동희	고규라	박경봉	전연영
김인영	서은정&이상곤	임영자&유병희	공명진	박귀애&임성환	정소영
김인영	서자연	장선욱	구교현	박귀영	정유선&김상훈
김재순	성형희	장성미	구혜정	박덕희	조애란
김정랑	손지선	전미량	구희정	박소정&정인권	주보혜
김정애&박은수	손혜영	전유연	김명오	박오남	진민희
김정주	송영숙	전지혜	김미라&오정수	박은경	진영공&이소영
김중학	신가영&차유성	전혜진	김미숙	박인철	최선일
김주미	신민교	정부경	김미숙&이무진	박지현	최영화
김지숙	신지혜	정은애	김민경	박찬미	최정원
김지연	안재희	정지윤	김민수	박현선&신재준	황지희&신영환
김지영	양미자	정현지&윤영민	김민영	박혜경	

2015년 9월 1일부	김정옥&박수진	서상훈	이선희&황기섭	정혜숙&진선호	홍민경
YUN KATHRYN KYEONGMEE	김지혜	서진희	이신정	정효원&장세웅	황경화
강지은	김진희	서진희&이경호	이인자	조성경	황선영
고미선&김홍철	김철검	서혜미	이정인&김준영	조예환	2015년 6월 1일부
구분환	김춘지	신지혜&김병수	이지은	조정아	김혜민&김도현
권기봉	김춘희	심해영	이현화	조현주	소시아
권연순	김현자	엄미진	임창숙&신상일	최연화	
권혜정&이진수	김훈식&이상민	연옥희	장미선	최영상	
김경민	노시원	오수정	전진구	최정윤	
김난영	동미령	오정선&신동호	정대권	최지애	
김대순	문한주	유경&유재민	정선이	최향매	
김동국	민경상	유정숙&한용택	정선희	최효라&신정익	
김미영	박수경&강철호	윤주영	정소연	한주희	
김성훈	박수민	이나영	정용진	한지선	
김소영	박인숙&성호경	이봉연	정은숙&황종욱	허은영	
김인숙&남규선	백석현	이사라은	정해웅&전주영	홍명성	

환한 웃음을 띠고 기쁜 표정을 짓는 여성은
어떤 옷을 입어도 아름답습니다.

-앤 로이페-

Silver Producer



2015년 7월 1일부	김명화&유경철	김정아	문행선	서현주	여선희
SONGJINHUA	김미경	김정옥	민경상	석기옥	연옥희
가춘수&산상영	김미숙	김정은	민정원&박준영	설소명	염미정
강기철	김미영	김정희	민초희	성경화	오광희
강미연&서인석	김민선	김지연&이상일	박노정	성복주	오선미
강선희	김민숙	김지영	박동호&최은주	성은희&연광모	오선주
강숙희	김보라	김지혜&정선철	박미정	송명자	오정택
강유미	김보영	김진아	박미정	송민정	오준
강은숙	김상현&박소현	김진현&김윤경	박미화	송숙연	왕희진
강정선	김선정&배우영	김진희	박민식	송완준	우명숙
강정숙&이영찬	김성경	김철겸	박선애	송은숙&최상현	원소연
강정아	김성곤	김춘희	박선하	송임영	원용자
고선아	김성훈	김한나	박세빈	송정화	유명점
고주옥	김소영	김향남	박세화	신남숙	유정란
고효순	김수정	김현경	박소연	신미진	육인숙
곽진옥	김수지&이종필	김현자	박소영	신상윤	윤모한
권기봉	김수희	김현정	박순자	신서현	윤보라
권미경&하중수	김양지	김형기&김도영	박영주&김민정	신송혁	윤세훈
권미주	김연겸	김혜연	박영화	신영순	윤이림&장경수
권석준&김영미	김영이	김혜원	박은라&하점수	신영인	윤재성
권연순	김옥순&김성주	김혜정	박은진&김영록	신은섭	윤주영
권오미	김용삼	김혜진&김종민	박인옥	신은정	윤주옥
권오운	김용현	김희정	박정현	신정익	윤진아
권윤진&최홍범	김윤경&김효진	김희정	박종희	신주원	윤희
기남도	김윤정	김희정	박지혜	신진경	은선미
김경일	김윤정	나선영	박진선	심승희	이경구
김규림	김은경	남윤범	박철순	심유진	이경희
김규선	김은숙	노경아	박혜란	심혁주	이경희
김기순	김은미	노선애&강원호	배정영&박성화	안가영	이귀옥
김기에	김은정	노시원	배주희	안주연	이나경&이상일
김난영	김인숙&남규선	동미령	배지연	안희진	이동완
김동국	김인순	류지호	백승자	양미경&강경원	이미경
김동경&최선웅	김인영	마창섭	백은화	양종임	이병준
김동수&레튀린	김인자&박종춘	명윤경	변영옥	양혜경	이빈
김동욱	김인희	모근옥	서경희	양희숙	이사라운
김동준	김재성	문정아	서영은&김승주	엄명희	이상형
김두용	김정설	문정현	서진희	엄정원	이선영&정구민

이성숙	이현화	정숙경	최연화	강태경	박은아
이세원	이효영	정영미	최영상	강혜남	박은영
이소진	이희선	정용진	최영실&강민호	고소영	박현정
이순영	이희정	정은주	최윤희&박현구	곽선금	방국화
이승미&권재현	임금자	정인숙	최은경	곽유미	배미숙
이연옥	임미진	정지민&이인희	최정숙	권연이	백가현&박만술
이연주	임예진&정태형	정철용	최정윤	권희서	봉선훈
이영화	임은정	정혜림&설동화	최주현	기경민	서지윤
이완구	임인호	정혜미	최지애	김계한&황복수	성기대
이윤경	임정민	제동선	최현덕&강윤기	김남숙	송금석
이은영	임정화	조경아	추경윤&이경희	김남희	송정민
이은희	임종용	조성경	하재우	김대길	송해인
이은희&이근성	임창숙&신상일	조성은	하정윤	김대중	신혜경
이의정	임혜연	조영숙	한미연	김명주	신희숙
이인숙	임효진	조영하	한유경	김미형	안병현
이인자	장미선	조예환	한주희	김민주	양기자&최경근
이재경	장선식	조윤희	한지선	김봉화&홍지운	양윤정
이재은	장선우	조이정	한학전	김상희	양주선
이재은	장선희	조익성	허명내&피달찬	김소영	오귀숙
이정미	장영미	조인자&김수빈	허순두	김수경	오미정
이정열	장영순	조정윤	허지영&안영철	김영철	오성우
이정옥	장정님	조하영	허태경	김영희	오수희
이정인&김준영	장지영	조현주	홍명성	김은남	오연실
이정주	장현상	조혜정	홍민정&장현석	김은실	오형균
이정화	전병주	진한주	홍양숙	김지옥	유민재
이주란	전은미&김민철	채승윤	홍조영	김지숙	윤경희&조휴춘
이주명	전홍표	천순희	홍현실	김지영&최영환	윤소연&이용선
이지구&안미경	정경아&김승오	천승기	황경화	김지현	윤애정
이지원&김현철	정남숙&김원석	천은숙	황남영	김하늘&김유라	윤희선
이진희&김도완	정명희	최경화	황선영	노수정	이대업
이창주	정미정	최귀선	황소영	도인경	이선호&김명희
이춘길	정미현&이창용	최막래	황윤정	류원희	이수영
이행영	정미화	최미정	황은자	박강식	이영선
이현경	정상철	최서연&안상현	황혜숙	박남준	이영예
이현아	정성웅	최선경	2015년 8월 1일부	박선영	이영진
이현자	정수윤&김태영	최선미	강승미	박세정&류형우	이윤희
이현정&강문출	정수철	최송화	강중호	박순애	이정희

이재숙	조현미	김기중	박태진	이애리	천은정
이재훈	최기영&김정현	김민수	박향미&이용석	이우경	최기성&최위자
이정선	최영경	김성훈	서상완	이원금주	최옥희
이준석	최원석&이정임	김수미	서은희	이유선	최은영
이화영	최윤정	김순덕	선우옥경&조대식	이윤정	최하나
임승화	최지현	김순식	송용호	이하얀	최효성
임주형	최학경&권경호	김승필	신광선	임지원&이학열	황국향&문인석
장병기	최홍석	김승호	신희숙	임희준	황지미
전수진	최후식	김연봉	심현진	장현정&김상수	2015년 6월 1일부
전순자	추선영&김보국	김유영	양미자	전영선&서용호	김승환
정석수	하승룡	김유현	양승만&최진희	전현주	박미영
정수민	하영이	김은혜	양은주&이흥기	정부재	정회경
정용균	한기완&안정민	김재원	양지현&이종국	정성경	2015년 5월 1일부
정윤정&권진웅	한수영	김형탁	여성미	정성예&김남철	김남숙
정은선	한종범&김자태	김효남	오경화	정연식	2015년 3월 1일부
정태화	함윤정&정진오	김효진	오수지	정윤진	김수은
정혜주	함은영	남명주&박희수	유동열	정종희	
조경인	홍경희	남유림	유정애	정지윤	
조기현	홍지아	노원경	유진	정진희	
조나영	황영미	박기덕	윤보경	정효철&오정임	
조대연	황재희	박동욱	윤정원	조대형	
조명심	2015년 9월 1일부	박소연	이나영	조덕미	
조성열	강주아	박연순	이미희	조인정	
조채연	고광미	박유미	이선희	채정훈	
조태수	권영순	박찬규	이성희	채종필	

많은 경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 스티브 잡스 -

한국암웨이와 함께하는



사계절 좋은 습관 캠페인


따뜻하고 촉촉하고 건강한 겨울 나기 위한 좋은 습관



다양한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늘리기



적정한 습도
유지하여 보습
관리 하기




체온유지 하면서
꾸준히
운동 하기




술, 담배,
과로는 금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키기



보습성분이
함유된 세안제
사용하기



저체온증과
동상에 대응하는
응급상황 알기

AMWAY KOREA
25
ANNIVERSARY

알리바바의 마윈, 우리에게 조언하다

If Jack Ma were an ABO today...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CEO 마윈, 그는 월급 1만5000원을 받는 영어 강사에서 자산 규모 약 26조 원에 이르는 중국 최고의 부호로 거듭났다. 엄청난 성장세로 중국 현지에서 세계적 기업인 이베이를 철수하게 만든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인 그는 15년 만에 알리바바 그룹을 약 160조 원의 기업 가치로 키워낸 인물이다. 주요 언론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앞다퉈 다루고, 그가 한 말은 늘 SNS를 달군다. 그리고 여기, 그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담은 조언을 갖고 찾아왔다.



우리의 생각을 뒤엎다

돈은 수단일 뿐 많은 사람이 말한다.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마윈은 말한다. 돈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알리바바 그룹은 현금을 대거 보유한 회사로 알려진 만큼 알리바바 그룹을 단순히 '부자 회사'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마윈은 자산을 회사의 평가 기준으로 여기지 않고, '군사력'에 비유한다. 분명히 필요하지만, 돈은 경솔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무엇보다 그 어떤 일이든 돈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마윈이 대학 강사이던 시절, 강사들은 대부분 합숙소에 거주했다. 그러나 마윈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을 빌려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넓은 방을 구입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만난 여자 친구 장잉과 결혼했다. 그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돈을 모으기 위해 궁리하는 일보다 자신의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리바바를 창업했지만 바로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고, 돈도 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회사를 경영했고, 고객의 응원을 받으며 그 신념을 유지했다. 어떤 고객은 마윈이 돈이 없다는 걸 안다면서 대신 식사비를 내주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마윈은 주저앉지 않았다. 돈이라는 수단을 언젠가 자신의 손에 쥌 수 있으리라 믿으며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이 실패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놓은 것이다.

기술은 도구일 뿐 우리는 인터넷 기업의 대표는 인터넷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첨단 기술을 다루는 회사의 CEO는 IT 기술에 관해 월등한 지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그것이 보편적 생각이다. 하지만 마윈은 인터넷 기술을 전혀 모른 채 인터넷 기업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성공한 후에는 기술을 익혔을까? 아니다. 지금도 마윈은 코딩은 물론 인터넷 기술을 전혀 모른다. 마윈은 기술을 바보를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지 사람이 기술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윈은 알리바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CEO인 자신이 기술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의자를 만들 때 못이 필요하지만, 못이 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성공하기 위해 기술이 필요하지만, 기술이 성공이 될 수는 없다. 기술에 의지하기보다 기술을 존중하고, 기술 뒤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마윈은 14년 전, 알리바바를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술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기술을 모르기에 기술을 존중하고, 기술을 지닌 직원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이 기술을 잘 몰라서 어깨너머로 참견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알면 참견할 수밖에 없을 테고, 참견하면 직원들의 능률이 오를 리 없기 때문이다.

Ma Yun's Leadership Keyword #1. 창업

마윈에게 창업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다. 창업은 복잡한 일이 아닐까? 하지만 마윈은 강렬한 욕망이 있으면 창업은 매우 간단한 일이라고 말한다. 무슨 일을 하고 싶거나 바꾸고 싶은 마음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 마윈의 꿈은 전자상거래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는 창업을 통해 그 꿈을 이루었다.

| 현재의 알리바바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

淘宝网
Taobao.com

支付宝
Alipay.com

阿里巴巴
Alibaba.com



마윈은 말한다. 중국이나 세계가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나 존경은 분명히 부족하다고.

계획은 변화를 막을 뿐 사람들은 계획을 짜고, 이를 잘 실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생각은 생활 계획표를 짜지 않고 계획적으로 생활하지 않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계획이 없다는 마윈의 말이 생경하게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윈은 말한다. 자신은 비즈니스 계획을 작성해본 적이 없다고. 딱 한 번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기 위한 계획을 짜봤는데,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트집을 잡았다.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는 말을 들은 그날 이후로 마윈은 비즈니스 계획을 짜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계획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어떻게 투자자를 위한 계획을 자세히 짤 수 있을까요? 스스로 납득한 계획만 쓸모 있는 계획입니다. 변화를 포용하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그는 당초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에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변화해갈 수 있었다고 확신하며, 오늘도 변화를 포용하면서 한 걸음 내딛고 있다.

우리에게 조언하다

필요하다면 실행해라! 소년 마윈은 매일 아침 5시에 호텔을 방문했다. 그는 외국인을 만나 대화를 하면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다고 믿었다. 마윈은 호텔 앞을 서성이다가 외국인을 만나면 무조건 말을 걸었고, 외국인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집에 와서 외국인과 나눈 대화를 되새겨보고, 매일 영어 방송을 들었다.

때로는 외국인을 자주 만날 수 있는 호숫가에 나가기도 했다. 호숫가에서도 외국인을 만나면 대화를 시도했다. 자신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영어 실력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도하고, 또 시도했다.

그가 그토록 열심히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중학교 지리 선생님 덕분이었다. 선생님은 첫 수업 시간에 외국인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해주었다. 호숫가에서 외국인 몇 명이 길을 물어왔을 때, 영어로 길을 알려주면서 항저우 경치를 덧붙여 설명해주었다고 했다. 그랬더니 외국인이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며 제자들에게 영어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인이 영어로 질문했을 때 대답하지 못하면 중국 전체가 부끄러워지는 거라고.

마윈은 선생님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리고 매일 외국인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연습했다. 덕분에 그의 영어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어느새 그는 외국인을 만나려고 호텔 앞을 서성거리는 중학생이 아니었다. 외국인을 자전거에 태우고 항저우의 경치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소년 가이드가 되어 있었다

행동하는 용기를 가져라! 성인이 된 마윈은 어느 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맨홀 뚜껑을 훑쳐 가는 장면을 목격한다. 경찰을 찾아 주위를 헤매고 다녔지만 경찰은 커녕 행인조차 보이지 않았다. 며칠 전 한 아이가 맨홀 뚜껑이 없어 빠져 죽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떠올랐고, 마음이 더 급해졌다. 머릿속에는 맨홀 뚜껑을 훑쳐 가는 사람들을 막아야

Ma Yun's Leadership Keyword #2.

성공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과연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 마윈은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64
9월 10일, 중국 항저우 출생

1988
항저우사범대학에서
영문학 학사를 받음.

1995
인터넷을 처음 만나
인터넷 사업을 하기로 결심함.

1999
일리버바 그룹을 설립함.



1_ 항저우에서 열린 알리바바 10주년 기념행사사에서 파격적인 공연을 하고 있는 마윈. 2_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마윈재단의 자선 행사에 중국 교사들과 셀피 촬영하고 있는 마윈.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마윈은 도망가려는 용기를 붙잡고 소리쳤다.

“당장 다시 돌려놔요!”

도둑들이 마윈을 쳐다봤다. 마윈은 겁이 났지만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주위에 있는 카메라를 발견했다. 맨홀 뚜껑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연기자였다. 한 방송국에서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윈의 용기가 드러난 그 장면은 실제로 방송에 나갔고, 방송국 사람들은 그에게 말해주었다. 이 몰래 카메라를 통과한 건 마윈뿐이라고.

마윈은 행동하는 용기를 지녔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했다. 세상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마윈은 말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여러분이 행동한다면 그 행동이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무엇’을 ‘정확하게 하라! 대학 강사에 임명된 후 몇 년 만에 마윈은 항저우에서 인정받는 청년 강사가 되었다. 현실에 만족했다면 분명히 교내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안정을 포기하고 학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번역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다. 강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일찍부터 품었지만 5년 동안 강사를 하겠다는 결심이 있었기에 참아온 것이다.

그는 하이보라는 번역 회사를 창업했다. 항저우에서는 처음 문을 연 전문 번역 회사였다. 마윈은 전적으로 회사에 매달렸다.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적던 시절이라 많은 기업이 일거리를 들고 찾아왔다. 이때 그는 주변 동료를 떠올렸다. 특히 퇴직한 영어 강사를 조직화해 번역 일을 맡겼다. 일도 많았고, 수입도 생겼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이었다.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총수입이 700위안(약 13만300원)에 불과했다. 사무실 임대료만 해도 2000위안(약 37만2300원)이었으니 명백히 적자였다.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했고, 회사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마윈이 생각하는 성공은 끈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상과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계속 나아간다면 결국 인생에서 결실을 얻게 된다. 끈기를 갖고 한 가지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 번에 성장할 수는 없어도 한 걸음씩 진보할 수는 있는 법.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Ma Yun's Leadership
Keyword #3.

끈기



2000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의, 알리바바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함.

2005
야후의 제리 양, 알리바바에
10억 달러를 투자함.

2014
9월, 알리바바가 뉴욕거래소에
역대 최대 규모의 금액으로 상장함.

2015
5월 한국을 방문함.
6월 미국 뉴욕 애디슨패시맥에 위치한 환경보호 구역 브라운
공원을 2300만 달러에 매입하며, 환경의 미래 가치를 강조함.

생각했다. 그러나 마윈은 겁내지 않았다. 필요한 일을 실행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리고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와 일반인에게 팔기 시작했다. 일용 잡화를 비롯해 의약품과 의료 기기도 팔았다. 이렇게 번 돈으로 회사를 유지했다. 마윈의 노력으로 회사는 조금씩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마윈은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무조건 오랫동안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무엇'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천재는 99%의 탐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해도 남과 똑같이 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때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이보 번역 회사를 경영할 때 내가 견지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 두 번째는 시장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한 것입니다. 열정을 갖고 맹목적으로 전진만 했다면 번역 회사는 오늘날과 같은 규모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다

결심했다면 용기를 내라 마윈은 삼수를 거쳐 대학에 들어갔다. 그마저 4등급 중 3등급 수준의 지방 사범대였다. 하버드 대학에도 10번 도전했으나 전부 낙방했다. 하지만 비관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1995년, 마윈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겼다. 인터넷을 발견한 것이다. 친구 24명을 집으로 초대해 인터넷이 뭔지 알려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인터넷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한 시기에, 인터넷의 발전 가능성을 말하니 아무도 믿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마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인터넷 사업에 대해 열심히 설명한 뒤 투표를 진행했다.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지, 포기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투표였다. 투표 결과 23명이 포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자신을 생각해 포기를 권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인터넷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포기할 수 없었다. 마윈은 언제나 그랬듯 다른 사람의 말보다 자신의 신념을 믿기로 했다.

1999년, 마윈은 알리바바를 창업했다. 사업 초기 창업자 18명이 마윈의 아파트에 살면서 일을 했다. 창업자의 40%는 그가 가르치던 학생, 40%는 그의 친구들이었다. 직원은 점차 늘어났지만 이익이 창출되지 않았다. 창업 후 3년간 1달러도 벌지 못했다. 다른 기업들이 알리바바의 유능한 직원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 알리바바에는 평범한 직원들만 남았다. 하지만 마윈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고객이 점점 늘고 있었고, 그들은 그에게 감사 이메일을 보내며 진심으로 응원해주었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마윈의 알리바바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다. 마윈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인터넷 기업 야후의 제리 양이었다. 소프트뱅크에서 유치한 투자금으로 야후 재팬을 성공시킨 제리 양은 어느 날 중국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그때 만리장성 투어 가이드가 바로 마윈이었다. 당시에 인터넷 시장의 가능성을 알아본 마윈은 제리 양과 인터넷 시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두 사람은 급속도로



Ma Yun's Leadership Keyword #4. 이상

우리는 현실에 부딪쳐 이상을 잊곤 한다. 어쩌면 이상을 잊어야 현실에 적응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마윈은 이상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자신의 이상이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한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을 납득시키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항상 진실을 말하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가장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은 사실 언짢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아주 명쾌해집니다.”

마윈

친해진다. 이후 마윈은 알리바바를 창업했고, 제리 양은 마윈을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의 회장에게 소개한다. 손정의 회장은 마윈의 신념을 높게 평가하고, 마윈과 만난 지 6분 만에 2000만 달러(약 230억 원)를 투자한 것이다. 제리 양 역시 2005년 직접 10억 달러(약 1조1500억 원)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한다. 이 모든 일이 우연한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미래를 낙관하라 마윈은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미래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라고 여겼다. 마윈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곳에서 함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불평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고, 낙관으로 밀고 나갔다. 2011년 9월 5일, 마윈은 항저우사범대학 신입생 환영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항상 낙관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사회가 고통스럽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몇 천 년간 사람들은 우울하고

고통스럽게 인류 사회를 지탱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뀔수록 상황은 더 나아졌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를 능가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희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만과 언짢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바꿔야 비로소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마윈이 이끄는 알리바바는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알리바바의 상장 당시 기업 가치가 1667억 달러(약 197조 원)로 집계되었고, 그날 이후 상장가 대비 38%가 뛰면서 시가총액이 최고 2314억 달러(약 241조 원)에 달한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글로벌 유통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한 기업이 최고 비싼 기업으로 올라섰다는 데에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과 긍정적 확신이 만들어낸 신화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몸짓의 언어를 알면 진실이 보인다

사람과의 관계에 기반을 둔 암웨이 비즈니스,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 등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진실만 말하고 있는 몸의 언어를 통해 비즈니스에 접근해보자.



BODY

[몸짓의 언어 1 눈]

흔히 '마음의 창'이라고 부르는 눈은 흥미로운 것을 볼 때 커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작아진다. 이 외에도 눈의 움직임에 읽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선을 마주치는 횟수가 많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난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요”라고 나타내는 행동이다. 반대로 시선을 회피하면 “당신 이야기는 더 이상 듣기 싫어요”라고 해석하면 된다.

상대의 시선을 똑바로 응시한다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넘어 똑바로 응시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다. 때로는 위협을 나타내기도 한다.

눈동자 위치로 생각 읽기 어떤 생각을 할 때 눈동자가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 생각을 읽을 수 있다(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쪽 위를 바라볼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익숙한 이미지를 떠올림.

오른쪽 위: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이미지를 떠올림.

왼쪽 아래: 정확한 모습이 없는 청각적 이미지를 떠올림.

오른쪽 아래: 움직임이 많은 이미지를 떠올림.

평소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사람: 과학과 계산이 뛰어나며 잠을 많이 자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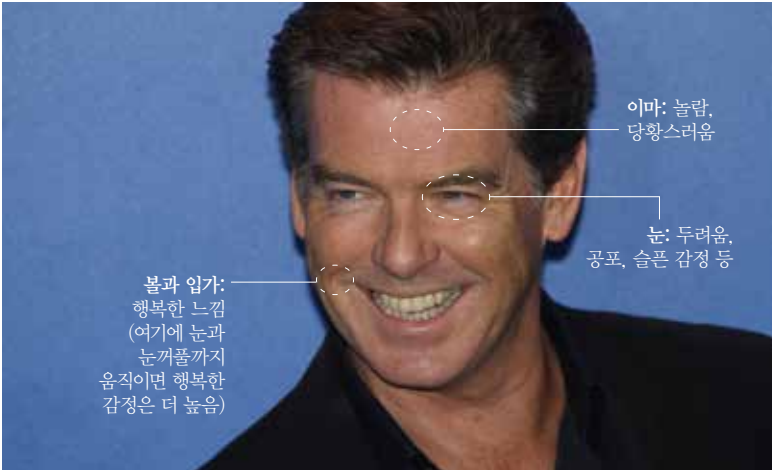
평소 눈동자 왼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사람: 고전, 인문, 음악 종교에 관심이 많고 능력도 뛰어나다.

성격이 개방적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거짓말은 감추면 감출수록 더 잘 드러난다. 몸짓, 표정, 눈을 주의깊게 살펴보자.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몸짓의 언어 2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얼굴은 수많은 근육을 이용해 속마음을 표현한다. 특히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쪽보다 왼쪽 얼굴에서 감정을 확실히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을 속이고 싶다면 왼편에 앉아 오른쪽 얼굴을 보이며 얘기하는 게 좋다.



솔직하지 못한 부정의 ‘엷은 미소’ 사람들은 솔직할 때보다 거짓말을 할 때 미소를 지으며 말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을 직업군에서 찾아보면 간호사에게 자주 나타난다. 간호사는 아무리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라도 상태를 솔직하게 말할 수 없기에 난처한 질문을 받을 때 엷은 미소를 띠며 말수를 아낀다.

긍정의 또 다른 언어 ‘침묵’ 침묵은 매우 가치 있는 의사소통 수단 중 하나다. 평소 말이 많고 말실수가 잦은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면 뭔가 거짓말을 꾸미고 있다는 증거다. 보통 사건 용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침묵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

[몸짓의 언어 3 손]

다양한 손동작은 은연중에 속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정치인의 경우 대중 앞에 나서서 연설을 할 때 의도적으로 손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손으로 허공을 잡는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행동.

주먹을 친다 자신의 결단력과 정신력을 상대방에게 알리려는 행동. 이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우유부단한 경우가 많다.

OK 사인을 한다 정확한 사고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 자신이 철저한 사람임을 과시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행동.

양손으로 첨탑 모양 만들기 자신의 권위를 암묵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둘째손가락을 똑바로 세운다 상대를 설득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행동.

얼굴을 손으로 받친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나타냄. 손은 자신을 위로하는 상징으로 어머니(또는 연인)의 부드럽고 따뜻한 가슴을 대신한다.

손가락으로 입술을 문지른다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고 평정을 찾으려는 행동으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꼭지를 빠는 것과 같다.





————— [몸짓의 언어 4 자세] —————

YES와 NO가 공존하는 '고개 끄덕이기' 머리 방향의 움직임은 대화 도중 진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대화를 할 때 고개를 한두 번 끄덕이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지만 세 번 이상 연거푸 끄덕이는 것은 “난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다. 또 대화

내용과 관계없이 고개를 계속 끄덕이는 행위는 거짓말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숨길 때 나오는 행동이다.

상대를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꾸부정한 모습' 사람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머리를 똑바로 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꾸부정한 자세를 취한다. 텔레비전 시리즈로 인기를 끈 <형사 콜롬보>에서 콜롬보는 용의자를 취조할 때 꾸부정한 자세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는다. 이 같은 행동은 심리적으로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없애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 정보를 흘리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무릎과 발끝 방향으로 알 수 있는 '호감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할 때 발끝과 무릎 방향이 상대방을 향해 있으면 호의를 느끼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어서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몸으로 표현하는]
YES or NO

양손을 책상 위에 넓게 편 채 앉아 있다.
턱을 문지른다.
대화 전 책상에 놓인 물건을 치운다.
손을 편 채 자리에 앉는다.

입술을 깨물거나 혀를 볼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
턱을 반복해 내밀었다 당겼다 한다.
손가락으로 콧잔등을 문지른다.(의심)
손가락으로 코 밑 부분을 문지른다.(불쾌)
주먹 친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앉는다.
양손을 깍지 끼 뒷머리를 감싼다.
손으로 이마를 문지른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린다.
손으로 턱을 꺾는다.



SITUATION

— [상황별 1 걸음걸이로 보는 성격 유형] —



아래만 보고 조용히 걷는다 자기 이외의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과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하다.

아래만 보고 성큼성큼 걷는다 독단적 성격. 자의식이 강해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싫어한다. 고집이 세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크게 낙담하지만 대체로 성실하다.

고개를 들고 앞만 보고 걷는다 거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며 화를 잘 낸다.

주위 풍경을 보며 걷는다 주위가 산만한 스타일이지만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아 사고가 유연하다.

— [상황별 2 거짓말할 때의 몸짓] —

손을 감춘다 손을 움켜쥐거나 호주머니 속에 넣는 행동은 자기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

입을 제외한 얼굴 여기저기를 손으로 만진다 거짓말 중에 진실이 섞이지 않기 위해 억제하는 모습. 행여 자신이 하는 말에 관심이 집중될까 봐 손을 이용해 주위를 분산시키는 행동.

몸을 흔들거린다 몸을 바로 하지 않으며 발이나 손장난을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행동.

— [상황별 3 레스토랑 좌석에 앉을 때] —

벽 가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거부하는 타입.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싶어함.

한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고집이 강함.

구석 모서리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으면서 훑쳐보고 싶어함. 결단력이 없고 침착성이 모자란 스타일.

입구 성격이 급하며 사양하기를 잘함.

창을 등지고 앉는 사람 실제보다 자기를 과장해 보이려는 사람. 큰소리 치기를 좋아하나 실속 없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상황별 속마음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센스 넘치는 건배사로 분위기 UP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배사'다. 특히 조직을 이끄는 암웨이 리더라면 때와 장소에 맞는 적절한 건배사로 모임의 흥을 돋우는 것은 필수. 연말 송년회에 사용하기 좋은 센스 넘치는 건배사를 모았다.

분야별 건배사

회술 전문가들은 건배사를 30초 안에 마치라고 강조한다. 각 분야에서 애용하는 짧고 간결하면서 유익한 건배사를 알아보자.



[나.가.자] — 경남도청, 경남경찰청에서 사용한 건배사로 '나도 잘되고, 가(그)도 잘되고, 자(저)도 잘되고'라는 뜻이다.

[청.바.지] — 현대건설에서 사용하는 건배사로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뜻이다. 나이나 직급을 떠나 젊은 생각으로 화합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상.한.가] — 여의도 증권사에서 즐겨 쓰는 건배사다. '상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가슴을 펴자'라는 의미다.

[무.조.건] — 현대차 그룹에서 즐겨 쓰는 건배사다. '무지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건승하자'는 뜻이다. 여기에 박상철의 '무조건 무조건이야' 노래 한 소절을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안.전.빵] —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SPC그룹에서 즐겨 쓴다. 선창으로 "안전"을 외치면 "빵빵빵"으로 호응한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목표를 안전하게 잘 달성하자는 의미가 있다.

[풀.풀.풀] — 병원에서 유행하는 건배사다. '남자는 파워풀, 여자는 뷰티풀, 우리 모두는 원더풀'이라는 뜻이다.

[소.공.동-미.칭.유] — 법관들 사이에서 자주 쓰는 건배사다. '소공동'은 소통, 공감, 동참의 앞자를 모은 말이다. '미칭유'는 미소, 칭찬, 유머를 줄인 말이다. 건배사 제안자가 "소공동"을 외치면 참석자가 "미칭유"를 외치며 술잔을 기울인다.

[우.하.하.하] — 항공사에서 즐겨 사용한다. '우하하하'는 '우리는 하늘 위에, 하늘 아래, 하나다'라는 의미다. 건배사를 하는 사람이 한 글자씩 선창하면 다같이 "우하하하" 웃으면서 건배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사.일] — GS건설 해외사업부 직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다. '미래를 위해, 사랑을 위해, 일을 위해'라는 뜻이다. "미사일" 하고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발사"를 외치면 된다.

[마.당.발] — 정치인이 술자리에서 많이 쓴다. '마주앉은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인맥이 중요한 정치권에선 마당발이란 단어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99.88.234] — 의사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건배사다.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4(死) 죽자는 뜻이다. 술잔을 든 사람이 "9988"을 외치면 나머지 사람들이 "234"를 외친다.

선창과 후창 건배사

“나이야” – “가라”
 “함께 가면” – “멀리 간다”
 “짱하고” – “해뜨자”



[당신멋져] — 국회 보좌관 사이에서는 ‘당신 멋져’라는 건배사를 애용한다.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살되 가끔은 저주자’라는 뜻이다.

[우문.현답] — 금융권에서 자주 사용한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이다. 선창자가 “우문” 하고 외치면 다 함께 “현답”이라고 소리친다.

사회생활을 위한 건배사

조직의 선배, 후배 등 사회생활을 통해 만들어진 술자리라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 ‘나만의 건배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 조직이나 리더 혹은 자신의 이름 등으로 삼행시 건배사를 준비하면 송년회 분위기를 한층 띄울 수 있다.



- [오.바.마]** — 오직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뤄지길
- [통.통.통]** — 의사소통, 운수대통, 만사형통
- [소.화.제]** — 소통하고, 화합하고, 재미있게
- [개.나.리]** — 계급장 떼고 나이는 잊고 릴렉스 & 리프레시하자
- [고.사.리]** —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 [아.우.성]** — 아름다운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 [상.한.가]** — 상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가슴 펴자
- [해.당.화]** —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친구들과 우정을 위한 건배사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송년회 때는 평소 건네지 못한 고마운 마음이나 위로 또는 격려를 건배사를 통해 건네는 게 좋다.



- [오.징.어]** — 오래도록 징그럽게 어울리자
- [아.이.유]** — 아름다운 이 세상 유감없이 살다 가자
- [재.건.축]** — 재밌고 건강하게 축복하며 살자
- [사.이.다]** — 사랑합니다, 이 생명 다 바쳐
- [당.신.멋.져]** — 당당하고, 신바람 나며, 멋지게 저주며 살자
- [주.전.자]** —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자주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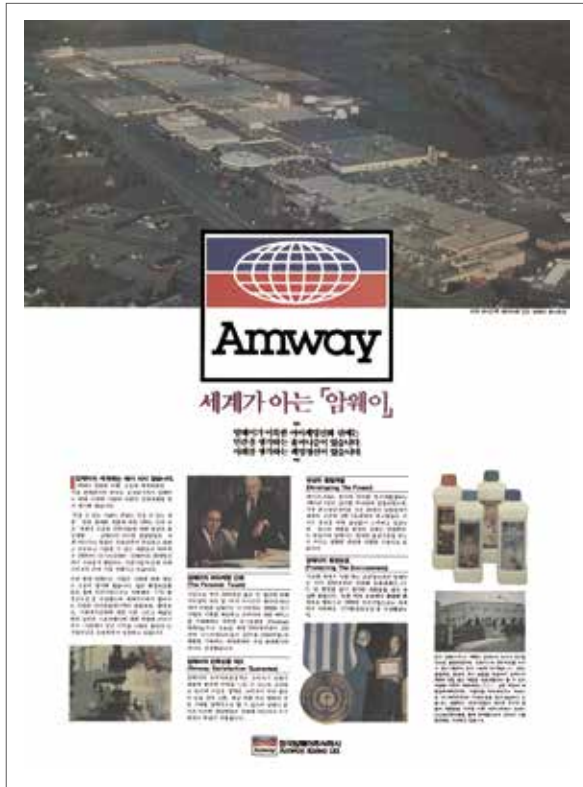
외국어 건배사

- [스페로 스페라 라틴어]** —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 [아보트르 상태 프랑스어]** —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 [코이노니아 그리스어]** — ‘가진 것을 서로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며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관계’
- [하쿠나 마타타 스와힐리어]** — ‘괜찮아, 잘될 거야’

Bulletin Board

ABO들이 알아두면 좋을 암웨이 히스토리와 오늘의 지식 & 교양 정보.

Amway History



1991년 9월 9일 <동아일보>

세계가 아는 '암웨이'

암웨이 사회와 인간 중심 경영 철학을 강조한 기업 광고로 1990년대 초 <동아일보>에 실렸다. 한국암웨이가 한국 시장에서 비교적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이유는 이런 사람에 대한 가치와 신뢰받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만족 보증 제도와 환경보호 등 1990년대 초에는 국내에선 낯선 단어였지만, 이미 암웨이 내에서는 깊숙이 자리 잡았었다. 지난 EBS의 다큐멘터리 시리즈인 '세계전문록 아틀라스'에서 부자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과 기여를 하는가라는 취지에 맞는 모델로 암웨이 회장인 스티브 밴 앤델과 사장 덕 디보스가 출연한 것 역시 암웨이의 기업 철학과 다르지 않다.

Today Books

<아매상담: 이 땅의 청춘들에게>

오선화 / 홍성사

잘 나가는 청소년·청년 멘토이자 작가와 잘나가는 기독교, 교양 출판사가 만나서 나온 책. 말 그대로 정식 상담사가 아닌 '짜나쌤'으로 불리는 오선화 작가가 SNS를 비롯한 여러 강의를 통해 청년들에게 해온 '아매' 조언을 책으로 엮었다. 그래서 혼란 희망 섞인 조언보다는 각자 나름의 고민과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톡' 하고 던져준다. 암웨이 리더들이 20대 자녀들에게 선물해도 좋을 책이다.

<섬표, 제주>

유승혜 / 클 출판사

제주와 여행이라는 쉼은 사실 너무 혼란 조합이다. 그것을 책으로 엮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유승혜 여행 작가의 <섬표, 제주>는 그 사이에 쉼(휴식)을 넣었다. 그냥 관광처럼, 유행처럼 다니는 제주가 아니라 제주의 속살 깊숙이 들어가 쉼을 얻기 위한 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안성맞춤이다.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도, 현지인의 애정 섞인 코스와 맛을 소개한다. 그래서 음식도, 갈 곳도 모두 최신 유행에서는 조금씩 한 발짝 비켜서 있을지 몰라도 제주의 진정한 매력을 알기에 충분하다.





스탠리 큐브릭전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기간 11월 29일~2016년 3월 13일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 <시계태엽
 오렌지> <샤이닝> 등 영화
 역사상 누구도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미학과 이야기
 구조를 선보인 영화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들어온 작품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감독으로
 50여 년간 작품을
 만들어오면서 사용한
 의상이나 소품, 미공개
 영상과 유작 등 흔히
 볼 수 없는 자료들을
 전시한다. 스탠리
 큐브릭만의 독특한
 개성과 느낌이 살아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아키텍키즈(Architec-kids)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무장한
 신세대 엄마들이 아이의 연령별 로드맵을 구축하는
 육아법을 말한다. 건축가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전체
 설계를 시작으로 한 층 한 층 단계별로 공정하는
 것과 유사해서 붙은 용어다. 강남이나 목동 등 학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학원 현수막에 '초3부터 준비하는
 영재고 로드맵'이란 내용의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아이가 어려서부터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계획과 이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엄마의 불안감이 혼재된 용어인
 셈이다. 아이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일면 부모의
 역할 같아 보이면서도, 어쩐지 그 틀에 맞추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1인 미디어 전성시대(Network of Multi-channel Interactive Media)

몇 해 전부터 시작된 1인 미디어의 전성기가 올해를
 거쳐 내년에는 정점으로 향할 것이라고 한다. 유튜브나
 국내 아프리카TV에 등장하는 일명 BJ가 억대를 번다는
 소식이나 북미에서 10대를 대상으로 한, 동경하는
 스타의 유튜브 진행자들이 상위권에 속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다. 채널의 다중화는 인터넷
 시대에서는 예견된 일이지만, 무엇보다 현재는 세계적
 기업들이 이 멀티채널을 인수하거나 거액을 투자해
 새로운 미디어 산업으로 재창출하고 있다. 제작과 유통,
 소비 방식이 전혀 다른 다중 채널 네트워크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

이야기 자판기

무엇이든 돈만 내면 바로 살 수 있는 자동판매기의 시대. 음료는 당연하고, 라면,
 속옷, 과자 자판기 등도 흔한 풍경이다. 중동 어느 나라에서는 금 자판기도 있다고
 한다. 그래도 창작 분야만큼은 즉석에서 끄집어낼 수 없는, 사람의 감성과 아이디어가
 바탕이 되어 기계에서 바로 나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젠 아난가
 보다. 프랑스 그레노블 지역에 '이야기 자판기'가 등장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며, 문학이 소외되는 현실을 반영한 아이디어라고 한다. 짧은 이야기가 적힌
 소설 600여 편이 자판기에 들어가 있는데, 돈을 내고 원하는 이야기 장르나 제목을
 골라 뽑아서 읽을 수 있다고 한다.



‘암웨이 프라자 울산점’ 리뉴얼 오픈

암웨이 프라자 울산점이 지난 11월 3일 리뉴얼 작업을 끝마치고 오픈 기념식을 열었다. 도심 속 공원을 의미하는 ‘Urban Park’를 테마로 새롭게 단장한 암웨이 프라자 울산점은 태화강변공원의 탁 트인 수변 공간에 영감을 얻어 산업도시이면서도 동시에 생태 도시인 울산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했다.

암웨이 프라자(Amway Plaza) 울산점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정동로 80번길 23 전화 052-212-0058
영업시간 10:00 ~ 20:30 (월~금요일), 10:00 ~ 18:00 (토요일)



암웨이 프라자 울산점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남구정동로 거리 중심에 위치한다. 시원한 아치형 통유리창과 테라스를 통해 개방감을 강조했다며,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100석 규모의 ‘파이토 카페’는 편안한 분위기를 더한다. 파이토 카페에서는 암웨이 뉴트리라이트의 제품을 활용한 각종 식음료를 맛볼 수 있으며, 방문객은 뉴트리라이트가 추천하는 다양한 맞춤형 건강 메뉴인 파이토 홈카페 레시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암웨이 프라자 울산점은 ‘공원’이라는 테마에 걸맞은 다이내믹하면서도 차분한 내부 인테리어가 강점이다. 특히 역동적 공간 안에서 차분한 느낌을 주는 책장을 병치하고 ‘스킵 플로어(Skip Floor)’를 접목해 방문객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유롭게 걸터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설계했다. 암웨이 프라자 최초로 독서를 위한 별도의 아카이브 공간을 마련한 암웨이 프라자 울산점에서는 10미터 폭의 책장에 담긴 다양한 자료를 통해 암웨이의 역사와 더불어 건강·미용·웰니스 등 사업자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득 담았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마련한 ‘퀸 쿡 룸(Queen Cook Room)’에서는 암웨이의 주방 기구 브랜드인 퀸(Queen) 제품을 활용한 요리 체험과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고, 건물 2층에 별도로 마련한 교육장인 ‘비전 센터(Vision Center)’를 활용한 각종 강의는 물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활동도 가능하다. 한국암웨이 박세준 대표는 “도심 속 공원을 테마로 기획한 암웨이 프라자 울산점은 태화강이 울산 시민들에게 그렇듯,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카페 및 독서 공간 등 편안한 휴식처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별도로 마련한 미팅 룸을 통한 비즈니스 지원까지 가능해 향후 지역 내 새로운 복합 웰니스·생활 문화센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픈된 공간에서 더 열린 마음으로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BS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도시를 변화시킨 기부자 스티브 밴 앤델과 덕 디보스 소개

스티브 밴 앤델과 덕 디보스의 기부 철학이 방송을 통해 다시금 주목 받았다. 지난 11월 7일 방영한 EBS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1부 억만장자, 도시를 바꾸다’ 편에서는 암웨이 창업자와 그들 가문이 미국의 중소도시 미시간 주 그랜드 래피즈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소개했다. 가장 먼저 그랜드 래피즈를 세계적인 미술 도시로 만든 ‘아트 프라이즈’는 2009년 디보스 패밀리의 손자인 릭 디보스가 기획하고 삼촌 덕 디보스가 약 170억(1,500만 달러)을 기부해 시작했다.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아트 프라이즈’는 약 50만 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했으며, 유명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다. 방송에서는 또 미국 최고의 의료 시설인 ‘디보스 어린이 전문 병원’도 소개했다. 1993년 디보스 가문의 기부로 설립한 이 병원은 ‘아이를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신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암웨이 직원들의 다양한 봉사 활동도 주목받았다. 암웨이는 직원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준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형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곳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부를 통해 나눔을 늘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편안한 복장에 격이 없는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한 덕 디보스는 “나는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비즈니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지 정부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모두를 연결시킨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사람과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노력한다. 그들 모두 각자 역할이 있다. 그러므로 이곳은 우리 기업만의 지역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도시 일부고 우리의 집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및 교원 ABO 등록 금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의 ABO 등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또는 교원이 ABO로 등록 및 활동할 경우, 사실 확인 즉시 해당 ABO 자격은 해지되며, 자신이 소속된 직장 혹은 단체에서의 자체적인 불이익이나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ABO를 후원하실 경우 후원 대상자의 공무원·교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안전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A

Q.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공무원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라 하고 그 외의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이라 합니다. 참고로 특정직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며,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등입니다.

Q.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교원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의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및 초·중등교육법상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및 기간제 교원, 고등교육법상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이 해당됩니다. 단, 대학의 시간강사와 사립학교의 행정 및 일반 서무직원은 교원이 아닙니다.

Q.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교원일 경우 부부 모두 ABO로 등록할 수 없나요?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교원이지만 본인은 해당 사실이 없을 경우 본인만 한국암웨이 ABO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및 교원이 배우자의 명의로,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배우자의 ABO 자격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업 활동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Q. 교원 또는 공무원이 Member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Member는 사업 및 후원 활동을 하지 않고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단순 소비자이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구입하신 제품의 판매 활동이나 후원 활동은 하실 수 없습니다.



냄새와 먼지를 0.05초마다 알아챌 수 있는가?

95% 탈취효율의 초강력 탈취필터
+ 고감도 적외선 먼지감지센서

- PM2.5
- Radon Decay Products
- Formaldehyde
- Dioxins
- Dibenzofurans
- Ozone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최고등급 헤파필터 적용
(유럽연합 필터 기준 EN1822)

- Adenovirus
- Coliphage MS2
- Coronavirus (SARS)
- Coxsackievirus
- Hantaan virus
- Influenza A virus
- Measles virus
- Mumps virus
- Parvovirus B19
- Reovirus
- Respiratory Syncytial (RS) Virus
- Rhinovirus
- Rubella virus
- Varicella-zoster virus
- Variola (Smallpox)



94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영국 알레르기 재단
16가지 전 항목 인증 (2015.1)
꽃가루, 곰팡이 포자, 반려동물 털 등
94개 유해물질 감소

- Bacteria
- Cat Allergen
- Cigarette Smoke
- Cockroach
- Dog Allergen
- Formaldehyde
- Fungi
- House Dust Mite
- House Dust Mite Debris
- Latex
- Mould
- Pet Dander
- Pollen
- Silkworm Allergen
- VOCs
- Virus



엠티스피어를 보면 그 집의 공기가 보입니다

하루중우리가가장 많이 마시는

공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실내에 있습니다

24시간 중 약 90%를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좋은 실내공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 - 2010.12]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랑 받고 있는 엠티스피어

건강한 공기를 만드는데 모든 기술을 집중합니다

공기의 질이 삶의 질이기에

좋은 공기, 그 이상
Beyond Air




“저기요... 혹시 그거 알아요?”


사회가 건강해지는 가게가 있다는 거?
원포원 착한가게라고 사회적기업 제품만을 판매하는 곳인데,
그 가게들을 **Amway**가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대요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생활 주식회사


Amway



 오리 지 널 그린 컵 [에코준컴퍼니]

 유 기 농 손 수 건 [대지를 위한 바느질]

 업사이클 뱀비발침 [터치포곳]

 바디키 콘 스포츠타올 [더뉴히어로즈]



원포원 착한가게-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